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
경험과 그 의미:
나이 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중심으로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임지홍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
경험과 그 의미:

나이 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추 지 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임 지 홍

임지홍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_____ 박 경 속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배 은 경 _____ (인)

위 원 _____ 추 지 현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을 통한 나이 듦의 이해 및 대응과 다양한 나이 듦 경험의 발견 불/가능성에 주목했다. 기존 담론과 선행연구는 체험관 가는 여성들을 무지한 사기 피해자, 환자, 효과적 마케팅 대상 등으로 여겨왔다. 이처럼 노년 여성의 체험관 이용 경험을 분절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노년 여성들의 나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주목한다.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 경험을 나이 듦으로 독해하기 위해 먼저 체험관 등장 과정과 현재 조건에 대해 살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고령화위기 담론의 증폭과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건강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했다. 건강한 노년을 영위하라는 요구에 따른 노인 건강산업의 확장으로 탄생한 의료기 체험관은 노인을 겨냥하는 소비의 장이 되었다. 노년의 건강관리 및 무병장수를 기치로 삼는 의료기 체험관은 특히 노년 여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하지 않아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불안을 심어주면서 건강을 관리하기를 주문한다. 동시에 노년 여성 이용자들이 체험관을 방문할 때마다 상품을 증정하고 친밀한 관계처럼 대접하는 등 지속적인 체험관 방문을 이끄는 전략을 펼친다.

연구참여자들이 의료기 체험관 이용을 통해 나이 듦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인생이 담긴 아픈 몸을 다스린다. 연구에 참여한 노년 여성들은 몸 여러 곳이 아픈 사람들이다. 그러나 기존 의학 담론이 전제하는 노년의 아픈 몸과 달리 이 여성들은 아픈 몸을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닌 특정 사건의 영향이나 삶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몇십 년의 삶이 새겨진 아픈 몸은 일회적으로 병원을 방문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장기간 매일 체험관에 다니며 몸을 보살핀다. 노년 여성들이 체험관에서 꾸준히 자신의 몸을 돌보는 행위는 지금껏 가족을 돌본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비법이다. 둘째, 의료기 체험관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생필품 등의 증정품은 은퇴 없는 주부 생활을 이어가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물건들이다. 산업화 시기 여성들은 동시대 또래 남성들만큼 안정

적인 직장을 구하기 힘들었지만 가족 부양을 위해 가족 돌봄은 물론 여러 노동을 겸하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다. 한평생 가정 경제와 살림을 맡아온 주부로서 여성들은 기한도 나이도 없는 주부 생활을 이어가는데 체험관에 방문만 해도 살림살이를 취득할 수 있는 체험관의 홍보 전략에 재미와 효능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매일 방문하는 의료기 체험관은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이 되었다. 가족 부양으로 인해 한정적인 개인 시간을 가졌던 연구참여자들은 은퇴 및 가족 부양 부담의 절감으로 자신만의 일상을 가꿀 수 있었는데, 의료기 체험관 직원들의 “효도” 대접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체험관으로 향한다. 매일 아침 “출근” 하듯 의료기 체험관에 다니고, 그곳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근면한 생활의 즐거움을 느낀다. 각자 다른 생애와 계층적 조건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의료기 체험관 이용을 통해 노년 여성으로서 나이 듦을 다르게 이해하고 대응하지만, 가족 내 여성으로서의 살아온 경험이 나이 듦과 연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족 내 여성으로서가 아닌 다양한 나이 듦의 경험을 발견할 여지가 있는가. 의료기 체험관 이용자들 간의 분리와 이해는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공존하게 만든다. 가족의 여성으로서 나이 들어온 만큼 이들의 이상적인 “어머니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체험관 이용자와 자신을 분리하며, 그 기준으로 인해 다른 나이 듦을 성찰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노년 여성들에게 자녀들이 자신의 건강을 신경 써주는 정도는 어머니로서 받는 효도의 척도가 되고 또래 여성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 체험관 이용자들 간의 분리를 만든다. 한편으로 노년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건강관리는 개별화되고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의 공유는 단절된다. 또한 의료기 체험관의 다른 여성들을 사기당하는 할머니들로 인식하고 필요한 의료기만 똑똑하게 구매하는 자신과 대비하는데 이는 똑똑한 가정 경영자를 내면화해 의료기 체험관 이용자들을 그 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단정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을 벗어난 다른 나이 듦과 여성 됨의 경험을 발견할 가능성 역시 발굴된다.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다른 여성의 삶을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한 계기와 조건 아래서 형성된 소수의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가족을 벗어난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의지할 존재가 되기도 한다. 체험관 이용자들 간의 분리가 발견되지만 이런 소수의 관계가 의료

기 체험관 다니기를 지속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나이 들어 무지한 여성들이 의료기 체험관에 속고 있다는 노년에 대한 편견을 담지한 기존 담론에서 ‘나이’를 포착해 오히려 체험관에서 이들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에 주목한다. 또한 노년 여성의 나이 듦을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닌 삶의 조건에서 읽어 가족 내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맞닿아있음을 밝혔으며, 다양한 나이 듦의 경험을 발굴할 가능성을 고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노년 여성, 의료기 체험관, 나이 듦, 아픈 몸 다스리기, 나이 없는 주부, 이상적 어머니 규준

학 번 : 2021-20975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1. 의료기 체험관 관련 연구	3
2. 노년 여성의 아픈 몸 대응과 의료기관 경험 연구	7
3. 노년 여성의 사회적 관계 관련 연구	12
제3절 이론적 배경	16
1. 노년 여성의 나이 들과 젠더	17
2. 연구질문의 구체화	20
제4절 연구 자료 및 방법	21
1. 자료수집	21
2. 분석방법	31
제2장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과 서비스 전략	33
제1절 한국 사회 노년의 변화와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	33
1. 의료기 시장의 확장과 가정용 의료기 개발	33
2. 고령화위기 담론과 가정용 의료기 유행	36
3. 건강관리와 ‘생산적 복지’ 시대의 IMF 유망 사업 홍보관	41
4. 세계화로 확장되는 신노년의 장으로서 체험관	45
제2절 노년 여성 대상 의료기 체험관의 설득전략 및 서비스 ..	46
1. 노년 여성들의 일상 생활권에 가까운 의료기 체험관의 입지 ..	47

2. 체험관 이용 순서와 의료기 효능을 공유하는 내부 공간 배치	52
3. 의존 불안 자극과 지식의 권위에 의탁한 의료기 판매	57
4.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체험관 직원들의 대접 서비스	63
제3절 소결	66

제3장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과 동인 : 나이 들 의 이해와 대응 69

제1절 삶이 새겨진 아픈 몸 다스리기	69
1. 노화의 결과가 아닌 고된 세월을 관통한 아픈 몸	69
2. 병원의 “일회적 진단”과 체험관의 “몸 보살피기” 대비	73
3. 돌봄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아픈 몸 다스리기	78
제2절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나이 없는 주부생활	80
1. 부업 노동의 연장선으로서 증정품 취득	80
2. 나이 없는 알뜰한 주부의 습성	83
3. 증정품 획득에서 이어지는 재미와 효능감	85
제3절 일상이 된 체험관 다니기의 즐거움	86
1. 가족 부양으로 인한 한정적인 나만의 시간	87
2. “효도” 기반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일과	89
3. 출근체계와 배움이 이끄는 근면한 생활의 즐거움	94
제4절 소결	98

제4장 다양한 나이 들 경험 발견의 불/가능성 101

제1절 이상적인 어머니 기준에서 비롯한 나이 들의 기획 공유의 단절	101
--	-----

1. 개별화된 건강관리와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의 갈등	101
2. 똑똑한 가정 경영자와 대립하는 “사기당하는 할머니”와 거리두기 111	
제2절 가족에서 벗어난 나이 들과 여성 됨의 지평을 조망하기 114	
1. 다른 아픈 몸들과 삶의 이해	115
2. 의지가 되는 소수의 믿을 만한 친밀한 관계	117
제3절 소결	119
제5장 결론	122
참 고 문 헌	127
Abstract	136

표 목 차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및 정보	26
[표 2] 참여관찰 장소와 일시 및 동반인 정보	28

그 립 목 차

[그림 1] 여성 모델과 무료 증정 생필품을 내세운 의료기 광고. (경향신문, 1991.08.13.)	39
[그림 2] 영옥이 다닌 체험관의 전단지(좌),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체험관의 전단지(우).	48
[그림 3] 체험관의 카페 공간(좌), 비교적 어둡고 칸막이가 쳐진 안쪽의 공간에서 의료기를 이용하는 연구자(우).	49
[그림 4] 여정의 체험관에서 족욕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좌측 3인)과	

연구자(우측).	51
[그림 5] 지압침대 체험관의 공간 배치.	54
[그림 6] 여정의 체험관의 공간 배치.	56
[그림 7] 여정의 체험관 벽에 부착된 독소별 의미에 관한 표.	57
[그림 8] 강연하는 센터장과 증정품들.	58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의료기 체험관”이라는 단어를 마주한다면 무엇이 생각날까. 누군가는 공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기 체험관과 체험관에서 의료기를 이용하고 구매하는 노인에 대한 보도는 지속되고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의료기 체험관”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99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보도된 기사는 80편 정도로 많지 않은데¹⁾, 기사의 대부분은 의료기 체험관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홍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의 단속으로 의료기 체험관 몇 군데가 허위 및 과대광고로 적발되었음을 보도한다. 위 기사들의 묘사에 따르면 의료기 체험관은 ‘작은 방 안에 노인들이 좁은 간격으로 온열매트에 누워있거나 허리, 머리, 얼굴, 무릎, 발 등에 기계들을 두르고 있으며, 노래방 기계와 마이크가 있어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건강에 관한 강연을 빙자해 의료기의 효능을 어필하며 방문고객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곳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다수 기사는 단속에 적발된 체험관들을 “노인 울리는, 어르신 속인, 노인들 속여, 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인 기만 상술” 등의 제목²⁾을 붙이는데, 이 제목을 통해 지배적인 담론이 의료기 체험관은 사기행위의 장으로, 체험관을 찾는 노인들은 무지한 사기 피해자로 바라봄을 파악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의료기 체험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방역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감염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체험관에 방문하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식까지 덧붙여졌

1) ‘빅카인즈’는 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검색 및 분석서비스로 총 54개 언론사의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어 의료기 체험관에 관한 80여 개의 기사만 찾아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사용했을 때 2002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50여 개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이 역시 많은 편은 아니다.

2) “어르신들 울리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08.01.25. 연합뉴스)
“노인 울리는 건강식품·의료기기 ‘뺏다방’”. (2017.01.05. 충청일보) 등의 기사를 참조.

다.³⁾

의료기 체험관에 관한 한정적인 담론처럼 관련 학술 연구 역시 드물지만 그나마 세 가지 연구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지배적 담론과 마찬가지로 체험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무지한 피해자로 전제하는 연구다. 체험관에 가는 노인의 특성을 사기 피해의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이은주, 2016). 이 연구는 체험관에 다니는 노인들을 사기 피해 예방을 도와야 하는 사기 피해자 집단으로 바라본다. 나머지는 체험관의 마케팅 효과성에 주목한 연구(윤인숙, 2006; 박철, 2011)와 보건/의학 분과에서 체험관을 지극히 의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의료기의 ‘효능’이나 노인들의 대체의학 이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수현, 2014)가 있다. 이 연구들은 노인들의 의료기 체험관 경험을 살피더라도 체험관 마케팅의 유효성, 보완대체요법으로서 의료기의 효과를 중심으로 그 경험을 본질적으로 바라본다. 노인들을 사기 피해자 집단으로 보거나 본질적 요인으로 분석한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체험관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의료기기 관련 사기를 많이 당하며 체험관 이용자의 대다수가 노년 여성인 사실을 보고한다. 체험관 이용자의 대다수가 노년 여성인데도 이용자의 성별성에 주목하지 않고 있는 바, 이 역시 노인을 몰성적인 남성으로 대표하는 오랜 담론(Gannon, 1999: 14-15; Cruikshank, 2016[2013])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의료기 체험관을 일상적으로 다니는⁴⁾ 노년 여성들의 경험과 그 의미에 주목한다. 그 경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 배경과 이 공간의 특성을 파악한다. 의료기 체험관이란 의료기 판매회사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온열기, 온열매트, 온열 및 지압침대 등의 의료기를 장기적으로 직접 사용해볼 수 있게 마련한 공간이다. 이곳의 특징은 의료기 판매뿐만 아니라 의료기 ‘체험’에 방점을 뒀고 고객들이 일

3) “어르신들 와글 의료기 떴다방. 담요·방석 소독은 없었다”, (2020.06.22. 조선일보)

4) 단순히 1-2회성의 단기, 일시의 방문이 아닌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정기적으로 꾸준히 의료기 체험관을 간 노년 여성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 행위는 단순히 체험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볼일이 있어 일정한 곳을 정하여 놓고 드나들다”는 뜻을 지닌 “다닌다”고 표현할 수 있다.

회성 방문이 아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장기적으로 의료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의료기 구매를 유도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노년 여성들은 의료기 체험관에 매일 방문해 의료기를 이용하며 아픈 몸을 달래고, 방문할 때마다 생필품 등의 작은 상품들을 받고, 하루에 2시간 이상 머물며 일상을 꾸려 간다. 노년 여성들이 체험관에 다니는 행위가 기존 담론과 연구가 바라보듯 과연 비합리적인지 반문하며 체험관 이용의 유인과 지속의 경험을 바라본다. 이 여성들은 어떤 생애 경험이나 자기 이해 속에서 체험관이라는 공간의 이용을 지속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의료기 체험관 공간의 특성과 한국 사회 노년 여성들이 놓인 조건들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노년 여성들의 체험관 이용 경험의 의미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도출한다.

1. 의료기 체험관 관련 연구

의료기 체험관에 관한 연구 중 체험관 이용자나 체험관에서 판매하는 의료기 이용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의료기 체험관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에 관한 연구다. 이은주(2016)는 노인 대상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사기, 무료관광 빙자 물품 판매 사기, 홍보관 및 뗏다방⁵⁾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의

5) 홍보관은 의료기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공간으로 이곳에서 의료기를 이용해볼 수 있어 명칭만 다를 뿐 체험관과 같다. 의료기 체험관이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를 이용해보고 판매하는 공간이 먼저 등장했고, 현재는 의료기 체험관이라고 더 많이 불리지만 여전히 체험관과 홍보관이라는 명칭을 혼용한다. 공간의 명칭 변화는 체험관의 등장 과정을 분석하며 2장 가절에서 더 자세히 후술할 예정이다. 뗏다방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영업하는 가설 상점으로, 사은품으로 홍보하며 손님들을 모은 뒤 마지막에 판매품을 꺼내 높은 가격의 물건을 강매하는 형태다. 실제 뗏다방에서 의료기를 판매하기도 하고, 사은품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고 판매하는 점이 의료기 체험관의 판매 형태와 유사하다.

사기피해 및 반복사기피해 원인을 고찰한다. 서울과 경기도의 노인여가 복지시설⁶⁾을 이용하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성별, 학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부터 범죄대상으로서의 적합성,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나 장치 여부를 분석하는 개인적 특성요인, 유흥가 존재 여부와 지역주민의 신뢰 및 지역사회의 통제력 등 지역적 특성요인을 변수로 설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성별, 사기 예방교육과 가족 친밀성 그리고 동거 유무가 노인 대상 사기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반복사기피해의 경우 학력이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단순히 노인 사기피해의 현황 제시에서 나아가 피해 원인 규명의 의의가 있지만, 사기피해 경험 유무에만 주목해 이용자들의 사기피해 맥락과 일상적인 체험관 경험의 관찰이 어렵다. 무엇보다 성별을 변인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의 1.412배의 사기 피해 경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지만, 성별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는다. 노년 여성의 높은 사기피해 가능성은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이유의 규명과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경험에 더 집중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예컨대 이 결과는 의료기 체험관이 노년 남성보다는 여성과 더 밀접한 공간이라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의료기 체험관의 마케팅 방식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윤인숙(2006)은 1999년 개인용 온열기 시장의 붐이 일어난 뒤 2003년 이후 식약청의 규제에 따른 국내 의료기 시장의 침체를 지적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수립을 위해 의료기 체험관을 이용하면서 의료기를 구매한 고객의 특성 및 구매 결정요인을 알아본다. 실제 한 체험관의 이용 고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의료기 체험관 이용자의 약 70%가 여성 이용자였고, 의료기 체험관 주 이용고객은 70대 여성 노인으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활동적인 성향으로 주위 사람의 소개로 체험관을 찾는다. 체험관 방문을 지속하는 이유로 이용자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건강회복(140명, 93.3%)을 꼽았다. 또 체

6)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분류되는 시설 중 노인의 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마련된 시설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험관 이용 기간의 성별 차이를 제시하는데, 여성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1주 미만(여성의 42.7%), 남성 이용자는 1년 이상(남성의 41.3%)에 다수 분포한다고 나타난다. 이를 통해 남성 이용자는 여성에 비해 적은 수지만 체험관을 장기간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 이용자는 남성과 비교해 유입이 활발히 이뤄짐을 알 수 있다.

체험관 고객의 62%, 체험관을 이용하면서 의료기를 구매한 고객의 82%가 가족, 지인, 주변의 소문을 통해 체험관을 알게 되었으므로 체험관 유입 과정은 동네 이웃 등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체험관 유입의 확연한 성별 차이는 노년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맺기가 체험관 유입과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를 시사한다.

이 연구는 체험관 이용자 특성과 이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체험관 운영방식을 설명하지만 체험관 이용시간과 의료기 등의 가벼운 기술에 그친다. 이용자들이 어떻게 체험관으로 유입되고 방문을 지속하는지 유추 가능하나, 의료기 구매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상에서 의료기 체험관을 다니는 경험과 그 의미를 찾기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분야 연구로 의료기 체험관의 의료기가 대체의 학으로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탐구한다. 이수현(2014)은 서울 지역 3개 체험관 이용자 8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특성과 의료기를 포함한 보완대체요법 인식을 조사해 보완대체요법의 노인 만성질환 치유 가능성을 살핀다. 그 결과, 체험관 가는 나이대는 60, 70대가 가장 많고, 남성 보다는 여성 이용자가 더 많아 이용자의 대다수는 60~7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자들이 택한 보완대체요법에 적용 가능한 질환 순위는, 1순위 요통, 경추통, 오십견⁷⁾, 2순위 팔꿈치, 팔목, 무릎 등의 관절통이다.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특정한 병은 병원 치료보다 더 낫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성별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 만족도와 가치판단의 차이를 보고한다. 보완대체요법 이

7) 순서대로 허리통증, 목통증, 어깨통증이다.

용 시 만족도는 남성 46.7%, 여성 83.3%로 여성의 만족도가 1.8배가량이나 높다. 또 보완대체요법이 비싸다, 하지만 비싼 가치가 있다는 두 가지 질문에 각각 여성은 22.9%, 41.7%, 남성은 6.3%, 18.8%로 긍정적으로 답하는 차이를 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보완대체요법의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지만, 가치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보완대체요법에 만족한다. 만족도와 가치평가에서 뚜렷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설명되어야 할 문제다.

위와 같은 연구들에서 의료기 체험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단편적인 사실은 알 수 있을지라도 그 통계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노년 여성들이 의료기 체험관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체험관 가는 노인들의 실제 경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연구 경향은 한국의 ‘노인’ 관련 연구가 크게 경제, 복지, 건강 분야에 집중(전희경, 2017)되어있다는 지적과도 맞닿아있다. 연구 편향의 이유 중 하나는 노인을 거시적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복지수혜의 대상이자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가는 체험관이라는 공간에,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갖는 의미나 그 삶의 조건에 주목하기보다 건강 염려, 사기 우려와 같은 손쉬운 진단이 내려지는 이유는 노년의 나이 듦의 과정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나이 듦을 그저 몸 건강의 쇠퇴, 인간 행위성의 탈락, 극단적으로는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의료기 체험관 관련 연구의 전체 표본 중 여성 소비자가 60~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인구통계 특성으로 여성이 많다는 정보만 제공할 뿐 노년 여성이 주 소비자라는 점을 부각하거나 주목하지 않는다. 앞의 연구들에서 만족도나 가치판단 등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제시하는데, 성별에 따라 의료기와 체험관 이용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차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노년 여성의 체험관 이용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

2. 노년 여성의 아픈 몸 대응과 의료기관 경험 연구

윤인숙(2006)의 연구에서 93%의 체험관 이용자가 의료기 체험관을 지속적으로 가는 이유로 '건강회복'을 꼽았다. 의료기 체험관 방문 이유를 보았을 때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라는 항목에는 단 5.3%의 사람만 응답하여 대다수의 체험관 이용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아픔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아픈 몸의 회복과 관리를 위해 의료기 체험관에 다짐을 알 수 있다. 의료기 체험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건강을 위한 의료기 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기 체험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도 방문할 수 있으므로 노년 여성들이 의료기 체험관을 방문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노년 여성의 아픈 몸에 대한 대응과 의료기관 경험 연구들을 살핀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 중 노년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6.1%로 높은 축이다.⁸⁾ 노년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률 중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질환은 바로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골다공증, 요통과 좌골신경통이다. 이 질환들의 노년 여성 유병률은 각각 23.3%, 13.7%, 14.3%로 같은 질환의 노년 남성 유병률이 각각 7.4%, 1.7%, 4.3%인 것과 대비해 약 3배 혹은 골다공증의 경우 8배 가량 높다. 만성질환이란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하면서 오래 끌고 잘 낫지 아니하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져 현재 의료체계에서 완전히 그 증상이 없어지게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대체로 노년 여성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질환은 허리와 골반 통증 등 신경계와 관절에 느껴지는 통증이 수반되어 수술 등의 단발적 처치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질환들이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년 여성들에게 질병 경험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8) 유병률이란 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 인구에 대한 환자 수의 비율을 뜻한다. 남성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1.3%로 여성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더 높다(보건복지부, 2021).

해석하는 계기(신재신 외, 2001; 조명옥 외, 2003; 조명옥, 2007; 천희란 외, 2010 등)가 된다. 몸이 불편하지만 아픔을 완전히 치료하기 힘든 상황에서 노년 여성들은 꾸준히 몸의 증상을 다스리고, 질병의 원인과 의미를 찾는다. 노년 여성들은 자신의 병인을 찾는데 과거 잘못된 대가, 유년기 영양이나 식습관의 문제, 자녀 양육, 노부모 공양, 이른 사별 등 젊은 시절의 고생, 시집살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억압, 임신, 출산, 유산의 재생산 경험 등을 통해 해석한다. 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아픈 몸은 단지 나이 든 결과라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단 내려주는 정지된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삶을 대변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새롭게 해석해나가는 장이다.

특히 노년 여성들은 아픈 몸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 및 출산, 노부모 공양 및 시집살이 등 가족 내 경험들을 떠올리는데 아픈 몸의 관리와 대응 역시 가족, 자녀와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조명옥(2007)의 연구에서만성질환이 있는 농촌 마을 여성 노인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몸을 자식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년 여성들이 자신의 아픔을 곧 자녀의 부담으로 여김은 이동옥(2009)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바다. 노년 여성들은 아프면 자녀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어머니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평생 가족을 보살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받는 돌봄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필사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병원에 달려가(이동옥, 2009: 105)”야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노년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의 대비를 통해 더 극명해진다. 이 연구의 여성 연구참여자와 달리 노년 남성 연구참여자들은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한 젊음의 유지, 건재하고 강한 몸의 과시를 위해 건강을 관리한다. 이로써 건강관리를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어머니로서 책임으로 여기는 것은 노년 여성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년 여성들이 나이 드는 과정에서 어머니 경험은 무엇이며, 그 경험과 인식이 건강관리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나아가 의료기 체험관

경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모든 노년 여성 참여자에게서 관찰된 강박적 건강관리는 계층의 차이를 막론하고 이뤄졌으나, 중산층은 병원을 자주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았고, 저소득층이거나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고 자원이 많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해야 했다. 노년 여성의 돌봄 기대와 건강관리 양상을 통해 경제적 수준, 젠더, 지역⁹⁾ 등 계층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관리의 계층적 차이를 통해 어떤 계층적 요소가 체험관 유입과 경험의 차이를 만드는지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의료기 체험관이 노년 여성들에게 몸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 여성들이 평소 아픈 몸을 관리하는 방식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선 분석과 같이 여성들의 계층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며 노년 여성들의 아픈 몸 관리와 의료기관 이용 경험을 살핀다. 노년 여성들의 아픈 몸 관리에 관한 연구는 간호학, 사회복지학 분과에서 진행된 노년 여성들의 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 사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다수다(손지영, 2020; 박금숙·김혁준, 2021; 김난영·도광조, 2022 등). 이 연구들은 사회복지 차원의 건강 프로그램의 노년 여성 건강증진 효과성의 입증이 목적이나, 노년 여성들이 자신의 아픈 몸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한국 노인의 의료이용 현황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약 복용과 보건의료기관 이용 실태 관련 통계를 통해서나마 알 수 있다. 3개월 이상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인 노인은 평균 82.1%, 여성 노인은 84.5%로 남성보다 5.4% 높았다. 지난 한 달간 병원, 의원, 보건소, 한의

9) 농촌 지역 여성들의 건강관리경험을 지역적 맥락을 고려해 살핀 김숙영 외(2011)의 연구가 있다. 농촌 여성 노인들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낮은 의료기관 접근성에 따라 한꺼번에 약을 처방받아 투여하고 지역 보건진료소에 의존한다.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긴 병치레 없이 편안히 생을 마감하길 소망하는 경향은 이동욱(2009)의 연구참여자와 비슷하지만,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이동욱의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관 혹은 의료서비스 접근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다.

원, 치과 등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70.6%이며 여성 노인이 73.5%로 남성보다 6.6% 높았다. 전반적으로 한국 노인들은 높은 비율로 약을 복용하고 병원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노인들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수치와 연관되어 보인다. 근소한 차이지만 여성 노인의 의료이용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현황도 주목해야 하는데, 여성 노인의 의료이용이 남성보다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의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¹⁰⁾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픈 몸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연구는 간호사 등 의료진이나 보호자의 관점에서 노인 환자를 돌보는 방법의 관점에서 비롯된 연구들이 다수다. 또 의사가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병, 의원 위주로 의료기관을 상정하며,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경험, 특히 노년 여성 환자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노인 입원환자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그 중에도 요양병원에서의 경험 연구(강정희, 2013; 백종진, 2014; 강군생·김정선, 2017)가 가장 많다. 대체로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연구는 이 여성들이 자신의 아픈 몸을 생애로 해석하거나, 아픈 몸 관리를 가족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실제와 달리 의료체계에 정해진 진단과 환자 관리의 효율성 위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이 환자로서 어떤 난점이 있는지에 관한 몇 가지 경험 연구들이 있다. 김희경(2003)은 무료노인병원¹¹⁾에 다니는 노인의 의료진과의 관계와 ‘환자 되기’를 살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의료진들은 노인 환자들을 완치 불가능한 병에 걸린 환자로서 바라보며, 노인

10) 의료법 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인 조산원,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다.

11) 김희경(2003)의 논문에서 주목하는 무료노인병원은 노인 대상 의원급 병원으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진찰, 처방, 치료를 해주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병원을 뜻한다.

들에게 환자 예절을 지키고 병원의 치료 지침에 순응하는 노인병 환자로 길들기를 요구한다. 병원에 방문하는 노인들은 모셔야 하는 ‘어르신’이 아닌 ‘환자’로서 예절을 지키게끔 하는데¹²⁾, 환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혼계하며 “병을 고쳐주는 의사”의 위치를 상기시킨다.

단기 입원한 노년 여성의 병원 이용 경험에 관해 Freeman(2002)은 병원시스템이 노년 여성의 연령 특수적인 필요와 돌봄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한다.¹³⁾ 연구참여자들은 병원의 돌봄 공백에 대항하기 위해 기대를 낮추고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지원책을 발전시킨다. 이 여성들은 병원의 돌봄에 기대를 낮추고자 자신과 다른 환자가 의료진에게 바라는 기대와 요구를 비난하고 바쁜 의료진의 의견에 순응하고자 아픔을 참기도 한다. 이로써 노년 여성 환자들은 의료진에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말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야 하는 두 가지 곤경에 갇히게 된다(Freeman, 2002: 76).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의 지원 덕에 돌봄 공백에 대처할 수 있었고 몇몇은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참여자들의 필요를 대변할 수 있는 가족의 관여는 생존의 문제였다. 흥미로운 점은 노년 여성 연구참여자들이 입원한 동안 남성 가족 구성원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하는 모습이다. 가족 구성원의 보살피는 행위를 구성원의 성별

12) 간호사가 진찰권을 가지고 오지 않은 환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추운 날씨에 진료 전 대기실에서 걸옷을 입고 있는 환자들에게 짜증스럽게 “혈압 측정을 위해 걸옷을 벗어야 한다”며 “병원에 와서 걸옷을 벗는 것은 기본 아니냐”고 투덜거리는 장면을 연구자가 관찰하기도 했다.

13) Freeman(2002)의 연구참여자들은 신체적 돌봄을 비롯해 감정적 돌봄 역시 불만족스럽게 여겼다. 노년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목욕, 이동성, 식사, 의치, 청취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어린 환자와 차이를 인식했다. 또한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여성들은 감정적 돌봄도 충족하지 못했다. 병원에 머물며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자신의 기분을 묻는 사람은 없고, 자신은 인간이 아닌 고장 난 장기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이 여성들은 의료진들이 훈계하면서 자신을 유아 다루듯이 대할 때 화가 났다. 이는 병원의 여성 환자 노인들을 향해 돌봄제공자들이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단 순하고, 크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노인말’에 관한 이현정(2018)의 연구를 연상시킨다. 여성 노인 환자들에게 하는 노인말은 노인의 무능력과 의존성을 간주하며 의료적 효과에도 부정적이며, 돌봄제공자와 노인 간 세대 소통의 질을 떨어트린다. 노인말은 돌봄 제공자가 여성 노인 환자에게 남다른 정서적 유대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돌봄제공자가 여성 노인 환자를 일방적으로 “위계적인 인간 계층 구조 안으로 납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납치는 여성 노인 환자가 노인, 환자일 뿐 아니라 여성이라는 한국 사회의 젠더 위계가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이현정, 2018: 422)로 파악된다.

에 따라 달리 여기는 태도는 추후 더 살펴야 할 문제다.¹⁴⁾ 대체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가족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특권적 집단에 속했다. 이 연구참여자들처럼 모든 노년 여성들이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은데도, 병원에서는 퇴원 후에는 이 여성들을 가족들이 돌볼 것이라 가정하고 환자보다 가족들과 소통해 가족들에게 노년 여성들을 넘기는 형식이다. 노년 여성들은 의료기관 방문과 방문 전후로 적절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고, 병원시스템에 바라는 수준이 낮다 보니 가족에 기댄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어디서든 마음 편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노년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며 이 조건이 의료기 체험관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더 살펴야 할 문제다.

3. 노년 여성의 사회적 관계 관련 연구

노년 여성들의 체험관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체험관으로 유입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의료기 체험관 이용기간의 확연한 성별 차이를 통해 노년 여성들의 활발한 체험관 유입을 유추할 수 있었다. 더해, 대다수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자가 주변 사람들의 추천과 동네의 소문으로 체험관을 접하기(윤인숙, 2006) 때문에, 노년 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노년 여성들이 체험관처럼 일상에서 다른 노년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의 특징에 주목한다.

노년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노인들이 퇴직, 배우자 및 지인 상실, 건강상태의 저하, 노년기 자녀에 의존이 불가피해지는 상황

14) 한 여성은 “[딸이] 여기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녀는 프리랜서(own boss)지만 여기로 오면 일이 힘들어진다. 바로 이 마을에 아들이 있지만 그는 일을 하고 아내와 세 아이가 있다.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처럼 엄마를 돌보지 않는다(Freeman, 2002: 78).”고 말한다. 이 연구참여자는 아들과 같은 마을에 사는데도 딸이 자신을 돌보러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경향인데, 평소 연구참여자들의 딸들이 아들보다 참여자들의 건강을 더 살뜰히 챙기고 돌봄을 제공하는데 이는 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진다. 자녀들의 성별에 따른 다른 기대의 양상에 대한 분석은 4장에서 후술한다.

등으로 기존의 역할을 상실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임여진, 2018) 하고,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적 수준이 급격히 약화된다(강은나 외, 2015)고 분석한다. 또 노년의 사회적 관계를 참여하는 단체나 조직의 수, 가족이나 친척 및 이웃과의 접촉 빈도 등 주로 정량적으로 살핀다.

과거 수동적인 가족 위주의 관계로서 노년의 사회적 관계가 논의된 것과 달리 최근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폭넓게 접근해 노년의 삶에 적극적이고 생산적(문정란, 2011)인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본다. 특히 노년의 삶에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호·문재우, 2013; 김형민 외, 2013 등)는 연구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 연구들은 노년의 사회적 관계가 성공적 노화를 보장하며 자살 생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다만 ‘사회적 관계’라는 범주가 모호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나아가 ‘노인’이라는 큰 범위 안에 묶이지 않는 많은 특성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박영란과 박경순(2013)은 9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관계망과 노인의 심리, 신체적 건강의 관계 연구가 활성화되어 노인의 건강과 심리적 복지 향상에 기여하지만, 연구대상을 성별, 연령대별, 소득계층, 거주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형성, 축소, 확대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노년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노년 여성’이 단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기에 노년 여성의 사회적 관계 역시 연령,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윤정원·엄기욱(2015)은 여성 노인이 가족, 이웃 등과의 사회적 접촉이 많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성별 차이를 두지 않고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보는 연구와 큰 차별점을 볼 수 없으며, 남성과 달리 노년 여성에게 가족과 이웃은 어떤 존재인지 규명해야 할 필요를 남긴다. 다수의 연구에서 노년기의 삶은 학교나 직장 등 사회, 제도에 의해 구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 매일의 일상생활을 구성해야 한다(강유진·한경혜, 2002)는 주장을 펼치지만, 애초에 노년 여성의 삶은 고등교육기관

진학-취직-은퇴라는 시간으로 제도적으로 조직되어있는 경우가 드물다. 가족 부양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도 진학과 노동의 시간을 거친 발전 이후 쇠퇴의 시간으로서 여성들의 노년을 분절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노년이라고 해서 분절된 새로운 시장 결혼을 하고 가족 내 여성의 시간으로 멈춰 조직된 경우가 많고 이는 은퇴 없는 시간이다.

노년 여성은 가족 내 자녀 양육 및 가사 역할 수행으로 인해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적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유지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송영신, 2015)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일터에서 쌓는 남성 중심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으로 한정 지은 결과일 수 있다. 정순돌 외(2012)는 중산층 남녀 노인 사회적 관계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남성 노인은 은퇴 후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다고 생각하며 직장 다닐 때 맺은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도움받은 친구와 가족관계를 꾸준히 유지한다. 참여자들은 모두 새롭게 만난 모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남성 노인은 경제적 부담과 갈등이 적어서 좋은 반면, 여성 노인은 오래전부터 쌓은 관계에 비해 신뢰하거나 크게 기대할 일이 없어서 편하다는 이유의 차이가 있다. 노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 특성의 차이를 통해 노년기에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다는 기존 가설이 기각됨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소개하며 관계를 더 넓혀가는 경향을 보인다. 또 주위 친구들을 자신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경향은 노년 여성의 활발한 의료기 체험관 유입과 관련 있어 보인다.

Boneham&Sixsmith(2006)는 사회적 약자 집단의 노인 여성들이 가족과 지역사회 건강에 활발히 기여하는 주체가 되었다고 생각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이 생기고 지역사회 내 변화를 촉진하며 임파워먼트되는 과정을 연구했다. 연구참여자 여성들은 지역사회 사회적 관계를 활용해 어머니노릇(mothering)의 일환인 가족 내의 일반 건강 전문가(lay healthy expert)로서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사회 내 이웃 및 친구들과 서로를 돌보고 임파워링했다. 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서로를 잘 알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노년 여성들이 그 관계에서 돌봄을 주고받으며 고립과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가족의 건강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

노년 여성이 미용실, 목욕탕, 복지관, 계모임 등 일상적으로 다니는 공간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에 관한 연구(김정영, 2010; 이성희, 2011; 고유정, 2015; 신민주·주용국, 2015; 김정수, 2017 등)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노년 여성들이 가까운 동네에서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일상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의 대화에서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먼저, 주부, 어머니,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찾는다. 고유정(2015)은 “아줌마 미용실”에 다니는 중노년 여성 단골들이 서로 여성이자 주부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힘 돋우기를 실천하고 이 단골고객망은 공감과 지지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성희(2011)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의 32년 차 친목계에서 타지에서 온 여성들이 친목계를 통해 시집살이를 함께 이겨내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머무는 일상을 벗어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일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김정영(2010)은 목욕탕에 다니는 중년 여성들이 공통의 화제와 동일한 경험이라는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중년’과 ‘주부’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정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주부로서의 삶의 가치를 인정함을 발견한다.

이 연구들에서 중노년 여성들은 일상을 함께 하고 또래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의미를 찾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형성한다. 또 가정에 머물러 있던 이들에게 해방의 여지를 주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김정영(2010)의 연구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주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만 나누기도 하고, 공통적으로 모두 좁은 동네 안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뒀야 한다. 신민주·주용국(2015)은 노래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여성 노인들의 참여 경험에 대해 분석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수업 후에도 친교 활동을 이어나갈 때 돈, 집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길 바라기도 했다. 노년 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파악해 어떤 관계에서 어

면 이야기를 나누고 나눌 수 없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이성희(2011)의 연구참여자들이 계모임을 일탈할 수 있는 창구로 생각한 것처럼, 노년 여성들에게 사회적 관계가 가정에 매여있는 똑같은 일상에서 해방의 기회가 될 수 있다.¹⁵⁾ 노래교실에 참가하는 여성 노인들은 나이가 들며 초라하기만 했는데 노래교실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소통(신민주·주용국, 2015)한다고 경험하며, 경로당에 다니는 고령 여성 노인들은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바빴고, 지금은 아파서 여행을 갈 수가 없는 답답함을 경로당의 노년 여성들과 공유(김정수, 2017)한다. 노년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유를 느끼거나 답답함을 털어놓는다. 체험관에 다니는 노년 여성들도 체험관을 사회적 관계를 해방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제3절 이론적 배경

의료기 체험관에 다니는 노년 여성들은 쉽게 사기당하는 무지한 할머니들로 표상된다. “무지한 할머니”라는 표현에는 나이 많은 노년은 쇠락해 상식적 판단이 어려운 시기라는 편견이 들어있다. ‘여성’의 정상성과 나이의 정상성은 구분될 수 없도록 얽혀 있으며, 지배적 나이 각본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의 경험을 퇴행, 담보, 주책, 늦음, 낙오, 예외 등 ‘나이 문제’로 변화시켜 왔다(전희경, 2012: 91). 체험관을 다니는 노년 여성은 그들의 경험이 설명되지 않은 채 “노인”이

15)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집 밖에서 하는 계모임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긍정적인 시선을 얻기 어려웠다. 장위동 친목계원들은 집안일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맡겨 놓고 이 박 삼일, 삼박 사일 동안 여행을 떠났다. 이 여성들에게는 “가족들 밥도 안 해주고 놀러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여행 다니는 것을 반대했던 시숙의 눈을 피해서, 몰래 동네에서 나갈 정도로 여행가는 일에 적극적이었다(이성희, 2011: 281). 여성으로서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해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주변인이 있음에도, 장위동 친목계에 가입된 여성들은 계원들과의 여행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챙겨야 하는 여성의 힘든 일상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데 적극적이었다.

라는 나이로 묶여 피상적으로 퇴행, 주책, 낙오 등의 특성으로 설명된다. 여성과 나이의 정상성으로 인해 우리는 여기서 실제 노년 여성들이 체험관에서 나이 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이로 인해 보지 못하는 이들의 경험을 나이 들음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1. 노년 여성의 나이 들음과 젠더

노년 여성의 나이 들음에 대해 논하기 위해 우선 노년, 노인¹⁶⁾이라는 범주에 대한 논의들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노인은 나이로 엮인 단일한 성질의 집단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노인이라는 범주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했다. 노년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근대에 발명된 사회문화적 구성물(김경연, 2018)이라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 생애가 되었고 ‘불확실한 생애 시기에서 확실한 생애 시기로’, ‘우연한 것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안병직, 2012).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 후기 근대문명의 도입과 함께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과 단절의 필요성이 역설되며, 문명의 주체로 소년, 청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와 대립하는 낡은 과거로서 단절해야 할 존재로 노인이 놓였다. 조선을 문명개화로 이끌기 위해 새로움과 낡음, 문명과 미개의 이분법을 내세운 것이다(장석만, 2019). 근대화가 추진된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근대적 모성이 작용하는 대상인 ‘아동’, 유교 질서에 기반한 ‘(웃)어른 공경’,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이(‘산업역군’)' 등의 연령범주들이 호명되고, 젊음/늙음, 성숙/미성숙의 위계가 생겼다(전희경, 2013).

각각 성장과 쇠퇴로 수사된 젊음과 늙음은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16) 노년 여성, 여성 노인 등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럿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년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여성 노인’이 노인 범주에서 함축되어 노인의 일부이자 예외로 취급되어온 경향에서 문제의식을 느껴 ‘노년 여성’이라는 표현을 채택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범주도 대체로 젊은 여성을 표상하기 때문에 ‘노년 여성’이라는 표현 역시 여성 중의 예외를 나타낸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노년 여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 자체가 두 범주의 얽힘을 통한 현재 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며,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상존하지만 노년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통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의 예견으로 변화를 맞이한다. 쓸모없는, 잉여의 존재 등 가치가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던 노인(유범상·이현숙, 2021)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로 바라보며 쇠퇴와 의존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켜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긍정하는 신노년 담론¹⁷⁾이 등장했다. 신노년 담론은 노인의 욕구와 이해를 반영하지 않고 경제적 생산성의 의미에 집중하고 다양한 노인을 배제하는 편협성을 가진다고(최희경, 2010) 지적된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2000년대 후반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정년 연장 시도,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의 법제도적 변화를 통해 노년층을 새롭게 ‘인력’으로 동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전희경, 2012). 나이 들은 자율성이 탈각된 의존의 상태거나, 꾸준한 자기계발 등 “노력”하면 능력 있고 건강하게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나이 들지 못하는 노인은 생기기 마련이고 실패한 노인이 생기는 모순의 순환에 있다. 건강한 노화를 강조하면서 노화를 질병으로 접근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비정상적이고 부적응적인 몸으로 정의함으로써 늙고, 병들고, 죽어 가는 과정은 단절된다.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지속하는 노년을 강조하면서, 생산성과 기능의 기준으로 노년의 수행을 평가하는 언어의 확장은 노년의 사회적 배제를 촉발할 수

17) 신노년 담론은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 등을 포괄한다. 여기서 생산적 노화란 서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하나의 경제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과 연관된다. 신자유주의가 대두됨과 함께 경제적 생산이 어렵고 복지 수혜자로 상상되는 노인인구의 급증에 대한 공포와 고령화위기가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생산적 노화는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노년 개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나,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김정석, 조현연, 2017). 성공적 노화는 1986년 미국 노년사회학에서 소개되어 한국 학계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그 관심이 높아졌다(이신영, 2006). 1980년대 이후 의료기술과 의료접근권이 발전하며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탄생했다. 노화를 극복, 정복하는데 초점을 둔다. 활동적 노화는 노인들이 중장년 시절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잃어버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며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 등 광범위한 사회적 의미를 강조한다. 생산적 노화는 노년기를 경제적 효용성으로 바라보며 노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생산활동에 참여해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최희경, 2010).

있다(박경숙·안경진, 2022).

나이 늙을 쇠락으로 보는 것은 특정한 시각에 한정되어 나이 늙을 상상하게 만든다. 나이 늙에 대한 특정한 사회적 요구는 실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이 자신의 나이 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볼 수 없게 만든다. 노년을 연령이라는 요소로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하는 것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며, 노년기가 노인들의 자기 인식과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박경숙, 2004; 김은정, 2008)이 있다. 또한 김주현 외(2013)는 나이 늙을 신체적, 심리적 노화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나이 늙을 노화로 부르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고, 당사자들의 행위 구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년 여성의 나이 늙에 대한 연구 역시 몸의 문제(송유진, 2012; 이동옥, 2014 등)에 주목한 경우가 다수다. Cruikshank(2016[2013]:43)는 ‘늙음’은 우리 몸 안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에 부여하는 의미에 의해 정의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노화가 신체적 쇠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신체적 힘의 상실이 곧 노화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이 늙은 ‘나이 들어버린’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여성들의 삶의 과정(천명자, 2006: 130)이다. 나이 늙은 ‘노년기’에만 해당하지 않으며 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년 연구에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김은정, 2008; 천명자, 2009; Cruikshank, 2016[2013]) 역시 고려해야 한다. 여성들은 다양한 층위(성, 계급, 지역, 연령 등)의 ‘삶의 조건’에서 나이 늙을 경험하고 있으며 단일하게 범주화하여 설명될 수 없기(천명자, 2009: 121) 때문이다.

본 연구가 노년 여성의 경험을 탐구하는 만큼 젠더 경험의 차이에 몰두해야 한다. 노인 연구의 물성적 경향성과 젠더 차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많은 연구(김지아, 2004; 안진, 2006; 이동옥, 2023 등)에서 전개된 바 있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여성의 나이 늙과 젠더의 관계에 주목했다. 정희진(2003)은 한국 사회에서 나이 늙을 생물학적 문제라는 전제로 두지만, 나이가 인간의 임의적 산물인 만큼 연령주의는 역사적, 정치적 문제이며 나이 늙이 적용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르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연령주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생애주기’식 연령주의와 나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는 연소자/연장자 우선주의다. 그래서 여성의 나이 들은 연령주의와 성차별의 결합이라기보다, 여성에게 연령주의는 성별주의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억압이라고 본다.

전희경(2012)은 젠더는 시간적 범주이며 나이 역시 젠더화된 방식으로 배열되어왔음을 드러내는 젠더-나이체제의 분석틀을 구성했다. 젠더-나이체제는 성장-성취-쇠퇴로 인간의 생애를 직조하는 근대적 시간틀을 통해 인간의 시간적 경험이 젊은/늙음, 성숙/미성숙의 위계에 따라 성별적으로 배열되었고, 여성과 남성은 다른 나이 각본에 따라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됨을 보여준다. 특정한 삶만이 여성의 ‘정상적인’ 여성의 삶으로 규범화되며 나이 각본에서 벗어난 삶들은 낙오, 퇴행, 예외 등으로 비가시화되었다. 젠더-나이체제는 획일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관철되지 않으며, 여성들의 나이 경험은 각자 구체적 조건에서 지배적 나이 각본과 경합한다. 그러나 나이의 지배 서사 속에서도 여성들은 나름의 다른 시간을 새롭게 구축한다. 지배 서사와 다른 시간의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독립과 의존, 삶과 죽음, ‘정상적인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가능성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 각본에서 벗어난 다른 나이 경험들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여러 나이 경험들이 발견되는 모습에 주목한다. 더불어 기존의 나이 들 연구에서 지적되는 몸과의 연관에 치중되는 점, 계층 및 여러 삶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상기하며 여성으로서 나이 드는 다양한 과정과 조건을 포괄해 볼 예정이다.

2. 연구질문의 구체화

첫째, 의료기 체험관은 어떻게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되었나? [2장]

- 의료기 체험관은 한국 사회의 노년 담론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등장했나?

- 의료기 체험관은 노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간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둘째, 노년 여성들은 의료기 체험관 이용을 통해 어떻게 나이 듦을 이해하고 대응하는가? [3장]

-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과 동인은 이들의 나이 듦의 이해 및 대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 가족 내 여성으로서 살아온 시간은 체험관에서 나이 듦의 이해와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의료기 체험관 이용 경험에서 다양한 나이 듦의 경험을 발견할 여지가 있는가? [4장]

- 다양한 나이 듦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가?
- 그럼에도 지배적 나이 각본과 다른 나이 듦 구축의 가능성은 어떻게 발견되는가?

제4절 연구 자료 및 방법

1. 자료수집

1) 심층면접

연구참여자들의 체험관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먼저 이들의 생애 이야기를 들은 뒤 추가 면접으로 체험관 관련 질문을 던지는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다만 연구자가 2021년 2학기에 수강한 ‘페미니스트 범죄학’ 수업에서 최초로 이 주제에 관심 가져 수업 기말과제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영옥과 두심을 만나 진행한 첫 인터뷰 시에는 생애 경험을 듣기 전에 체험관 경험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논문 주제로 선정한 뒤 영옥과 두심과 다시 만나 생애 이야기 청취를 비롯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정과 문희의 경우 1차 면접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열린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헤자는 체험관 경험 위주의 인터뷰를 진행해 다른 참여자들과 비슷하고 다른 체험관 경험의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 과정은 생애사에 대한 자유로운 구술을 기본으로 인터뷰 방식은 이희영(2005)의 서사적 인터뷰를 참고했다. 구술자의 생애사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술자가 주저 없이 자신의 생애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리 작성된 질문들이 아닌 전체 생애에 열린 질문으로 자유로운 생애 서술을 보장하는 서사적 인터뷰(narratives Interview) 또는 개방형 인터뷰를 진행하면, 개인의 체험이 서사적 묘사방식을 통해 다르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서술해도 개인의 생애 인식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 이야기는 구술자가 살았던 실재를 구성하며 과거 사실과 체험에 대한 사실성을 재구성한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처음 청할 때 자신의 인생을 풀어내는 데 주저하는 참여자가 있어 “체험관 다니는 얘기를 듣다 보면 아팠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다 듣게 되어서 먼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뷰 중간에 “이런 계획(논문)이 되나”, “내가/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살아온 길고 순탄치 않은 인생 이야기들을 열정적으로 나눠 주었다.

본 인터뷰는 윤택림(2008)이 강조한 구술사의 특성들 세 가지인 구술성, 주관성과 개인성, 공동작업을 따라 이 특징을 살리고자 했다. 첫째로 구술성이란 구술되는 상황에 크게 영향받음을 받는다. 구술자 개인의 언어 행위, 제스처, 표정, 음성의 고저, 떨림 등 특성을 반영하고, 구술 자체가 참여자의 계층, 성별, 직업, 세대 등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인터뷰 후 전사 작업 시 참여자가 강조한 단어의 악센트, 어투, 사투리 등을 최대한 살려 기술했다.¹⁸⁾ 둘째로 주관성과 개인성이란 개인을 통해 사회와 구조를 보는 연구방식에서 구술자료의

18) 본문의 인용문단에도 이 특징들을 살려 기술했다. 인용문단의 괄호 친 바탕체 글꼴 부분은 연구자의 말, 이외의 말은 모두 참여자의 말이다.

가치를 뜻한다. 개인 삶의 경험은 오로지 개인적이지 않으며 정치적이고 역사적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작업이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을 뜻한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둘 사이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작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참여자뿐만 아니라 연구자 역시 이 연구에 상당히 개입해있으며, 연구자 또한 연구의 구성물 중 하나임을 인식해야 함을 뜻한다. 해서 인터뷰 당시의 상황과 관계 등에 따라 작업물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특성을 살리며 구술 작업을 할 시에 라포(rapport) 형성에 시간이 소요되고, 사전 학습이 필수적이다. 특히 참여자가 생애 이야기를 꺼낼 때는 연구자와의 관계와 신뢰, 그리고 참여자를 소개해준 게이트키퍼(gatekeeper)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므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이 연구에 대한 신뢰를 주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로 자료수집에 임해야 한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수적이기에 인터뷰 전에 참여자에 관한 기본 정보를 받아서 인터뷰 시 그의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살아온 생애와 거주지역 등에 관해 학습하고 정보를 미리 수집했다. 예컨대 연구자는 1차 인터뷰 후 여정이 30년 동안 거주하고 일했던 동네와 도시에 대해 무지했다고 생각하여 여정이 그동안 이주하고 거주한 지역의 기본 정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2차 인터뷰 시작 전에 도착해 여정이 일한 부근 지역, 체험관이 위치한 구시가지 등을 걸으며 어떤 지역적 특징이 있고, 근처의 다른 체험관 위치를 살펴보기도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섭외 과정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가족과 지인을 통해 모집했다. 앞서 이 주제는 수업의 기말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본인의 할머니를 통해 두 분의 참여자를 구했다. 한 분은 연구자의 할머니도 노인요가반 동료의 추천으로 일주일 다닌 H 의료를 2년 동안 다닌 영옥이었고, 다른 한 분은 영옥과 같은 동네에서 N 의료를 다닌 두심이었다. 이들은 모두 할머니와 동네 사회복지시설의 노인요가반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이후 논문으로 발전시키고자 연구참여자 모집을 더 진행했는데, 추가

모집 전에는 연구참여자의 조건을 더 고려했다. 예컨대 최근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안마의자 브랜드들이 유행인데, 이런 공간은 체험에 목적이 있기보다 모델하우스 같은 ‘전시’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방문객도, 해당 매장의 직원들도 고객 방문의 지속을 유도하지 않는다. 물론 체험관이라고 명명될 수는 있지만 ‘일회성 체험 전시장’과 같은 공간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체험관과 성격이 달라 이와 같은 전시장을 방문객은 연구참여자에게서 제외했다. 코로나 이후로 의료기 체험관 방문이 중단된 경우가 많아 인터뷰 당시 방문 지속 여부는 무관하게 두었고, 체험관을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다닌 분들을 모집했다. 대부분 의료기 체험관이 문을 닫거나 코로나19 유행 등의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 몇 년 단위로 오래 체험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는 20대인 관계로 평소 본인의 할머니 외에 알고 지내던 노년 여성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모집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연구자 또래의 주변 사람들에게 연구참여자 모집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지인들의 나이대가 대체로 연구자 또래인 20대, 30대가 많아 할머니와 친하지 않거나, 체험관 방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았다. 또 연구자가 지인들에게 할머니들의 체험관 방문 경험 여부를 물을 때도 일단 본인의 할머니에게 여쭙어보기도 전에 “우리 할머니는 그런 데 안 간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참여자 모집 중 한 지인의 할머니가 의료기 체험관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 인터뷰 요청을 드렸으나, 할머니와 연락드리는 중간에 아버지에게 인터뷰 요청 소식을 전했을 때 “쓸데없이 왜 그런 인터뷰를 하나”는 식의 부정적인 말이 돌아와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다. 앞서 본 선행연구나 언론의 보도처럼 의료기 체험관은 사기성이 짙은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인터뷰 섭외도 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물어봐도 참여자가 구해지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SNS에 체험관 다닌 경험이 있는 노년 여성 모집 글을 업로드했으나, SNS의 주 이용자가 노년 여성은 아니다 보니 SNS 이용자들도 연구자를 믿고 소개해주는 것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노년 여성과 바로 관계를 맺고 있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지

인에게 도움을 받아 세 명의 참여자를 더 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여정, 문희, 혜자를 만났다.

아래의 연구참여자 특성 및 정보에 관한 표는 나이순에 따라 정렬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70대 여성으로 섭외했다. 이들이 한창 아이를 모두 키우고 소득노동의 은퇴기에 접어들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인 90년대 후반부터 체험관의 효시로 보이는 무료홍보관이 성행하기 시작해 체험관의 첫 출발을 함께 했거나, 당시를 기억해 자신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간의 형성과정과 주변 여성들이 방문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리라 판단했다. 또 현재 체험관이 주 이용자가 70대 여성이라는 연구 결과를 참고했고, 노년 여성으로서 체험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해 인터뷰가 수월한 나이대라 생각했다. 참여자 모집 중 현재 60대인데 50대쯤 일찍이 체험관을 다니다가 다니지 않게 된 분과 70대이지만 체험관을 20년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분도 계셨는데, 20년의 시차와 의료기 체험관 방문 당시 노년 여성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이름 (가명)	출생연도 (인터뷰 시점 나이)	섭외 경로	의료기 체험관 이력	거주 지역	면접 일자
여정	1950년 (73세)	지인	J 족욕기(1.5년)	경기 중소도시	2022.04.29., 2022.09.13.
문희	1947년 (76세)	지인	B 의료기(1년), V 의료기(2년)	경기 중소도시	2022.04.08., 2022.09.15.
영옥	1947년 (76세)	가족	N 의료기(1달), H 의료기(2년)	부산	2021.11.19., 2021.12.09., 2022.09.19.
두심	1944년 (79세)	가족	C 의료기(3년), 숫짚질(4~5년), N 의료기(2.5년)	부산	2021.11.22., 2022.09.20., 2022.12.20.
혜자	1948년 (75세)	지인	M 의료기(2년), HM 의료기(2년)	부산	2022.12.20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및 정보

인터뷰는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지인을 통해 섭외가 완료되면 먼저 전화로 안부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만남 일시와 장소를 정했고, 인터뷰는 짧으면 1시간 20분부터 최장 3시간 40분까지 진행했다.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들이 편한 장소를 묻고 거주지역 인근의 카페 미팅룸이나 자택에서 진행했다. 면담 전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얻고,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되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렸다.

초보 연구자로서 인터뷰할 때의 난점도 여럿 있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적당히 맺고 끊기가 힘들어 인터뷰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도 했다. 참여자들이 한 주제를 길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중요한 지점들이지만 당장 물어볼 질문은 남아있고, 시간은 촉박해 참여자들을 오래 붙잡아두며 괴롭히기도 했다. 게다가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평소 허리, 무릎 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면 앉아있기 힘들어하며 아픈 부위를 주무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평소에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규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섭외한 후 인터뷰 일정 조율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인터뷰 일정 조사에 흔쾌히 응해주신 만큼, 인터뷰 시간도 유동적으로 생각해서서 인터뷰 도중에 여러 번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확인하면서 인터뷰 마무리를 원하는 등의 의사를 비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인터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진땀을 뺀 경험이 있다.

참여자들의 나이대는 실제 연구자 할머니의 나이대와 비슷하다. 참여자 중 두 분은 연구자의 할머니가 소개해줬고, 나머지 세 분은 지인과 가까운 관계였다. 그래서인지 참여자들은 인터뷰 과정 중 연구자를 인터뷰하러 온 연구자라기보다는 딸이나 손녀처럼 느꼈고, 실제로도 “손녀 삼아야겠다”, “우리 딸 같다”, “며느리 같다”고 말했다. 연구자 역시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했으나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이에 무턱대고 “인생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하기가 주저되기도 하고, 풍부한 생애 이야기를 듣기 위한 라포 형성의 일환으로 손녀이자 딸의 역할을 자처했다. 그래서 연구자는 인터뷰 중 참여자를 어머니나 할머니라고 불렀다. 인터뷰가 끝난 뒤 참여자들의 다음 일정이 있는 장소로 모셔 드리기도 했는데 이때 손을 잡거나 팔짱 끼는 등의 친밀한 행위가 있거나, 식사 제안 등의 요청을 받기도 했다. 연구참여자와 친밀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후 추가 인터뷰 일정이 남았을 때는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 적정수준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도 했다.

연구자와 가까운 사이로 생각했다가 5개월 정도 뒤 연구자의 추가 인터뷰 요청을 듣고 자신을 인터뷰이로만 찾는다고 여겨 인터뷰를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참여자는 연구자의 할머니의 지인이기 때문에 할머니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까 염려되어 인터뷰를 한 번 더 제안하기 망설여졌지만, 여러 번의 안부 전화와 명절 인사 문자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추가 인터뷰를 허락받았다. 그 뒤에는 연구를 함께 해준 참여자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일회성 ‘연구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계절이 바

필 때 종종 안부 문자를 드리는 등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 참여관찰

실제 체험관의 공간 구성을 더 관찰하고자 자료수집 방법으로 참여관찰을 선택했다. 연구자가 접할 수 있는 체험관에 대한 자료는 앞서 언급한 뉴스 기사들, 혹은 의료기 체험관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올린 인터넷상의 자료들이었다. 물론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체험관에 대해 묘사를 해주었기에 원활한 자료수집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로 체험관을 방문하면 체험관의 공간 구성, 체험관 이용자들의 관계, 직원과 이용자들의 관계, 그리고 체험관이 노년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체험관명	지역 및 위치	방문 일시	함께 방문한 사람
J 족욕기	경기 중소도시 구시가지	2022.04.29. 17:00-18:30, 2022.09.13. 19:50-20:50.	여정
지압침대 체험관	부산 주택가 근처 동네	2022.09.20. 10:00-11:20	연구자의 할머니
S 의료기 카페	서울 번화가	2022.07.03 14:30-15:45	대학원 동료 3인

[표 2] 참여관찰 장소와 일시 및 동반인 정보

위의 표와 같이 각기 다른 형태의 세 체험관을 방문해 총 4회의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4회 중 2회는 여정의 동네에서 인터뷰가 끝난 후 여정의 체험관을, 1회는 연구자의 할머니와 함께 영옥과 두심이 다닌 체험관이 있었던 동네의 프랜차이즈 형태 의료기 체험관을, 마지막 1회는 연구

자가 속한 ‘책간소음’ 세미나 팀의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대학원 동료 세 명과 함께 최근 등장하는 카페형 의료기 체험관에 방문했다. 각 장소를 방문한 뒤에는 체험관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느낀 바나 관찰한 점을 휴대용 전자기기에 기록하거나 체험관을 벗어난 뒤 최대한 빨리 기록을 진행했다.

Flick(2009[2002])에 따르면 참여관찰은 두 가지 과정으로 파악되는데, 첫째로 조사자는 단계에 따라서 참여자가 되어 현장과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다. 둘째로 관찰이 점차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연구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초점이 좁혀진다. 연구자는 의료기 체험관 내 이용자로써 의료기를 이용하면서 현장에 있는 직원, 이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직접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주제들을 탐색할 수 있었다. 예컨대 연구자는 여정의 제안을 받아 그와 함께 체험관에 방문했다. 연구자는 의료기 체험관에 가기 전에는 방문하는 노년 여성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성토했고 나누는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정과 함께 첫 번째로 체험관에 방문했을 때 친밀한 관계의 이용자와 함께 있을 때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두 번째로 체험관에 방문했을 때, 다른 손님들 없이 30년 지기 친구인 체험관 사장만 있었는데 첫 번째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와 확연히 대비되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노년 여성 커뮤니티는 서로 간의 끈끈한 정이 있고 활발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편견을 깨고 무엇이 노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제약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다.

현재까지는 의료기 체험관 홍보를 할 시 동네에서 실물 전단지를 나누는 등 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는 노년층에서도 유튜브 등의 SN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기 회사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의료기 회사에서 올리는 온라인 자료들 덕분에 체험관에서 의료기를 체험하고 건강이 좋아진 고객들의 증언이라든지, 의료기 체험관이 어떻게 세팅되어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노년 여성들이 모이는 공간에 직접 가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참여관찰 시 직접 현장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에 유용하고, 제도나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정의 체험관 외에도 연구자의 할머니와 함께 유명 브랜드 의료기 체험관에 방문했다. 20대 여성이 혼자 체험관에 가면 방문의 이유를 의심받을 가능성을 예상해 할머니께 동행을 요청했다. 동네 사거리에서 체험관의 전단물을 나눠주는 분의 인도를 받아 체험관을 방문했다. 할머니와 함께 방문하니 20대인 연구자도 체험관 직원의 큰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체험관 직원에게 짧은 상담을 받고 바로 체험관 중앙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건강에 관한 좋은 이야기와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 강연을 들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의료기를 체험했는데, 의료기를 이용하는 동안 직원이 연구자 옆에 와 의료기의 효능을 설명해주고 할머니를 꾸준히 데려와야 한다고 설득했다. 직원이 다른 고객에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구자는 옆에 누운 고객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연구자 역시 체험관의 이용자 중 하나가 되어 직원의 서비스를 받고, 체험관 이용자에게 말을 걸며 체험관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다.

마지막 참여관찰 1회는 최근 TV 광고와 연예인 모델을 세운 브랜드로 유명한 S 의료기의 카페형 체험관에서 진행했다. “건강한 우리 차”를 표방하는 카페 브랜드와 협업해 절반은 카페, 절반은 의료기 체험관으로 꾸려둔 곳이었다. 연구자 또래의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대학원 동료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해당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에서 40대 사이의 고객들이 많아 아무도 연구자와 동료들을 두고 “젊은 사람들이 왔다”고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의료기 체험으로 구매를 유도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지만 모두 다른 세 공간을 참여관찰해 각각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 구성은 어떤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 내용분석과 참여자들의 연령 특성상 이들이 살아온 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자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2장에서는 70년대에서 90년대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참조해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과 홍보 전략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정리했다. 이어 공간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앞선 참여 관찰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업로드된 의료기 체험관 홍보 자료들도 검토했다. 더불어 체험관의 홍보 및 설득전략을 알고자 체험관 유튜브 및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했다.

1) 심층면접 내용분석

체험관을 다녔거나 다니는 70대 여성을 만나 생애 이야기와 체험관 경험을 듣는 심층면접을 실시했고, 연구 자료의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인터뷰를 전사한 뒤 인터뷰 자료를 검토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의료기 체험관 경험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2) 문헌연구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 배경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문헌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노년 여성들의 구술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서 의료기 산업의 변화 과정과 관련 담론을 파악하고자 의료기기법, 의료기 산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연도별 의료기 판매와 홍보의 등장고 변화를 파악하고자 법령과 관련 내용이 보도, 정리된 신문 기사와 단행본을 검토했다. 신문 기사의 경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와 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를 사용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는 1920년부터 1999년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의 신문 기사들을 제공하고, 빅카인즈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54개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한다. 고로 1990년까지의 신문은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총 5개

신문사의 기사를 참고했고, 이후 1991년부터는 빅카인즈에 올라온 기사를 참고했는데, 빅카인즈 기사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와 같은 기준을 두기 위해서 5개 신문사의 기사를 먼저 찾았다. 다만 지면광고 등이 풍부하게 검색된 뉴스라이브러리와 달리, 빅카인즈의 기사들은 글로 작성된 인터넷 기사 위주로 검색이 되어 1990년 이후의 체험관에 대한 기사 수집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한계다. 2000년대 이후의 의료기 체험관 관련 기사 역시 신문에 실렸을 것으로 예상되나, 광고면에 이미지로 있거나 전국 단위의 신문사 기사가 아닌 지역 일간지 등의 지면에 실려 인터넷 검색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와 동일하게 5개 신문사로 좁혀 검색할 때는 풍부한 자료 수집이 어려워 1990년부터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전체 54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사들을 참고했다.

의료기 체험관에 관한 자료는 단순히 “의료기 판매”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의료기 판매 혹은 체험관, 홍보관 등의 키워드 외에도 대리점, 치료방, 체험방 혹은 건강기기, 온열치료기, 자석용, 가정용 치료기 등에 “무료”를 붙이는 등 키워드의 범위를 넓혀 홍보관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했고 몇 가지 관련 기사 및 광고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의료기 산업의 등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체험관의 공간 구성과 홍보 전략을 알기 위해 의료기 체험관을 운영하는 회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업로드된 홍보영상 등을 참고했다. 특히 SNS 및 온라인 자료들을 통해 의료기 체험관 공간의 보편적 구성을 알 수 있었고, 체험관의 지점장과 이용자들의 인터뷰 영상 등을 참고해 체험관의 홍보 전략을 분석했다.

제2장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과 서비스 전략

의료기 체험관은 이용자들이 하루 2시간 이상, 몇 달에서 몇 년간 가정용 의료기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1, 2회 정도 방문해 기기를 이용하도록 전시해둔 판매점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다. 체험관에서는 꾸준한 방문을 통한 의료기 사용을 권하고, 건강강연 개최 및 식사 무료 제공 등으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한다. 이 장에서는 현재 노년 여성들이 주 이용자인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 과정과 실제 노년 여성들이 이용하는 의료기 체험관의 공간 설정과 서비스 전략을 분석한다.

제1절 한국 사회 노년의 변화와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

체험관이 어떤 공간인지 파악하고자 한국 사회에서 체험관의 등장 과정을 살폈다. 특히 노년의 나이 각본의 형성이 의료기 체험관 등장과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의료기 산업과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 및 발전 과정을 보도한 기사들을 찾아 분석했다. 더불어 의료기와 의료기 체험관을 규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의료기기법의 변화 과정도 함께 살폈다.¹⁹⁾

1. 의료기 시장의 확장과 가정용 의료기 개발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현대식 의료기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05)했다. 당시 의료기 수요는 국내 생산보다 주로 수입에 의존해 충족했다. 한국전쟁 이후 50년대 중반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1954년 4개에서 56년 20개 이상, 66년 63개, 68

19) 통상적으로 의료기라 불리는 기기의 공식 명칭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불린다. 의료기기란 '질병,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로 정의된다.

년에는 140개, 70년에는 384개 업소를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한다. 1963년 말 약사법이 개정되며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을 법제화해 등록된 판매업소들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50년대 말 서울 종로 일대에 남북의료기와 동양의료기 등 대형 의료기 판매상이 터를 잡은 후 여기서 일하며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독립해 소규모 판매상들이 늘어나기도 했다(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05: 58). 지금도 서울 종로 일대에 가면 즐비한 의료기 소매상들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한국의 의료환경이 개선되며 의료기기 및 의료 산업이 각광받은 영향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신문기사들을 보면 1960~70년대에 판매된 의료기기는 모두 현재의 대중화된 자가용 의료기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처치에 사용하는 자재 등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이었다. 의료기 회사들 역시 판매점을 운영했지만 대부분 병원에 의료기를 납품했기 때문에 주로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기보다는 방문판매를 겸하고 있었다. 1970년 9월 12일, 매일경제는 남북의료기상사 대표 이성오 씨를 인터뷰했는데, 이 씨는 “주로 의사들이 고객 아니겠어요?”라며 의료기기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수요자들의 필요에 맞게 상품을 확인하겠다고 말한다. 1977년 4월 29일 경향신문은 한 의료기기 회사 판매원인 문학가를 인터뷰했는데, 그 문학가는 “병원을 찾는 환자, 의사와의 만남이 작품의 소재”, “의료기 판매 관계로 병원엘 자주 들르죠.”라고 답변했다. 이 기사들을 통해 70년대 중후반까지도 의료기관 중심 의료기기 방문판매의 지속을 알 수 있다.

한국 의료기기 산업은 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80년대까지 가파르게 성장한다. 70년대 후반부터는 대기업들이 의료기기 생산에 관심을 가지고 생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의료기 회사가 대학 내 연구소와 협업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가정용 의료기들을 발명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긴다. 우선 대기업들의 의료기기 생산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1978년 10월 1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생산에 착수하며 당월부터 판매를 개시하고 수출까지 진행했다. 이어

1982년 4월 6일 경향신문은 삼성전자가 기존의 가전제품 중심의 현 생산체제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며 전자 의료기기 분야에 진출할 계획을 보도하고, 3년 뒤인 1985년 1월 8일 매일경제가 “재벌기업 의료기 산업 진출 러시” 기사를 보도하며, 대기업들이 첨단분야인 의료기 사업 참여를 위해 생산 전담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일본 등 의료기술 도입을 추진해 의료기 국산화에 밝은 전망을 나타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1984년 2월 4일 “의료기 국산화 뒷걸음”, 1985년 1월 24일 불법 의료기가 반입되어 의료기 국산화를 저해한다는 “의료기 변칙 수입 많다”, 1985년 7월 19일 “의료기기 판매 부진 업계 병원 외제 선호 여전 정책적 지원 절실”이라는 기사들을 보면 결코 의료기기 생산의 국산화가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 예상된다.²⁰⁾

대기업들의 의료기기 시장 참여와 더불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기 회사와 대학 연구소의 협업을 통해 현재 의료기 체험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의료기의 시초로 보이는 상품들이 등장한 것이다. 1983년 8월 9일 동아일보는 “자석 치료기 근육통에 큰 효과”라는 기사에서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연구팀이 자석 치료기(자기 목걸이, 자기 파스, 자기 담요와 베개, 자기 구두)를 개발했고 의학적 근거는 찾아야 하지만 관절 및 근육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보사부²¹⁾ 제조 허가를 받은 자석 치료기는 의료기 전문판매점이나 약국을 통해 판매된다고 덧붙인다. 이렇듯 자석을 이용한 의료기들이 등장하고 쉽게 의료기상사 및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점차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가정용 의료기’ 보급이 시작된다.

80년대 초중반부터는 의료기기 백화점과 전시회가 활성화되는데, 이미 의료기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20) 다만 매일경제가 1983년도부터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 상당히 우호적인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많이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매일경제의 보도 기조가 당시 군사 정부에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 정책과 정부에 우호적인 기업들의 의료기기 생산에 힘을 실고자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많이 작성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는 있다.

21)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설립된 보건사회부의 준말로 현재의 보건복지부 기능을 맡은 부처였다.

으로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옥인(2008)은 한국의 산업화 정책으로 70년대 중반 대량생산체제가 갖춰졌지만 일부 중상층에만 한정된 불완전한 대량소비양식이 만들어졌으며, 1980년대 후반에야 대량생산에 맞춘 대량소비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체계만 형성되었다면,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대량생산에 맞는 대량소비까지 갖춘 소비사회가 열리며 의료가 생산 국산화 및 시장 확장과 의료가 소비의 증가가 맞물려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의료가 점차 대중화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1987년 7월 14일 경향신문은 “남북의료가 일본에서 각종 의료를 수입, 판매하는데 국내 시판 가격을 엔화 가치 상승폭 만큼 올려 받을 수 없어 채산성이 나빠져 도산한다”고 보도한다. 87년 남북의료기의 도산으로 직장을 잃은 회사의 직원들이 기술을 가지고 소규모 의료가 회사를 만들며 오히려 의료가 판매가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1993년 3월 14일 한겨레신문이 종로 의료가 상가를 찾아가 그곳에 관해 쓴 르포기사가 있는데, 해당 기사는 “지금처럼 의료가 상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는 67년 동양, 86년 남북의 부도로 일하던 직원들이 독립해 소규모 도매상을 잇달아 열었기 때문”, “특히 남북이 부도가 난 80년대 중반은 의료가 상점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주요 취급 품목이 전문 의료가에서 건강용품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기”라고 분석한다. 이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80년대 중반부터 의료가가 의료가관에 보급되는 기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용품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령화위기 담론과 가정용 의료가 유행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시행과 부담이 된 불건강한 노인

1980년대 후반부터 신문기사들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가정용 의료가의 대중화가 열린다고 보도한다.²²⁾ 물론 산업화 이후

가파르게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한 한국 사회에서 평균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여력이 생겼을 수 있으나, 단지 소득수준 향상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의료기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80년대 초반부터 ‘고령화사회²³⁾ 위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²⁴⁾ 김정석(2007)은 현재 한국사회 고령화의 주요 담론은 ‘고령화위기론’이며, 노년부양비라는 인구학적 지표에 의존해 사회보장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고령화가 취급되어 위기론이 대두되었다고 진단한다.²⁵⁾ 노인은 소득노동을 할 수 없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없는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일컬어졌다. 고령화위기론에 따라 노인들은 공경의 대상보다 소득노동이 가능한 청년과 중장년 인구들이 부담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특히 1989년 건강보험제도의 전 국민 시행²⁶⁾과 함께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에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우려가

22)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손쉽게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건강 체크기가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도한 “自家(자가) 건강체크기 人氣(인기)” (1988.12.20. 경향신문), 경제 수준 향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 “혈압-혈당 自家(자가)측정기 인기” (1992.03.30. 조선일보)가 있다. 이외에도 “건강관심 심 가정醫療器(의료기) 인기” (1989.03.31. 매일경제), “가정 醫療器(의료기) 각광 업계, 공급 서둘러” (1990.03.27. 매일경제) 등이 있다. 경제 성장으로 소득의 증가와 함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기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90년대까지 이어진다.

23)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4)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고령화’ 키워드로 기사들을 검색해본 바로는, 70년대 후반 고령화사회에 대한 기사들은 주로 한국 농촌인력의 고령화나 일본의 고령화사회화 및 대책에 관한 기사들 “農村(농촌) 일손” (1979.05.09. 경향신문), “農村人口(농촌인구) 줄고 高齡化(고령화)” (1980.02.09. 동아일보), “日(일)7개년新經濟(신경제)계획발표 現行(현행) 5개년計劃(계획)대체” (1979.08.04. 매일경제) 등이 대다수였다. 1981년부터 한국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들 “샐러리맨의惡夢(악몽) 55세停年(정년) 量産(양산)되는「젊은老人(노인)」…老後(노후)가 不安(불안)하다” (1981.04.15. 경향신문), “高齡化(고령화)시대 80세이상 5年(연)새 13%늘어…55세停年制(정년제) 다시 조정해야” (1981.05.12. 동아일보), “高齡化時代(고령화시대)” (1981.06.29. 동아일보) 이 보도되었다. 고령화시대의 시작과 정년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보도들이 눈에 띈다.

25) 정순돌, 김성원(2012)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고령화를 다룬 논문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를 위기로 인식하는 논문은 99편으로 기회로 인식하는 논문이 9편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대체로 고령화 논의는 경제적 위기로 설명되어왔고 대안책도 고령자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다고 분석한다.

등장한다. 1989년 개원한 무료노인병원에 다니는 노인들에 대해 김희경(2003)은 “노인들이 무료노인병원을 다니면서도 침, 뜸과 같은 한방진료를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한 병원만 꾸준히 다니지 않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의료소비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료소비습관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의미했다.²⁷⁾

1989년 6월 15일 동아일보는 “만성 老人性(노인성)질환자 自家(자가)치료기 관심 높다”는 기사에서 당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전국민의료보험제 실시를 앞두고 병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도한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 병원 측에서 의료보험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소하고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입원환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노인성질환자, 심신장애자들의 조기퇴원을 권장하게 되어 이들의 自家(자가)치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다. 위 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반동으로 국가 재정과 병원에 노인 환자는 부담이라고 전제한다. 부담이 되는 노인 환자들은 결국 가정에서 의료기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나이 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연결해 공포를 심화시키는 독립과 자율성의 신화(이동옥, 2012)가 있다.

고령화위기론이 대두되며 노인들을 불건강한 존재로서, 사회의 짐으로 여기는 풍토가 강해졌기 때문에 당시 노인들에게 부담이 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실제 노인들에게 ‘고령화’란 상상해보지도 못한 시간이 열린 것이다. 윗세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 열리고, 노인이 부담이라는 담론이 증가하며 노인들은 그 시간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지고 불건강상태의 대비에 집중하게 된다.

2) 가족 건강관리와 외모관리 주체로 호명되는 여성

26)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1989년 7월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시행되었다.

27)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가운데 7.2%에 불과하면서도 급여지출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김희경, 2003: 2).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는 노인들을 주 소비자로 겨냥해 판매되었다. 특히 의료보험제도의 시행과 노인 인구의 증가가 국가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담론은 노인들에게 각자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 광고에 의료기를 구매할 수 있는 대리점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는데, 이 광고는 노인들과 더불어 여성들 역시 의료기의 주 소비자층으로 설정한다. 이 광고는 가족 건강관리 주체로서 여성들을 호명하고 가정에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담론이 투영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찬스
부담없는 가격에 선물구입

창업 10주년 할인등신판매공고
- 사계절용 삼베 작 바이오베드 국내시판단행 -
"창업기념 공장도 가격으로 특별보급"
- 특별보급기간 91. 8. 12~8. 22(10일간) -
자력에 원칙의선이 첨가되면 그 효능은 배가 됩니다.

특별사은품 무료증정
선착순 500분 한정증정

사은품1 바이오 삼베 베개 2EA (사계절용)

사은품2 가정에서 직접 무공해 채소재배를 할 수 있는 수경채소재배기

사은품3 어린이 피아노 책상

인생의 3분의 1을 상쾌하고 쾌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석요의 놀라운 효과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특별판매가 : ₩ 185,000원
은월카드 구입시 12개월 분할가능

주식회사 국제Y. W의료기사업부
TEL: 765-3868-9 / 764-1658, 3594, 5844
대구지사: TEL. (053)351-8780-1

[그림 1] 여성 모델과 무료 증정 생필품을 내세운 의료기 광고 (경향신문, 1991.08.13.)

위의 그림은 한 의료기 회사의 자석요 광고로 자석요의 구조, 사용 효과, 그리고 자석요 구매 시 혜택을 제시한다. 해당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대리점에서 의료기를 구매할 수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대리점을 운영할 점주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 당시 대리점은 현재의 체험관처럼 의료기를 사용해보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에서의 즉각적인 사후서비스와 전국적 판매를 위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 광고의 중앙에는

의료기를 사용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 모델이 등장하고, 모델 오른쪽에는 무료로 증정하는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은 생활용품들을 함께 제시한다. 광고의 오른쪽에 있는 증정품으로는 바이오 삼베 베개, 가정에서 직접 무공해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수경채소재배기, 어린이 피아노 블록 책상이 있다. 어린이 블록 책상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삽화를 첨부했는데, 책상을 “피아노 연주, 블록놀이 및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바른자세를 유도, 올바른 성장과 교육능률에 대단히 중요한 놀이·학습기구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위의 “가정”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기계와 아이의 성장과 교육과 관련된 증정품은 의료기의 소비자를 주부이자 어머니로서의 여성으로 전제함을 알 수 있다. 같은 의료기 회사에서 9일 뒤인 1991년 8월 22일 동아일보에 낸 광고도 이 광고와 거의 유사한데, 동아일보에 게재된 광고의 마지막 사은품이 학습기구가 아닌 홈요구르트라는 차이가 있다. 홈요구르터는 집에서 직접 순수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는 기계로 요구르터 옆에 “가족의 건강 엄마의 기쁨”이라는 문구를 첨부해두었다. 전통적인 정상 가족 내의 여성인 어머니는 가족 환경, 자녀의 심리적 복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David Spiegel, 2009[1992]) 되는데, 위 사은품들을 통해 의료기주 소비자를 가족의 건강관리자 역할을 맡는 어머니(김향수·배은경, 2013)로 설정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노화를 관리해야 하고, 관리 가능한 무언가로 설정하며 가족의 건강관리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 광고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 모델이 등장하는데, 이는 의료기 사용을 통해 외모와 나이를 관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젊음’은 나이와 관계없이 추종해야 할 가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나이는 젠더화 된 규율을 거친다(전희경, 2012). 여성은 가족 내 재생산하는 존재로서 주부이자 어머니로 재현되어 이들의 생산성은 노동력이 아닌 출산력으로, 매력은 ‘여성적 매력’을 뜻하며 여성의 가능성은 공적인 장이 아닌 이성애적 관계로 정의된다. 이 규율에 따라 여성에게 나이 늙을 관리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여성 대상 노화 방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이

의료기 광고에서 여성에게 나이 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자신을 위한 소비는 매우 한정적으로, 건강관리와 외모관리에 국한된다. 특히 여성성을 가꿔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부응하는 이상과 가정경영전문가로서 책임이 상충(김선미·이기영, 2006 : 122)해 소비에 갈등을 빚는다. 이 광고에서는 가정에 쓸모 있는 사은품 증정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 모델을 등장시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면서도 외모관리가 중요한 주부 소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건강관리와 ‘생산적 복지’ 시대의 IMF 유망 사업 홍보관

80년대 후반부터 “짐스러운 노인” 담론이 자리매김하는 동안 건강과 나이 들을 연결하고 노인을 적극적으로 소비자화해 건강을 위한 상품으로서 의료기가 출시되기 시작한다.²⁸⁾ 의료기 회사들과 언론은 의료기를 “효도선물”이자 노인들의 건강관리용품으로 홍보한다. 설날 및 추석 등 명절이나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 부모님들께 드릴 만한 선물로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를 소개하는 기획기사도 보인다. 의료기는 “부모님”에게 선물하며 효도하는, “노년”이라는 범주화된 나이에 맞는 상품이 되었다.

산업화 시기 국민으로 불리던 사람들은 1990년대 소비자본주의로의 이행 이후 소비자로 명명되기 시작했고, 국가의 나이에 따른 생애주기 제도의 이행과 나이의 범주화는 시장으로 넘어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되었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소비는 상품의 사용가치 구입에서 그 의미가 그치지 않고, 그것에 부착된 문화적 함의를 함께 소비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중요

28) “만성 老人性(노인성)질환자 自家(자가)치료기 관심높다”. 동아일보. 1989.06.15., “「추석 撤市(철시)」대비 미리 장바둬야”. 동아일보. 1990.09.28., “氣(기) 살려 근육통·신경통 고치는 치료기 인기 높다”. 경향신문. 1992.09.28., “「가정의 달」노인 행사 다채”. 동아일보. 1994.05.05. 등. 위와 같은 기사들은 의료기가 노인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께 드릴 효도선물로 수요가 많으리라 예측하며,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로 의료기를 소개한다.

한 요소가 된다. 기업은 연령층을 나눠 특정한 소비패턴과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범주화했다. “노년층”을 겨냥해서는 “실버”, “효도” 등의 이름을 붙여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 미용 산업에서는 노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젊음을 쫓고자 “안티에이징”을 강조하며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전희경, 2012). 신민선(2018)은 노화방지 치료법이 병원 개원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1999년 국내 최초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회인 대한노화방지의학회가 설립되었으며 노화방지의학의 시작은 신노년 담론²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이 들을 “관리”하라는 주문이 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노인 관련 보고서와 정책제안서에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활력 있고 유능한 노인상이 부각(최희경, 2010)되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노인은 과거 나이 들고 병든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은이 못지 않게” 능력 있고, 건강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떠오르게 되었고, 이상적인 노인의 상에 따르도록 노인들에게 요구되었다.

80년대 말까지 의료기 광고에 보였던 대리점 홍보와 모집은 90년대에 들어와도 이어지지만 새로운 판매 형태로 “홍보관”이 등장한다. 홍보관은 판매만을 위주로 운영하는 대리점과 다르게 고객들이 무료로 의료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현재 체험관의 시초격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무료홍보관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무료건강교실, 무료치료방 등 여러 용어로 불렸다. 홍보관이라는 명칭은 1996년 10월 29일 매일경제의 “시대변화 따른 사업 아이템” 기사에서 처음 발견된다. 이 기사는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며 노인용품점과 치료방 등이 신사업으로 부각된다고 보도한다. 1997년 4월 14일 조선일보에서는 한 의료기 회사의 광고를 찾을 수 있는데, 해당 광고에는 온열치료기와 저주파치료기를 홍보하며

29) 본 연구는 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노년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맞물려, 노년층에게도 이전의 부정적이고 짐스러운 노인 이미지를 탈피해 “젊음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전의 부정적 노인상을 버리고 긍정적인 노인이 되어라”는 주문으로 본다. 반면 신민선(2018)은 신노년 담론이 인구고령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위주로 신노년 담론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와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무료개방건강교실” 이용권을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의료기 무료 이용 및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교실은 서울 2곳, 경기 3곳, 부산 3곳에 위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993년에 보도된 기사들부터 여러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홍보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와 유사한 적외선치료기, 발마사지기 등이 있는 공간을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료기 홍보관 역시 사회복지관의 노인 무료진료병원과 무료 개방 물리치료실 형태를 본뜬 것일 수도 있으며, 시초가 어디든 무료 체험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탁월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보관의 광고와 기사 등을 통해 등장 과정을 살펴본 바로는 노년 여성 소비자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노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체험관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와 과정은 노년 여성들의 경험을 직접 들으며 규명해야 할 문제다.

90년대 초반까지 의료기 판매는 점포를 내고 판매하기보다 주로 방문 판매 혹은 노상, 통신판매 형태를 띤 것으로 보인다. 1991년에 의료기 방문판매 피해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었는데, 1991년 7월 17일 경향신문은 “피라미드식(식) 판매 규제” 기사에서 상공부³⁰⁾는 화장품, 세제, 자기치료기 등 수입품 다단계판매가 부쩍 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 안에 제정해 다단계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약 한 달 뒤인 1991년 8월 9일 경향신문은 “자석요 방문판매 피해자 속출” 기사에서 자석요를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이 밖에도 같은 해에 비슷하게 방문, 노상, 통신판매 소비자 피해가 늘었다거나³¹⁾,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를 규제하고 피라미드식 판매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기사³²⁾ 등이 보도된 바 있다. 더불어 90년대 중후반 이전의 의료기 광고는 의료기를 소개하며 “가정에서도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30)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1948년부터 1993년까지는 상공부라는 이름으로 상업, 무역, 공업, 특허, 도량형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31) “방문·노상·통신판매 등 소비자 피해 크게 늘어”. 매일경제. 1991.06.14.

32)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단신 기사 모음 중. 조선일보. 1991.12.28.

직접 의료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홍보관 등장 이전에는 대리점 및 방문 판매를 통해 의료기를 구매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 발행된 신문에는 대리점 광고처럼 무료홍보관과 점주들을 모집하는 홍보관 사업설명회 광고도 다수 실려있다. 현재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척추 온열의료기를 활발히 홍보하는 C 의료기는 1999년 2월 마지막 주에만 매일경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1회씩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무료홍보관 사업설명회 광고를 실었다. 무료홍보관 사업자를 모집하는 이 광고는 “IMF 소자본 사업설명회”라는 제목을 걸고, 무료홍보관 개설의 부담은 거의 없으며 소자본으로 고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 당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등 단기적 정책보다 평생직업으로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펼쳤으며, 1999년도 말 기준으로 소자본 창업은 한국 사업체 중 90.4%인 약 250만 개에 달했다(신금순, 2002).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소자본 창업이 유행했고, 각광받는 사업 아이템 중 하나로 의료기 무료홍보관이 떠오른 것이다.

C 의료기의 무료홍보관 사업설명회 광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리점 개설 희망자 자격으로 “35세 이상 55세 이하의 부부 운영 가능자”를 받는다는 점이다. 부부 운영자라는 단서³³⁾는 IMF 경제위기 이후 가족 내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가정주부 모델이 와해되고 2인 소득자 모델로의 변화(배은경, 2009)를 드러낸다. 경제위기의 여파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담론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노동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성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모 의료기 홍보관 점주 모집 광고에서는 여성들이 운영하기 편리한 “여성 유망 직종”이라 묘사하기도 한다.³⁴⁾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의 와해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그리

33) 부부가 함께 체험관을 운영하는 형태는 현재의 체험관에서도 종종 관찰되는데, 부부 운영자는 체험관 내 성별화된 분업 노동을 위한 체계이자 이용자들에게 신뢰, 호감을 주는 전략일 수 있다. 체험관 내서 살필 수 있는 성별 직무 분리는 다음 절에서 후술한다.

34)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며 젠더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고 자원을 획득하는 가족 내 아내-어머니라는 근대적 젠더보상체계 밖에서 자신의 생애 전망을 추구하게 되었음에도

고 IMF 경제위기 시대에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맞물리며 의료기 체험관 사업은 더욱 성행한다.

4. 세계화로 확장되는 신노년의 장으로서 체험관

2000년대에 들어 홍보관은 “체험관”이라고도 불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의료기 회사들이 의료기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들이 의료기를 지속적으로 이용해볼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체험마케팅”이라고 명명하면서 체험관이라는 명칭이 등장했다고 추측된다. 체험관에 직접 와 의료기의 효능을 느끼고 건강을 관리하게 세팅되어있는 것이다. 이 건강관리는 긍정적이고 사회 참여가 활발한 신노년 담론과 연결된다.

경제에 보탬이 되고, 유능하며, 건강한 노인이 되라는 신노년 담론은 IMF 경제위기 이후의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했고 이로 인해 2000년대 신노년 담론을 반영한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었다. 2002년 이후 전문학술지를 통해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 개념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었고, 2004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 주제의 고령화 위기론과 노인문화에 관한 기사 보도가 급증했다(최희경, 2010). 2001년 한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8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어온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었고,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을 쓸모 있는 인력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분위기를 등에 업고 기업은 노년층 소비자를 겨냥한 “실버산업”을 부상시킨다.³⁵⁾ 이 시기의 노인들은 조기 퇴직이 일반화되며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고 이들을 위한 의료 복지나 고층 해결을 위한 제도나 인프라는 미흡한 상황에 닥쳐있었다(무등일보, 2002.01.29.). 또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기보다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의식이 고양되고, 경제력을 가진 노인들이 늘어나³⁶⁾ 실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었고 이중노동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열등한 노동력으로 간주(배은경, 2009)되었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35) “고령화 시대에 맞는 아름다운 黃昏(황혼) ‘OK’”. 전북일보. 2002.03.05., “[노인은 넘치는데 실버산업 걸음마] 히트 실버용품(1)”. 매일경제. 2002.05.03., “업계마다 실버상품 붐몰”. 경인일보. 2002.09.10.

36) 2005년 10월 13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Cover Story] 100세 건강 지킴이 헬스케어

버산업이 더욱 팽창하게 되었다(전북일보, 2002.03.05.). 기사들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 특징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기 체험관으로 향한다고 분석한다.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달리 퇴직 이전의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력이 있고 소비에 더 친숙해졌으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체험관에 방문할 시간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도 무료 의료기 체험관을 설립해 현지 노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의료기 체험관이 수출되기도 했다.³⁷⁾ 박철(2011)은 중국에서 노령화와 병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정용 의료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의료기기 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음을 조망한다. 한국의 실버의료기 산업의 체험마케팅 수출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중국에서 한국 실버의료기 기업의 체험관을 이용하는 고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의 노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노인들도 인구변동과 의료구조의 문제로 중국에 수출된 한국 의료기를 활발히 사용한다. 세계화를 통해 한국의 의료기 체험관이 해외로 수출되었고, 의료기 산업의 규모가 더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노년 여성 대상 의료기 체험관의 설득전략 및 서비스

현재 의료기 체험관의 내외부 공간 특징 및 서비스를 살피고자 한다. 우선 의료기 체험관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동네 중심에 위치하며, 바깥에서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내부는 완전히 개방되어있다. 개방된 체험관 내부에서는 의료기를 이용하며 효능이 공유되고, 체험관 중앙에는 체험관 사장을 위주로 진행되는 건강강연을 들을 수 있는 의자가 배치되어있어 이용자들이 건강강연에 몰두하게 만든다. 이용자들이 체험관을 이용할 때 직원들은 친밀한 관계처럼 대접한다. 체험관의

산업"에 따르면 웰빙 의식이 확산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층을 가르켜 '골드세대(Gold Generation)'이라고 불렀다.

37) "한국식 온열의료기 해외서 호평". 매일경제. 2002.03.20.

공간 구성과 그곳의 건강강연 및 서비스가 노년 여성들에게 어떻게 가닿을지 살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다닌 프랜차이즈 의료기 체험관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다닌 체험관 세 군대를 비교해 특징과 산업의 변화를 분석한다.

1. 노년 여성들의 일상 생활권에 가까운 의료기 체험관의 입지

의료기 체험관을 포함한 의료기 판매점은 주 소비자층, 판매 품목, 지역 등에 따라 그 공간의 특성과 위치가 달라진다. 첫째, 의료기를 사용해보는 공간 없이 그저 판매가 목적인 의료기 판매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판매점은 대학병원 등 큰 병원 근방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1층에 유리로 된 창문을 설치해 가게 안의 의료기들이 잘 보이게 진열한다.

둘째로,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한 노년 여성들이 주 소비층인 의료기 “체험관”이 있다. 의료기 체험관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게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 대도시의 경우 번화가에 위치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나 그 주변 시장을 끼고 발달하고, 중소도시의 체험관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의 시장 근처에 있다. 노년 여성들이 주로 일상을 보내는 권역 내에 있어 접근성도 좋고,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도 평소 다니는 길목에 있으니 지속적인 방문이 더 쉬워진다.

의료기 체험관은 대부분 주변 지인의 소개로 방문하게 되며, 지인을 소개하면 의료기 체험관을 소개한 사람과 소개받은 사람 모두 감사의 의미의 상품을 받는다. 노년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관계망에 있는 동네 아는 여성들에게 의료기 체험관을 소개해주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체험관을 왜 가냐”고 반응할 만큼 남성의 체험관 이용은 흔한 일이 아니다. 체험관에 방문하는 남성 이용자는 대개 아내를 따라온 남편이거나 여성들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지인 소개 외에도 의료기 체험관을 홍보하기 위해 시장 어귀나 시장의 상인들에게 일일이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는데, 의료기 체험관에 전단지를 들고 오면 상품을 증정한다. 연구자도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 사

거리에서 전단지를 받아 할머니와 함께 의료기 체험관에 방문했는데, 체험관 건물 앞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후반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년 여성들이었다. 직원들도 주로 노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단지에는 무료 의료기 체험과 푸짐한 선물 증정 문구뿐만 아니라 의료기의 효능을 나열하거나, 의료기를 생산하는 공장 사진을 첨부해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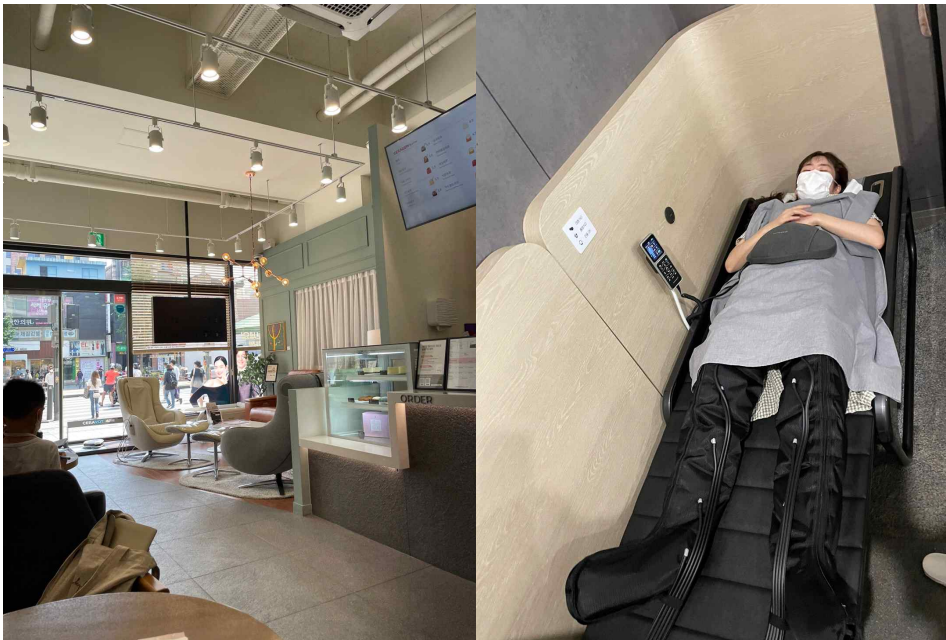


[그림 2] 영옥이 다닌 체험관의 전단지(좌),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체험관의 전단지(우).

이러한 종류의 의료기 체험관은 대체로 건물의 2층 이상에 자리³⁸⁾하며 창문을 불투명하게 도배해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물 안이 보이지 않게 배치해두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년 여성들이 마음 놓고 누워서 쉬고 의료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내부를 구성해 노년 여성 이용자들은 좀 더 사적인 공간에서 의료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대접받는 느낌을 받게

38) 2층보다 더 고층인 경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데, 이는 노년층의 소비자들을 고려한 것으로 유추된다.

꿈 하는 전략으로 보이기도 한다. 연구자가 방문한 지압침대 체험관 역시 창문을 도배해 외부에서는 전혀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여정이 다니는 체험관은 1층이지만 가게의 출입문 근처 앞쪽 공간은 화장품 판매점으로 화장품들을 진열해두고, 판매점 내부의 중간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는 뒤쪽 공간은 족욕, 반신욕, 그리고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 체험 공간으로 꾸며두었다.



[그림 3] 체험관의 카페 공간(좌), 비교적 어둡고 칸막이가 쳐진 안쪽의 공간에서 의료기를 이용하는 연구자(우).

셋째로, 그림 3과 같이 최근 등장한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카페형 체험관이 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높은 접근성과 넓은 소비자층을 고려해 카페와 결합한 형태의 체험관이 등장한다. 2019년 브랜드를 설립한 후 1년 반 뒤부터 본격적으로 지점을 확대하며 약 4개월 만에 80호점, 1년 9개월 만에 100호점을 돌파한 C 의료기의 W 카페가 있으며, N 의료기, V 의료기 등에서도 유사하게 카페를 결합한 체험관을 개

업하고 준비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C 의료기는 1998년도에 회사를 설립했고, V 의료기 역시 1998년, N 의료기는 2002년에 창립되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노인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이제는 카페형 체험관으로 카페에 친숙한 더 낮은 나이대의 여성 소비자들을 유입시키고자 한다. 포털사이트에 카페형 체험관을 검색하면 기존의 체험관 주 이용자층보다 더 낮은 나이대인 3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체험관을 이용한 뒤 남긴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C 의료기에서 운영하는 카페형 체험관 W 카페 서울 신촌 지점에 방문해본 결과, 이전의 의료기 체험관과 달리 안이 보이는 창문 앞에 의료기를 진열해두고 카페 공간까지 보이게끔 해두었다. 그러나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운 공간에 의료기를 이용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카페라는 친숙하고 접근이 쉬운 공간을 체험관에 접목한 이와 같은 변화는 더 넓은 연령대의 소비자 유입을 꾀하고, 체험관의 접근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카페형 체험관이 등장했듯이, 의료기 체험관은 점점 더 발전한다. 여정이 다니는 체험관에서 명칭이 체험관이거나 프랜차이즈 체험관 같은 공간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의료기를 두고 특정 공간을 체험관처럼 만드는 경우를 발견했다. 여정이 족욕기를 이용하는 곳은 앞에서 묘사한 프랜차이즈 체험관이 아니라 화장품 판매점이다. 이곳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동네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마사지 등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1년 10월부터 여정이 사용하는 족욕기를 화장품 가게에 두었고, 그쯤부터 기존 여성 회원들과 같이 여정도 족욕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림 4] 여정의 체험관에서 족욕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좌측 3인)과 연구자(우측).

여성들이 의료기를 일상적 공간에서 쉽게 접할 정도로 의료기 산업의 큰 침투력을 알 수 있고, 이는 여성의 노동 경향과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노동은 주로 불안정한 형태를 띠며 부업을 병행하는 비율 여성의 비율도 높다.³⁹⁾ 여정의 체험관은 입소문 네트워크와 부업으로 운영⁴⁰⁾되는데, 판매와 수입 창출에 있어 기존 체험관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프랜차이즈화된 체험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의료기의 판매가 목적인 반면 여정의 체험관은 족욕기 이용권 판매가 주된 수익창출원이다. 화장품 판매점은

39)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1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성의 47.4%, 남성의 31.0%로 나타나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리포트(2022) 「누가 부업을 하는가(임연구)」에 따르면,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 고령층, 임시/일용직, 자영업자이며 주업에서 버는 임금이 낮아 추가 소득 활동을 위해 부업을 겸한다. 특히 연령 별로 부업 노동자 인구를 살폈을 때 50대부터 부업 비중이 증가하고 60대와 7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령층이 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40) 화장품 회사 '에터미'가 입소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 사례다. 에터미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소위 "다단계" 운영방식을 취한다. 다단계판매는 다른 형법위반범죄와 비교하면 여성 위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곽대경 외, 2009). 여정의 체험관과 같이 여성들이 다단계판매에 많이 관여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으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업이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과 의료기 체험관 산업의 연결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여정이 거주하는 도시의 구시가지에 위치해 한 동네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 사이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고 사장님 역시 동네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로 있다. 이 판매점은 좁은 동네의 커뮤니티 공간 중 하나이기에 아는 사람들만 방문하는 경향이 있고,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 낯선 사람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추지현(2017)은 사업장이 젠더 질서, 사업주와 손님의 관계, 노동시장의 분할과 위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임이 쉽게 간과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 사장 혼자 운영해나가는 가게는 초대되고 소개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사장과의 관계가 체험관 진입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⁴¹⁾

2. 체험관 이용 순서와 의료기 효능을 공유하는 내부 공간 배치

상호가 달라도 의료기 체험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용 방식과 체험관의 내부 공간 배치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분석하고자 하는 공간들은 연구자가 직접 참여관찰한 체험관 세 군데로, 영옥과 두심이 다녔던 의료기 체험관이 있는 동네의 지압침대 체험관, 여정이 의료기를 이용하는 화장품 판매점, 그리고 카페형 체험관이다. 특히 지압침대 체험관은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다닌 프랜차이즈 체험관들과 내부 공간 구성이 매우 흡사해 이 체험관을 중점적으로 참고해 연구참여자들의 체험관 이용 경로를 분석하고, 다른 두 체험관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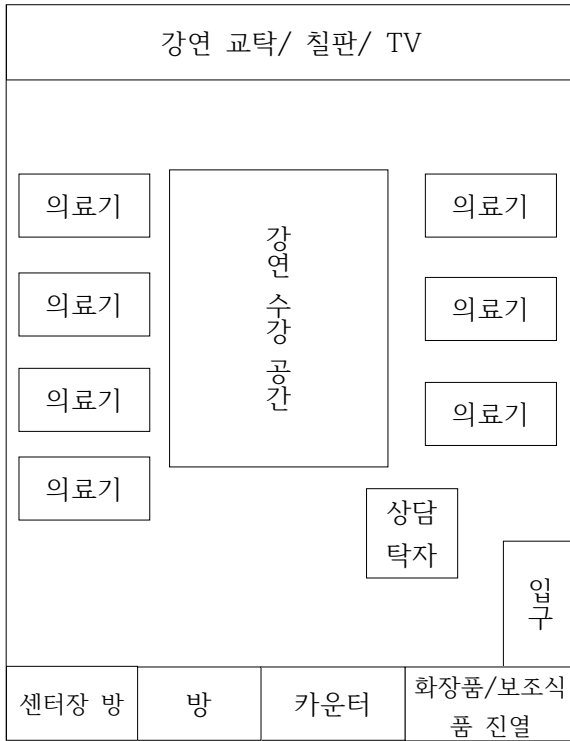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체험관들은 대체로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문을 연다. 체험관에 도착한 뒤 이용자들은 배정된 순서에 따라 의료기를 사용하거나, 의료기를 사용하며 건강강연을 듣기도 한다. 건강강연이란 체험관에 방문한 노인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자리다. 강연에서 건강관리를 강조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기 판매 때문인데,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험관에서 판매하는 의료기로 온갖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용자들은 체험관의 의료기들을 순서에

41) 여성 혼자 운영하는 장사의 범죄피해 가능성과 여성 사장의 젠더화된 범죄 예방 전략 (추지현, 2017)은 알려진 바 있다.

맞게 사용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다 같이 점심을 먹는다. 이 과정은 대체로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연구자는 처음 방문한 지압침대 체험관에서 중년 여성 직원의 안내 및 상담을 받았다. 상담에서 직원은 평소 아픈 부위, 당장 체험 가능한 시간을 묻고,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까지 소개해준 뒤 체험관 중앙의 강연 의자로 안내했다. 꼭 중앙의 의자가 아니더라도 체험관 가장자리에 놓인 의료기를 이용하거나 매트, 침대 등에 누워서 강연을 들을 수 있다.

건강강연이 끝나고는 각자 비어있는 의료기를 이용한다. 체험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도 대부분의 체험관이 비슷한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의료기를 사용한다. 첫째는 여정의 족욕기와 문희가 다녔던 B 의료기의 벨트형 의료기 종류로,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 둘째는 문희의 V 의료기, 두심과 영옥의 의료기 체험관에 있는 의료기들로 저주파 허리찜질, 초음파 마사지, 온열 가마 등 몸의 시리거나 아픈 곳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기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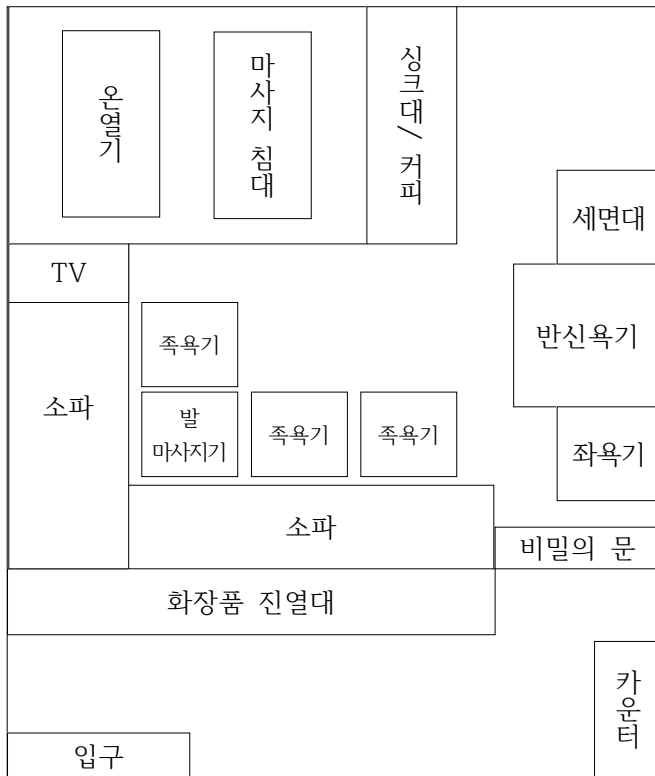
[그림 5] 지압침대 체험관의 공간 배치.

기본적으로 의료기 체험관은 그림 4와 같이 배치되어있다. 이용자들은 옹기종기 체험관 중앙의 의자에 앉아 의료기를 사용하면서 수다를 떨거나 온열매트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혹은 매트에 누워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체험관 내부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주변 사람과 몸의 증상이나 의료기의 효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 개방된 공간에서 서로 의료기를 사용하는 모습과 효능을 직접 볼 수 있고, 의료기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폐쇄적인 외부와 대비되는 내부의 적극적인 개방을 추구하는 기존의 의료기 체험관과 최근 등장한 카페형 체험관의 내부 공간은 다르다. 연구자가 방문한 W 카페 입구 부근에는 밝은 조명이 있어 외부에서도 일반 카페처럼 꾸려져 있는 내부가 잘 보인다. W 카페는 “건강을 생각하는 차”를 표방하는 차 브랜드와 협업해 만든 것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체

험관인 만큼 떡이나 차 등 몸에 좋은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한다. 카페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의료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의료기 체험 공간은 체험관 앞쪽의 카페 공간보다 어두컴컴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각각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체험 도중에 옆 사람을 볼 수 없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어렵다. 카페라는 친숙하고 접근이 쉬운 공간과 함께 사적인 공간을 보장하는 개별적으로 의료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확보한 체험관 공간 구성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기 회사는 의료기를 사용한 뒤에 흐트러진 외모를 단장할 수 있는 “레이디존”을 마련해두고 의료기뿐만 아니라 로봇청소기 등의 가전용품을 함께 판매하며 기존 노년 여성 소비자층보다 더 젊은 여성층을 주 소비자로 둔다. 앞서 할머니와 방문한 지압침대 체험관에서 연구자가 할머니를 따라온 ‘손녀’로 위치된 반면 카페형 체험관에서는 온전히 이용자이자 소비자로 받아들여지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여정의 체험관은 진입 경로와 업태 등 기존 체험관과 다른 점이 있지만, 공간 설정에 비슷한 점도 보인다. 그림 6은 여정이 다니는 체험관의 도면이다. 먼저 화장품 가게의 입구로 들어가면 카운터와 함께 화장품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어 앞쪽 공간은 화장품 판매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게 뒤편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사지, 반신욕, 좌욕, 온열기 그리고 주력 상품인 족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그 외에도 족욕 후 묻어 나온 독소 씻는 세면대와 손님들에게 대접할 커피를 준비하는 공간 등이 있다. 이처럼 외부에서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내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개방되어 이용자들끼리 마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져 있다. 면적이 그리 넓지 않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족욕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옆 사람의 족욕기에 독소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볼 수 있다.



[그림 6] 여정의 체험관의 공간 배치.

또 체험관 벽에 독소의 색상에 따라 내 몸의 증상을 해석할 수 있는 색상표가 걸려있어 이를 두고 이용자와 함께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논의한다. 사용자들끼리 적극적으로 효능과 체험담을 나누며 의료기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공간 설정이다. 여정은 체험관에서 독소가 배출되는 족욕기를 사용하며 그날 나온 독소의 색과 양을 보면서 몸 건강을 가늠하고 체험관 이용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족욕기를 사용하며 발에서 나오는 거품이나 이물질의 색을 보며 “항생제 같은 약을 많이 먹어서 이런 색이 나왔다.”, “몸에 중금속이 많다.” 등 자신만의 진단을 내리며 최근의 몸 상태를 점검한다.

족욕의 색상별 해석

블루 색	화학 잔여물 약물 독소	붉은 벽돌색	고지혈
핑크 색	간장, 세포 잔여물 연초 독성물	깊은 붉은색	화독, 염증
브라운색	간, 담, 독소물	깊은 붉은색 부유물	혈경도 상승
깊은 녹색	신체 어혈 증상	브라운 블랙	혈액 산성이 강함
어두운 회색	임파 정맥 독소	주위 녹색 - 내부 백색	궤양
붉은 조각물	효소 결핍 간장 해독성 저하	주위 백색 - 내부 녹색	임파 기능 저하
하얀 거품	극편 주위에 집합 다년간 약물 독소물	거품 밑 부분 흰색	생리 불규칙
백색 부유물	젖산이 높음	거품 밑 부분 녹색	자궁에 강한 냉증
브라운 블랙	신장이 약함	흑색 조각물	중금속 독소
열은 황색	폐기능 저하	백색 무늬	피부병
담황 녹색	혈관 노폐물 과다	은백색 미세 부유물	세균성 독소
백색			
발색			

-독소는 사람마다 다르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7] 여정의 체험관 벽에 부착된 독소별 의미에 관한 표.

여정의 체험관은 중소도시 구시가지의 화장품 판매점으로, 족욕기 이용 손님과 화장품 구매 고객을 함께 유치할 수 있다. 즉 손님들은 족욕기를 이용하면서 화장품을 사고, 화장품을 사며 족욕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한 고객이 두 사업의 고객이 된다. 화장품과 의료기는 모두 여성의 노화 방지와 떨어질 수 없는 상품이다. 다른 의료기 체험관에서도 의료기만 판매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값이 싸고 여성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해 판매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체험관에서도 의료기 이용을 끝내고 나가는 길에 직원이 수분크림 샘플을 제공했다. 체험관의 입구와 카운터 근처에 의료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화장품을 비치해둠으로써 마지막까지 이용자들이 건강에 신경 쓰고 소비하게끔 유도한다.

3. 의존 불안 자극과 지식의 권위에 의탁한 의료기 판매

의료기 체험관에서는 건강강연이 있는 날이면 체험관 중앙에 마련된 강연공간에서 의료기를 이용하면서 강연을 듣는다. 건강강연은 대체로

센터장⁴²⁾이 진행한다. 건강강연은 체험관에서 꽤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건강 관련 지식을 가르쳐주고, 중간에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를 판매한다. 강연을 들을 때도 배 허리 뜸질기, 허리벨트, 발 마사지기, 마사지 마스크 등 다양한 의료기들을 체험하면서 알아있을 수 있어서 의료기 체험관 안에서는 건강관련에 관한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다. 연구자와 본인의 할머니도 지압침대 체험관의 강연 의자에 앉자마자 직원이 배 허리 뜸질기를 배에 돌려주었고 강연을 듣고 있는 중 건강에 좋은 이온수를 주며 마시라고 권했다. 이온수기는 90년대에 온열기와 함께 유행한 대표적인 의료기인데, 지압침대 체험관의 본사 홈페이지에서도 이온수기를 판매하고 있다. 강연공간 앞의 교탁과 칠판에는 “건강 10 계명” 같은 문구들, 척추뼈의 번호가 새겨진 그림, 강연 중간에 건강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는 TV가 놓여있다. 교탁 옆에는 종종 건강강연 중이나 강연이 끝난 후 나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방 기계가 있고 그 옆에는 회원들에게 나눠줄 락앤락 통도 쌓여있었다.



[그림 8] 강연하는 센터장과 증정품들.

42) 체험관별로 대표를 부르는 명칭은 센터장, 원장 등 상이하다. 지압침대 체험관에서는 대표가 센터장으로 불렸기 때문에 센터장으로 표기했다. 의료기 체험관의 대표는 체험관 운영과 강연을 담당하며 여성인 경우도 있지만 남성이 다수다.

당시 들었던 건강강연은 건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듯하면서 불건강한 상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 우선 센터장은 건강에 관한 가장 흔한 통념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요지의 두 사례를 언급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대학교 동문이 젊은 시절 돈만 벌다가 이제야 즐기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남자가 걸리면 초기 진단이 어려워 치명적인 유방암”에 걸려 이제야 건강을 챙길 것을 후회하고 세상의 모든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사례다. 노후의 대비를 위해 근심 걱정 없이 살 정도로 돈을 벌어들였지만 결국 건강관리는 실패한 삶을 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묘사한다. 두 번째로 돈도 잘 벌고 모두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만들고도 “60도 못 하고(살고) 50대에 죽은” 스티브 잡스의 영상을 틀어주며 모두 “결국은 자기 건강에 쓸 수 있는 시간, 책 한 줄만 빨리 읽어봤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모두 부질없다”고 말한다. 또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며 이용자들의 호응과 대답을 이끌기도 했다.

이 이야기들은 그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설파하고 전형적으로 “건강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센터장의 건강강연은 나이 들어 맞이할 수 있는 노년기의 질환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한다. 특히 두 사례 모두 암 환자의 사례다. 모든 질병에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데, 건강강연에서 두 번이나 등장한 암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상당히 죽음과 가깝게 묘사된다. 게다가 첫 번째로 언급한 동창의 유방암에 대해 “남자가 안 걸려야 될 병, 남자한테 희귀한 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례를 극적으로 안타깝게 만든다. 체험관의 건강강연, 혹은 의료기 효능 홍보의 기초에서 ‘암’이라는 질병의 언급은 우연이 아니다. 암이 예방된다는 식의 설명은 두심이 체험관에서 들은 강연에서도 나타난다. 두심은 강연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암세포가 죽는다고 들었다. 체험관에서는 대체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로써 암세포가 죽거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앞에 걸린 두 사례의 일장 연설 이후 센터장은 인간의 노화는 35세, 60세에 한 번씩 찾아온다며 아직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미리 예방 차원으로, 이미 아픈 사람들은 면역력을 올리는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터장은 “건강은 빌려줄 수도, 살 수도 없고, 오로지 내가 안 아플 때 건강한 것”이라며 성별별 평균수명, 건강수명⁴³⁾ 등 전문 용어와 통계자료를 들어 마치 그의 설명이 전문지식처럼 들리게끔 설명한다. 이외에도 “옛날 배 굶던 시절에는 영양실조가 문제였지만 현대는 영양 과다가 문제다, 소아병동에 노인병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등의 사례를 들어 전문지식을 나열하면서도 체험관 이용자들이 실제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넣어 노인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헤아려주는 유익한 강연처럼 들리게끔 말한다.

또 죽음을 암시하는 암 환자 사례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죽음과 질병에 대한 불안을 심기도 한다. 평균수명은 늘어나지만 건강수명은 짧아진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수명 자체는 늘어나 오래 살지만 건강하게 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뒤 고독사한 노인의 사례와 병원에 의존하는 사례를 언급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딱 집 안에 가면 우리 봉사활동 하면 그런 게 있어.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가보면요. 라면박스 하나도 없어요.** (...) 어떻게 병원에 다니시는 게 하루 일과인 사람들이 많아요.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뜸 뜨고 또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물리치료하는 거나 이런 정형외과나 또는 신경외과 이런 데 가서 **또 이렇게 이렇게 코스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치료 불가능한 게 답답하니까.** 몸에 이제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비 증세가 오고. 또 어떻게 보면 어디 이제 살아나니까 이렇

43) 여기서 말하는 평균수명은 출생부터 사망까지에 이르는 수명을 평균적으로 수치화해 나타낸 수치다. 평균수명은 대체로 ‘기대수명’이라고 쓰이는데 기대수명이란 인구의 n세를 기준으로 이후 생존 가능한 평균 연수를 의미한다. 즉 0세를 기준으로 이후 생존할 수 있는 연수의 합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반면 건강수명은 사망만을 고려하는 기대수명에 비해 질병이나 장애 없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라는 노인 건강 측면에서 삶의 질을 반영하는 건강지표(양승민·최재성, 2021)로 작용한다. 질병과 장애 없이 오래 사는 수명을 측정하는 것은 결국 질병과 장애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고 이상적인 몸을 정형화된 ‘정상적인 몸’으로 한정한다.

게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요. 1500원 2000원 3000원 해요. 의료보험 처리를. 근데 그게 점점 점점 늘어나고 내성력이 강해지면 더 자극적인 것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압침대 체험관 참여관찰 중 건강강연 일부).

센터장은 “늙고 병들어 집에는 라면상자 하나 없이 혼자 쓸쓸히 사망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 노골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심는다. 고독사 사례 뒤에는 자연스럽게 몸 곳곳이 아파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언급한다. 강한 치료를 받는 동시에 치료비도 불어나고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망가진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건강을 잃으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건강을 잃기 전에 관리하면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면역력의 강화는 체험관의 의료기를 사용해 체온을 높게 유지하며 가능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은 체험관을 다님으로써 건강을 관리해 “고독사하지 않고 과도한 병원비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2022년 발표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노인 1인 가구 수는 182만 4천 명이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노인 1인 가구의 71.9%가 여성 1인 가구다. 노인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 1인 가구가 두드러지게 많은 실정으로, 통계적으로도 노년 여성에게 고독사는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건강강연에서 “긴 병에 효자 없다”라며 이용자들에게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역설했는데, 이는 노년 여성들이 자녀들에게 건강에 관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체험관에서 파악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체험관 브랜드의 홍보영상에 나온 지점장 인터뷰에서 지점장은 “어르신들이 체험관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자식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다”고 답한다.⁴⁴⁾ 무병장수라는 바람을 연료로 하는 건강관리 규범은 독립/의존, 몸/정신의 남성중심적 이분

44) <한빛나노의료기>, 한빛나노의료기 창업스토리 1탄-몇번이고 넘어져도 일어서는 오투기 원장님 <https://www.youtube.com/watch?v=R8sHleBJNVo>

법을 강화하면서 나이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만들어 낸다.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존재로서 가족과 국가에 ‘짐’이 되는 존재로 비난, 동정받는다(전희경, 2012: 209).⁴⁵⁾ 노년 여성들에게 나이 들은 쉽게 불건강과 노화로 여겨지고 쓸모없는 의존 상태의 나이 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다. 노년 여성들이 자식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신경 쓰는 마음은 체험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체험관에 방문하는 적지 않은 노년 여성들이 자식들에게 피해와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이 든 몸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강연은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체험관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두심이 다녔던 의료기 체험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원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문희는 건강강연을 듣기 위해서 매주 체험관을 방문했는데, 건강강연 이후에 이용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자신의 체험담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문희 역시 원장이 체험담을 말해주기를 권해 자신이 느낀 의료기의 효과를 강연 중 사람들에게 말해준 적이 있다. 종종 강연 중 의료기 판매도 이어진다. 영옥은 “체험관에서 연설(건강강연)할 적에 오늘 사는 사람은 얼마 싸게 해준다. 뭐 끼워준다. 나는 안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간 시누가 손을 들어서 지도 사는 바람에 다 샀다.” 체험관 이용자들이 건강강연 중간이나 후에는 직접 의료기를 사용해 효과 본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용자들 사이의 의료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건강강연이 끝난 뒤 각자 의료기를 사용할 때는 직원이 옆으로 와 의료기 사용을 돕고 구매를 권한다. 연구자가 지압침대 체험관에서 건강강연이 끝난 뒤 의료기를 사용할 때 처음 상담을 도운 중년 여성 직원이 지압침대에 누워있는 연구자 옆에 앉아 타사 의료기보다 더 좋은 점, 숙면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건강강연보다 더 자세하게 일대일로 설명했다. 단체로 들었던 강연보다 의료기 홍보에 중점을 두고, 건강에 대한

45) 정상적인 몸, 나이와 건강의 관리를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은 노인이 느끼는 짐스러움을 주변의 인정과 소속감, 그리고 사회활동의 확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연구들에서도 잘 드러난다(하정미·송영지·남희은, 2012; 김나리, 2022).

걱정, 관심과 조언을 덧붙인다. 먼저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숙면하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말한다. 파킨슨 등 노인병을 앓던 사람들이 의료기를 쓰고 완치된 사례를 읊으며 “유병장수로 돈 안 쓰고 죽으면 뭐 할 것이냐”,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좋지 않나”, “노령연금 받아서 모이지 않는다 그 정도로만 투자하면 건강 챙기고 평생 쓸 수 있다”고 크게 아프기 전에 건강을 위해 의료기 사용에 투자하라고 설득한다.⁴⁶⁾

또 의료기를 사용하면 “논문에 발표되는 내용처럼” 효과를 본다거나, 대학 연구소와 협력해 의료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기라고 설명했다. 대학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공식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의료기를 믿어달라는 말인즉슨 전문 기관의 권위를 믿어보라는 의미다. 직원이 의료기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연구자는 바로 옆에 누워 의료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의료기의 효능과 구매 이유 등을 물었는데, 자신이 효과를 본 이야기와 함께 해당 체험관 의료기의 차별점은 “대구 한방병원에서도 사용하는” 믿을 수 있는 의료기임을 강조했다. 지식의 권위에 의탁한 건강강연과 직원들의 설득전략이 이용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유효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의료기 체험관 경험에서도 보였는데, 문희는 체험관에 있는 의료기들 모두 다 “박사”들이 만들어 신뢰 간다고 말했고 여정은 “의료기를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랑 다 실험을 해서 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건강한 상태로 자녀들 혹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문이 노년 여성들에게 불안으로 여겨지며, 이 불안을 의료기 체험관에서는 병원과 박사 등 건강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증하는 믿을 만한 의료기로 잠재울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4.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체험관 직원들의 대접 서비스

46) 연구자는 의료기 체험관에 할머니와 동행했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의료기의 노인병에 대한 효능을 설명하는 이유는 할머니의 건강을 챙기라는 설득이었다. 이로써 2030 청년 여성은 의료기 체험관의 주 타겟 고객층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체험관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노년 여성들이 의료기를 이용하는 내내 직원들이 이용자들에게 대접하는 듯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료기 판매를 위해 직원들은 이용자들이 의료기를 사용할 때 옆에 앉아 이용자들의 건강을 신경 써주며 함께 건강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직원들이 이용자들에게 건강 지식을 알려주고 몸의 증상을 묻는 것은 의료기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의료기를 이용하며 아픈 몸이 풀리는 느낌과 함께 직원들이 나의 건강 상태에 관해 묻고 몸을 보살펴주는 상황은 노년 여성들이 소비자가 되어 대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

체험관에서는 건강강연 진행처럼 권위 있는 역할은 남성 사장이 담당하지만, 체험관 이용자들 옆에서 몸 상태를 묻는 등 실질적 응대는 주로 중년 여성 직원이 맡는 성별직무분리가 관찰된다. 체험관 내 직위의 차이도 있는데 센터장 등 대표직은 대부분 남성, 직원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연구참여자들이 다닌 체험관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도 있으나, 이용자들 옆에서 의료기 사용을 돕고 건강과 안부를 묻는 역할은 모두 여성이 담당했다. 여성 직원들은 주 소비층인 노년 여성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의 40, 50대⁴⁷⁾로 이용자들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두심이 다닌 의료기 체험관도 원장은 남성, 직원은 원장의 아내까지 총 여성 3명이었는데, 그에 따르면 “원장은 강연 같은 것만 하고 (여성) 직원들은 잔치할 때 분위기를 띄워서 의료기를 사게 만든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지압침대 체험관에서도 남성 센터장은 건강강연을, 여성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고객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성 직원들도 앞에 나와 강연도 진행하지만 대체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이고, 센터장이 고객 대상으로 여성 직원들이 하는 감정노동을 하지는 않는다. 강세영 외(2005)는 부부가 함께 사업을 경영할 시 관공서나 은행 출입 등 대외적인 일 처리와 사업 대표는 남성이, 종업원 관

47) 지압침대 체험관의 직원들도 50대 여성이었으며, 구인 사이트의 체험관 직원 채용공고만 봐도 40대 이상의 여성을 조건으로 거는 곳들이 대다수다.

리와 재무 관리 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실무는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한다. 당시 관공서나 은행관계자는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남편이 상대하는 것이 낫고, 종업원 관리는 마치 가족을 돌보듯이 여성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고 이러한 역할분담은 가부장적 가치에 부응한다고 분석한다. 이와 유사하게 의료기 체험관에서도 건강강연을 진행하고 대표를 맡을 권위 있는 사람은 남성, 세세하게 이용자들의 몸 상태를 챙기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은 여성으로 여기는 성별직무분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 체험관의 부부 운영자 모집 광고에서도 나타났듯이 특히 부부가 운영할 때 이러한 직무분리를 더욱 가능케 만드는데, 부부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을 호감을 사는 경우가 있다. 두심은 자신이 다닌 의료기 체험관의 남성 사장에 대해 “그 원장은 진짜 효자다. 일주일마다 마누래하고 엄마한테 가지. 그니까 할매들이 그것도 고맙다고.”, “저 엄마 아버지 할머니한테, 장인 장모한테 그리 잘하니까.”라고 말한다. 즉 사장 부부가 직접 자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용자들을 대접하면 노년 여성 이용자들 역시 그런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자신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고마워한다. 두심은 “너무 사람이 보기, 사람이 좋아. 넘 속카묵고(남 속이고) 바가지 폭 씌우고 이런 사람이 안 같애 보이지.”라며 체험관을 운영하는 부부에 대한 칭찬과 신뢰를 아끼지 않았다.

모 의료기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인터뷰 영상에서 한 의료기 체험관의 지점장은 해당 지점 고객의 95% 정도는 노년 여성들인데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며 황금률⁴⁸⁾의 법칙처럼 “어머님들께 잘해드려야 나도 늙어서 나 같은 원장을 만나지 않겠냐”며 “이 사업은 정(情)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너무 생각하면 쉽게 지칠 수 있다.”⁴⁹⁾고 말

48) 황금률이란 기독교의 기본적 윤리관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으로 지점장 역시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고객을 대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몇몇 의료기 회사는 기독교의 성인이나 성서의 이름을 본 따 브랜드명을 짓기도 하며, 체험관에서 건강강연 등에서 이용자들에게 이용 및 체험 후기를 말해보라는 것은 기독교의 간증을 떠올리게 한다. 이로써 의료기 체험관과 종교적 부분이 연결됨을 유추할 수 있으나 더 자세한 연관성의 파악은 후속 연구 과제로 둔다.

49) <창업통TV>, 한빛나노 의료기체험장 창업, 과연 어떨까요?

한다. 기본적으로 의료기 체험관의 지점장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은 서비스 태도가 기저에 깔려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의료기 구매에 따라 체험관 직원들의 서비스의 편차가 생기는데, 특히 많이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주로 더 대접하는 경향이 있다. 문희는 V 의료기 체험관을 갔을 때 커피 같은 음료 등은 “눈치 보고 먹어야 하는데 나는 눈치 보기 싫어서 안 먹고, 물건을 많이 샀다든가 하는 ‘로열 고객’은 눈치를 덜 본다.”, “아무래도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이 차별을 하더라.”고 느꼈다. 두심 역시 “안 사고 댕기면 좀 미안코. 내가 사면 좀 당당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많이 사고 한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친다아이가.”, “여기 물건 많이 산 사람들은 기가 세고, 많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할 소리 다 한다.”고 말한다. 두심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가족까지 주려고 여러 대의 의료기를 사는 사람들도 봤는데, 의료기를 많이 구매하는 고객은 우수 회원이 되어 직원들에게 더 대접받고 체험관에서도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의료기 체험관 직원들이 이용자들을 아무리 살뜰히 대접하더라도 의료기를 구매해야 관계 유지와 지속적인 체험관 이용이 가능하다. 노년 여성 이용자들은 의료기 체험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그간 받아온 정성스러운 대접이 미안해서라도 의료기를 구입한다.

제3절 소결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을 분석하기 전, 현재 의료기 체험관의 조건이 어떤 과정으로 노년 여성들을 이끌었는지 알고자 한국 사회에서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 배경과 의료기 체험관의 공간 설정 및 서비스를 살폈다. 먼저 1980년대 한국의 의료기 시장 확립부터 최근 2010년대까지 의료기 체험관 산업의 변화를 정리해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 과정을 살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f09dWC1ceU>

1970년대부터 의료기 국산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국내에서 의료기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980년대 후반부터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가 등장했다. 가정용 의료기는 노년의 개인 소비자들을 겨냥했는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소비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에 이바지하지 못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축내는 고령화위기 담론의 횡행과 관련된다. 주로 방문형 판매로 거래가 이뤄진 가정용 의료기는 점차 그 시장이 확장되며 전국의 대리점 등을 통해 개별로 판매되기 시작했고, 점차 의료기가 대중화되어 명절, 어버이날 등 부모님 선물로 떠올랐다. 의료기 회사들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가정의 건강관리자로서 여성 역시 의료기 소비자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의료기 판매만이 목적인 대리점에서 오랜 기간 고객들이 이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체험관의 효시인 홍보관이 등장했다. 특히 홍보관은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떠올랐고,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허상이 허물어지며 여성 및 부부 창업자들도 늘어났다. 홍보관이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활발하고 유능한 경제생활의 주체로 노인에게 스스로 관리하라고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체험마케팅”을 강조하며 체험관이 등장한다. 체험관은 2000년대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꾸준히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성행했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각국에 체험관이 수출되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 더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 체험관까지 살폈을 때, 의료기 산업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더 넓은 연령대의 여성들까지 소비자로 포섭하고자 함을 발견했다.

의료기 체험관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알아본 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이용한 프랜차이즈화된 의료기 체험관의 공간 구성과 서비스 전략을 살폈다. 의료기 체험관은 외부적 입지 조건으로는 대체로 시장을 끼거나 시내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위치하며,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

지 않아 사적인 공간에서 의료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반면 의료기 체험관 내부는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 이용자들끼리 서로 의료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체험관 정중앙에 의자를 배치해 건강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둔다. 반면 2010년대 후반에 등장한 카페형 체험관은 입구 쪽을 카페 공간으로 꾸며두어 접근성을 높이고, 안쪽 공간에 개별로 의료기를 이용해볼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다. 이외에도 의료기 체험관이라고 상호를 걸고 가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부업의 형태로 의료기 이용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의 형성을 목도했다.

의료기 체험관의 핵심 프로그램은 체험관 이용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강연이다. 강연자는 이용자들에게 건강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건강관리의 압박을 주고 질병과 죽음의 불안 안겨 의료기를 판매하려는 자리다. 건강강연이 끝난 뒤 각자 의료기를 이용할 때도 직원들이 이용자들의 의료기 이용을 도와주면서 건강강연보다 더 자세히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료기 구매를 유도한다. 직원들은 노년 여성 이용자들의 몸 상태를 묻고 챙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결국 의료기 판매를 위한 수단이다.

위와 같이 전혀 달라 보이는 의료기 체험관 세 곳의 비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의료기 산업은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조를 통해 노년 여성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 촉진과 질병 예방 및 노화 방지의 일상화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후회하기 전에 건강관리에 돈을 지출하라는 식으로 노년 여성들의 불안을 부추겨 의료기 판매 목적을 달성한다. 그렇다면 실제 노년 여성들은 의료기 체험관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노년 여성들이 의료기 체험관에 방문하는 계기와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이유, 그리고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노년 여성들의 실제 경험을 들어 파헤치고자 한다.

제3장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과 동인 : 나이 듦의 이해와 대응

거 가서 치료하는 날은 낮아. 그렇게 이제 매일 거 가면 재미있고, 밥도 주고, 또 천 원만 주면 또 음식, 설탕도 주고, 비누도 주고, 보리 쌀, 찹쌀 안 주는 게 없거든. 그래 맨날 가는 기지. (영옥 1차: 31)

영옥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 노년 여성들은 의료기 체험관에서 아픈 몸을 치료하고, 체험관에서 증정하는 생활용품 등의 사은품들을 받고, 체험관에서 개최하는 잔치와 노래자랑대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여가를 즐기고 일상을 보낸다. 3장에서는 노년 여성들이 의료기 체험관을 다니는 양상과 동인을 통해 각자의 조건에 따라 나이 듦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나가는지 분석한다.

제1절 삶이 새겨진 아픈 몸을 다스리기

노년 여성들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은 노년의 나이에는 몸이 아프다는 당연한 명제의 결과처럼 여겨지지만, 노년 여성 스스로 아픈 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어떻게 몸을 보살피는지 주목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아픈 몸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 노화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된 노동 등 살아온 세월에서 아픈 몸의 이유를 찾고 이해한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도 아니고 단일한 이유로 아픈 몸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픔을 다루는 방식도 몸을 보살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병원의 일회적 진단 방식과 다르고 오히려 꾸준히 몸을 보살필 수 있는 체험관과 더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이 꾸준히 의료기 체험관에 다니며 몸을 보살피는 것은 돌봄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1. 노화의 결과가 아닌 고된 세월을 관통한 아픈 몸

의료기 체험관에 다닌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허리, 발목, 어깨, 무릎관절 등의 통증⁵⁰⁾을 호소했고, 당뇨, 혈압, 비뇨계통 질환을 갖고 있다.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허리, 무릎, 어깨 등 뼈와 관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몸의 증상은 대체로 ‘만성질환’으로 분류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발표한 노년 여성의 만성질환 비율은 86.1%에 육박하는데, 이 수치는 마치 “노인이라면 당연히 아프다”는 명제가 당연함을 입증하는 듯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을 포함한 노년 여성들의 아픈 몸의 이유를 두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결론지을 수도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아픈 몸을 살아온 생애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뷰 시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노동경험을 빠트리지는 않는데, 특히 두심, 문희, 여정은 현재의 아픈 몸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신의 과거 노동경험을 연결 지어 이야기한다. 두심은 척추수술을 3번이나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허리와 어깨가 아픈 이유를 “젊었을 때 노가다 일을 해서”라고 생각한다. 경남 지방의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22세에 결혼한 두심은, 처음 결혼한 뒤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남편이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소득 없이 세간살이를 하나씩 팔다가 버티지 못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시누가 있는 경기도의 한 도시로 이주했다.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시누를 도와 일을 시작했는데 여름에는 운영이 잘 되던 가게가 겨울이 되자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었고 외지에서 일을 찾다가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70년대 후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⁵¹⁾를 시작한다. 건설현장에 발을 들인 두심은 공사가 끝나가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소개를 받아

50) 연구참여자들은 “무릎이 우리하다”, “콧콧 쑤신다”는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연구자가 임의로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몸의 상태에 대해 ‘통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기서 “우리하다”는 신체 일부가 몹시 아리고 육신육신한 느낌을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다. 게다가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매일 매시 아픔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참여자들은 어느 날은 아팠다가 어느 날은 아픔이 가라앉는 상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번덕스럽게 꾸준히 아픈 상태를 받아들이고 최대한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애쓴다.

51) 함바는 건설현장에 지은 간이식당을 뜻하는 단어로 일본어에서 유래했다.

경기도의 여러 공사판에서 미장일⁵²⁾도 하고 직접 무거운 모래도 옮겼다. “산모래를 허리에다가 짊어지고 5층까지 밖으로 아시바⁵³⁾ 따라 올라가는데 다리가 벌벌 떨려갔고 다리가 뭉기는” 경험이었다. 공사판에서 실컷 일해주고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종종 달아나 돈이 많이 떼이기도 했지만, 2년 동안 열심히 일해 전셋집을 얻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 부산으로 이주한 뒤에도 마땅한 일을 구하기 힘들었던 두심은 고무신 공장에 취직해보기도 했지만, 일이 잘 맞지 않아 가족을 부양을 위해 다시 공사현장에서 일했다. 주로 장사를 많이 한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두심이 한 노동은 신체노동에 주력되어 있기는 하나, 두심의 묘사에 따르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뭉치는 몸의 경험이었다. 이 몸의 경험을 통해 척추수술을 세 번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현재 허리 건강의 원인을 찾았다.

젊었을 적 노동 환경이 영향을 미쳐 지금의 아픈 몸 경험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터뷰차 자택을 방문할 때마다 추위를 많이 타 보온을 중요시했던 문희는 생애를 구술할 때 질병에 대한 언급이 잦았는데, 현재 아픈 몸에 대해서도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설명했지만, 사실 그의 생애와 아픈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살펴봤을 때 문희의 설명과 달리 아픈 몸을 꼭 노년의 나이 듦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희는 젊은 시절부터 추운 인천 바닷가 앞의 횃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금도 추위를 많이 느끼고 몸의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연안부두는 엄청 춥다.”, “추운 부둣가에서 고생해 몸이 엄청 차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며 추운 곳에서 고생해서 지금도 추운 날이면 뼈가 시리고 몸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증상을 느낀다. 추운 바닷가에서 일한 노동경험이 현재 몸의 증상까지 구성하는 것이다. 여정 역시 30년 동안 늦은 밤 시간대에 술집을 운영해 파킨슨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우리 몸이 밤에는 자고 낮에는 움직이고

52) 건축 공사장에서 벽, 천장, 바닥 등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의미한다.

53)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재료 운반 또는 위험물 낙하 방지 등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거치대다. 흔히 공사현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건물 벽을 둘러싼 가설 거치대를 가리킨다.

(해야 하는데) 거꾸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30년 동안 낮에도 잠에 깊게 들지 못했다. 그래서 저녁에 잠 안 자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도 한다. 밤에 일하고, 아침에서야 얇은 잠을 잘 수 있는 생활을 반복한 여정은 은퇴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자야 4시간”이다. 잠을 못 잔 탓에 생긴 파킨슨 때문에 여정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세월이 다 갔고 얼마 안 남았다”고 느낀다. 여정은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노동경험을 경유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남은 시간까지 한정 짓는다.

그러나 비슷하게 강도 높은 노동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 경험을 아픈 몸의 이유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영옥은 각종 자영업, 공장 노동, 보험판매원, 화장품판매원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노동에 임했는데, 자신의 노동경험에 대해 “내가 하면 뭐든 성공”했다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이 크다. 젊었을 적 크게 열병을 앓은 뒤 항상 잔병치레와 온갖 질병을 달고 사는 남편에 비해 “병원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일한 경험은 아픈 몸과 연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영옥의 자부심이다.⁵⁴⁾

또 노동경험만이 노년 여성들의 아픈 몸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문희는 생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두 번의 유산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스물

54)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영옥이 노동경험을 ‘나의 일’로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일을 찾아가고 심지어 그 일 대부분을 성공시켰기 때문일 수 있다. 2000년대 초까지도 여성의 노동은 생계부양자인 남성에게 비해 덜 긴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되었고, 간헐적으로 비정규직 직업을 갖거나 가족 사업을 돕기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기에 개인의 커리어로 연속성 있게 서사화되지 않는다(전희경, 2012: 145). 거기에 영옥은 부동산 투자 장사까지 성공해 지금도 월세를 받는 집이 있다. 그러나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실패하지 않고 혹은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영옥의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영옥의 남편이 사업을 망치는 등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거나, 영옥이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항상 친척들이 돈을 빌려줬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영옥의 친정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사업이 크게 망한 뒤로 둘은 각자 소득노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가족 부양을 위해 소득노동을 한다고 해도 영옥은 남편의 사업에 귀속되지 않고 분리되어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일을 했고, ‘나의 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가 구매에 대해서도 영옥은 “내 돈으로 사지. 누가 돈 주나 어데. 우리 아저씨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고. 나는 내 돈으로 사고.”라고 말할 정도로 현재까지도 경제적 분리가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 드물게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산을 운용한다.

넷에 결혼해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겪었는데, 여러 고생 중 하나가 바로 두 번 조산하고 세 번째로 아기를 가져 큰딸을 낳은 일이다. 큰딸을 낳은 뒤에도 아들 둘을 더 낳은 문희는 특히 유산을 통해 자궁이 망가졌고 예전에는 젊은 힘으로 살았지만 지금 나이 들어 면역력이 떨어져 추위를 많이 타고 항문과 질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듯한 증상을 보인다는 의사의 주장대로 이해하고 있다. 결국 나이가 들어 이런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문희는 가장 큰 원인을 20대 초반 추운 인천 앞바다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조리하지 못하고 유산한 경험 때문이라 여긴다. 제소희(2021)는 노년 여성들이 산후풍⁵⁵⁾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 증상의 여부가 아니라 ‘자신이 아기를 낳고 제대로 산후조리를 받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산후조리의 충분함은 개인, 세대별로 다르지만 여성에게 부과된 노동에서 면제되고 우선적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된 유일한 휴식 기간인 산후조리 기간에도 ‘최소한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문희가 아이를 낳은 시대에는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아이를 낳고 바로 추운 홧집에서 일해야 하는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아픈 몸을 ‘나이 든 결과’라는 당연히 당연하는 결과로 결론짓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의 생애에서 이유를 찾고 해석한다. 각자 자신만의 서사를 구축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여성들은 아픈 몸을 다스리고자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2. 병원의 “일회적 진단”과 체험관의 “몸 보살피기” 대비

연구참여자들은 젊었을 때부터 오랜 시간 몸을 쓴 노동으로 인해, 혹은 생애의 특정 경험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아픈 몸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의료법 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총 세 가지로 나뉜다. 연구참

55) 출산 후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한의학적 증세다. 산후풍의 증상은 오한, 전신 또는 부분 통증, 수족냉증, 부종 등이 있다.

여자들도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통증의학과를 비롯한 양의학 기반의 병원 및 한의학 기반의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침술이나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의원 등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기 체험관도 함께 다녔다. 의료기 체험관은 의료기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며 의료기기법의 관리를 받는다. 사실상 의료기관으로 명명되는 병의원과 달리 의료기 체험관은 다른 법에 따라 분류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의료기 체험관 경험을 이야기할 때 특히 양의학 기반의 병원과 비교하는 경우가 잦았다. 노년 여성들에게는 의료기 체험관이 의료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타 의료기관과 의료기 체험관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병원과 의료기 체험관은 가장 큰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병원은 방문 시 진료비 및 치료비 등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지만 체험관은 이용 요금이 무료이거나 상당히 저렴⁵⁶⁾하다. 두 번째는 병원에서는 주로 병인의 진단 및 처방이 목적이고 그 진단마저도 “노환”이라고 판단하기 일쑤지만 체험관에서는 병명의 진단보다 아픈 몸을 더 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 번째는 병원은 일회성 진단과 처방이 목적이지만, 의료기 체험관은 오히려 매일 방문하면 상품을 증정하는 등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방문을 권장해 일회적 치료를 통해 아픈 몸이 낫기 어려운 노년 여성들이 매일 방문해 만성적으로 아픈 몸을 돌볼 수 있다.

우선 병원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방문하기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크다. 영옥은 1차 인터뷰 일주일 전 허리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부위가 아파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에서) 일주일 동안 10만 원을 까먹어도 낫지 않았”다. 두심이 다닌 동네의 통증의학과도 1회 치료비용이 최소 5만 원에서 평균 7~8만 원을 호가한다. 병원은 노년 여성들에게

56) 의료기 체험관 이용료를 따로 돈으로 받기보다는 이용자들이 만 원 이하의 식료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등으로 체험관 이용비를 지불하기도 한다. 노년 여성들은 매일 저렴하게 의료기 체험관을 다니면서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가져가는 두 가지 이득을 본다고 느낄 수 있다. 물론 다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기 구매 권유가 잦아질 수 있으나, 하루에 지불하는 일회적인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게 느낄 수 있다.

방문하면 아픈 몸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한 번 갈 때마다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갈 수 없다. 병원은 돈도 많이 지불해야 하지만, 때로는 치료된다는 느낌 없이 돈만 받아먹는 것 같기도 하다. 반면,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의료기 체험관의 일차적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영옥은 이용 요금이 저렴하고, “치료한 티가 나기” 때문에 체험관의 의료기를 좋아한다. 영옥의 체험관에서 인기 있는 레이저 의료기를 사용하는 날에는 이용자들이 서로 먼저 쓰려고 다툰다. 병원에서 비슷한 치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만 원씩 지불해야 하는데, 체험관에서는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일회적으로 병명을 진단하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 처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한 치료의 수순이다. 이 과정에서 노년 여성들은 특히 ‘늙어서 아픈 것’이라는 ‘노환’ 진단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옥은 나이가 들며 이명이 생겼는데, 동네의 잘하는 이비인후과 세 군대를 다녀봐도 전부 노환이라는 답만 받았다. 병원에 가봤자 어차피 이명 증상은 노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 추가로 검사받지 않았고, 대신 의료기를 사용해 증상을 완화시켰다. 여정은 당뇨로 인한 이노증이 있고, 문희는 몸에 찬바람이 들고 관절이 좋지 않은 등 몸이 성치 않은데 모두 ‘늙어서 그런 것’이라고 여긴다. 두심은 척추수술을 여러 차례 받는 동안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모호한 진단을 내려 괴로움을 느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아픈 몸에 대한 불명의 이유와 ‘늙어서 그런 것’이라는 단편적인 진단에서 아픔을 이해받지 못한다.

기존 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은 실제 노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서양의학을 위시한 병원에서 노인 환자의 질병을 경시하고 이야기를 듣지 않는 태도는 익히 알려진 바 있다.⁵⁷⁾ 연구참여자들 역시 병원에 갔을 때 자신의 증세가 그저 ‘노환’으로 진단된 경험이 다수 있다. Frank(2017[2002])와 Klienman(2020) 등은 의학 체계는 환자에 대한 돌봄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로 환자의 아픔에 대한 맥락 파악은커

57) ““그 나이엔 원래 아파요” 의사의 말이 더 아픈 노인들”. 중앙일보. 2017.11.28.

녕 질환명으로 몸 상태를 진단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의학의 남성중심성을 지적하는 페미니스트 관점의 연구들(Nettleton, 2009[1995]; Ehrenreich&English, 2017[2005])이 있다. Dusenbery(2019[2018]) 역시 의사들이 여성의 몸과 건강 문제를 잘 알지 못하며, 여성의 증상 호소를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료체계에는 정작 환자의 아픔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공백이 있다. 특히 퇴원 이후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전환기 관리의 경우 마땅한 의료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전환기 정보 수집, 복약 지도, 증상 대응 등의 전환기 의료서비스 대부분이 가족이 부담한다는 지적(백상숙, 2018)이 있다. 그만큼 의료기관에서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전, 사후적 조치가 없는 것이다.

의료기 체험관에서는 아픈 몸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만들어준다. 문희는 치질수술을 받은 뒤로 추위를 더 많이 타서 의료기 체험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특히 의료기 체험관에서는 온열기 등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계들을 주로 이용할 수 있어 추위를 많이 타는 문희의 증상에 알맞다. 또 문희에게 의료기 체험관에서 일상적으로 “몸을 낮게” 하는 일은 노년에 더 심한 아픔을 겪는 등 고생의 예방 차원으로 받아들인다. 문희는 의료기 체험관에서 이용하는 의료기에 대해 ‘예방’이라는 단어를 거듭 반복해 설명했다.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의료기를 사용하지만, 몸이 그나마 괜찮을 때 유지하기 위해,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 혹은 “나이 먹어갔고 이게 정말로 늙어가는 판에 그것도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제 가서 써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이제 예방 차원도 있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늘 춥고 관절이 있고 그런 게 더... 지금 많게는 못 해도 조금은 좋아져. 막 병이 나고 어디가 다쳐분 것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금방 낫는데 우리 같이 오래 연식이 된 사람들은 잘 안 낫어. 뭘 해도. 근데 안 한 것보다는 좋지. 더 하지는 않지. ... 그러니까 체험관은 미리 예방 차원이고 그냥 나이 먹은 사람 따뜻한 게 좋고 그런 거고 병원이야 급한 것도 약

으로 다 다스려주잖아. 그 차원이지. (문희 2차: 45~47)

문희는 급한 약은 병원에서 바로 처방받을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크게 아프기 전에 관리하기 위해 체험관을 간다고 생각한다. 또 의료기 체험관에서는 이용자들의 몸 상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려주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아픈 몸을 조금이나마 낫게 만들 수 있다.

(의료기 체험관은) 여러 가지 다 하니까. 정형외과는 뭐 되면 두 가지 밖에 더 있다. (연구자: 이거 부항 뜨는 거랑 이거 찌지는 거?) 찌지는 거 내가 뭐 해놔 놓고 찌지묵고. 레이저 불 몇 개 들어오는 거로 이 기계가 있다. 그거 몇 개 있는 그거 등에 딱 이리 대놓고. (정형외과 의사가) “느낌 없습니데이” 이렇게 레이저 등에 들어간다 하고 이래가지고 5분인가 이렇게 하고 나면 땀해뵈다이가. 이런 거(의료기)는 내 손으로 마 내가 막~ 이래 하면 좀 세게 하면 얼마나 시원하다고! 이게 하면 무릎에 하면 발끝이 떨려. 그래 좋다. (영옥 1차: 28)

영옥은 의료기 체험관에서는 병원보다 다양한 의료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짧은 치료에서 끝나지 않고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부위에 내가 직접 의료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매일 가서 “만족스럽게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의료기 체험관을 일상적으로 다니며 몸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곳이라고 이해한다. 의료기 체험관의 의료기는 예방 차원이고 낫는 건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몸이 좋다는 느낌을 받는다. 단순히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넘어 사후적으로 충분한 치유가 불가능한 여타 의료기관의 한계 속에서 체험관에서 노년 여성들은 의료기를 통해 특히 만성질환을 완화할 여지를 만든다. 영옥은 “의료기 체험관에 가서 치료하면 하루는 안 아프다.” 두심도 여러 차례 허리 수술 경력이 있기에 평소 몸이 아프기는 하지만 의료기 체험관에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덜 아프고 몸이 가벼워져서 처지는 느낌이 없어서 좋다. 즉, 의료기 체험관은 일시적이지 않게 평상시에도 노년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이다.

3. 돌봄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아픈 몸 다스리기

의료기 체험관에 다니는 연구참여자들처럼 꾸준히 몸을 보살피는 행위는 노년 여성의 특징으로 보인다. 문희는 남편에게 계속 의료기 체험관에 함께 방문하기를 권했지만, 문희를 의료기 체험관 앞까지 데려다주는 해도 체험관에 들어가 의료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연구자 : 아버님은 같이 안 가세요?) 같이 안 가 절대 안 가. 처음에는 내가 하도 추워 추워 허니까 사라고 허락해 놓고도 나중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막 안 하더니 우리 딸이 인제 허리를 나사가꼬. 저기 가고 어찌고 허고. 처음에는 빠져갖고 인자 이런 것을 비싸게 주고 샀나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아주 좋아라 하니까 좋아해 지금. (연구자 : 같이 하시고?) 응. 같이 하시고. 근데 우리만큼은 많이는 안 해 남자들은. **급할 때만 해요. 어디 손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해.** (연구자 : 급할 때만 (웃음)) 응 **급할 때만 우리는 막 수시로 하는데 급할 때만 해.** (문희 1차: 39-40)

수시로 의료기를 사용하는 문희와 급할 때만 의료기를 찾는 남편의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노년 여성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아픈 몸을 다스릴 줄 안다. 문희의 자택에 방문했을 때 의료기가 거실에 놓여있었는데 문희는 TV를 보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의료기를 많이 사용해 아픈 몸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반면, 문희의 남편은 다쳤을 때 빠른 치료를 기대하며 급히 의료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아픈 몸을 보살필 줄 아는 사례는 문희의 딸이 허리를 다쳤을 때의 일화에서도 나타난다. 문희는 캐나다에 사는 딸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출국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허리를 삐어 집에서 사용하는 의료기를 가지고 허리에 계속 따뜻하게 해주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딸의 허리에 의료기를 대고 문질러준 결과 멀쩡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왔다.

앞서 연구참여자들이 대체로 허리, 무릎, 어깨 등 뼈와 관절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명확히 염증을 치료해 통증을 영구히 없앨 수 없는 부위들로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아픈 몸에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함을 중요히 여기는 노년 여성들의 앓은 아픈 몸을 대하는 젠더화된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남성들과의 태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데, 남성들은 아파도 여성들과 달리 체험관에 가지 않는다. 문희의 남편은 문희가 그렇게 체험관에 같이 가자고 권해도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문희에 따르면 체험관에 가는 남성들은 그나마 “마누라 말 잘 듣는 사람”, “용화가 잘 되는 사람”이다. 신유정(2013)은 기운이 없을 때 이용하는 링겔(수액)을 맞는 관행에 대체로 여성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병원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주사를 놓는 기술을 가진 “주사아줌마”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링겔을 맞는 경우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어야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남성들은 대체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 가족구성원의 도움으로 링겔을 이용했다. 여성들은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을 갖고 몸을 돌보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동네 여성들이 링겔 맞을 수 있는 곳을 서로 공유하고 알리는 것처럼, Boneham&Sixsmith(2006)는 영국 북부 지방의 취약계층(disadvantaged group) 노년 여성들이 자녀가 유아기일 때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가 될 때까지도 가족의 건강에 대해 책임지며 평생 어머니 노릇을 해왔고 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있음을 발견한다. 어머니들은 가족이 아플 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시도하는데, 동네의 다른 여성들과 건강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한 뒤에 시도한다. 이 노년 여성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계급적 특성이 반영되어 한정적인 자원을 가진 상황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들만의 방법을 강구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년 여성들이 수십 년간의 어머니 노릇을 통해 가족의 건강을 돌본다는 점이다. 그들의 앓은 건강 기반의 호혜적인 관계와 모성의 감각(a sense of motherhood)에 깊이 얽혀있었다 (Boneham&Sixsmith, 2006: 277). 이처럼 노년 여성들은 어머니 노릇

을 통해 어떻게 건강을 돌봐야 하는지 안다. 노년 여성들은 단박에 낫지 않는 몸 상태를 이해하고 있고, 몸을 꾸준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노년 여성들이 의료기 체험관을 꾸준히 다니며 자신의 아픈 몸을 이해하고 대하는 태도와 연관된다.

제2절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나이 없는 주부생활

체험관의 직원들은 매일 의료기 체험관을 방문해야 의료기의 효능을 느낄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독려하는데, 단순히 말로 설득할 뿐만 아니라 매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출근 도장 등을 찍어주고 하루, 일주일 단위로 생활용품들을 증정해 노년 여성 고객을 유치한다. 오랜 세월 동안 알뜰하게 가정 경제를 꾸려온 여성들에게 체험관에서 증정하는 생활용품들은 가정에 보탬이 되는 반가운 선물들이다.

1. 부업 노동의 연장선으로서 증정품 취득

노년 여성들이 의료기 체험관의 생활용품 증정을 반갑게 여기는 것은 현재까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온 삶과 관련된다. 앞서 노동과 아픈 몸의 연관을 살핀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맡아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여느 산업화 시대의 어머니들처럼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다. 영옥 역시 억척스럽게 가정을 일궈는데, 시간순으로 영옥의 노동경험을 정리해보자면 고추 방앗간 및 얼음 장사, 방앗간, 남편의 철공소 공장 보조, 건어물 장사, 야채 도매, 빵 도매, 고무공장 노동자, 보험수금원, 화장품판매원, 분식 장사 등이 있다. 남편의 형제들인 시누와 시동생들까지 함께 살아야 했던 영옥은 특히 10명이 넘어가는 대가족의 부양을 위해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더 곤두세웠다. 특히 가족들의 학업과 직장을 고려하며 대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찾으며 부산에서만 이사를 13번이나 다니며 부동산 시장에도 민감해졌는데, 80년대 “부동산이 한창 일렁일 때”를 감지하여 부동

산 장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영옥은 50년 전에 처음 부산에 내려와서 살았던 집부터 장사를 위해 얻었던 건물까지 모든 건물의 보증금과 월세를 외우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몰두해있었다.⁵⁸⁾ 영옥은 남편의 공장 사업이 부도가 난 뒤 이사 간 동네에서 한 분식 장사가 성공했는데, 당시 사업 부도 이후 남편의 별이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세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야겠다는 목표로 악착같이 벌었다.

많이 안 벌리니까 뭐로 해갖고 많이 벌어야 영감은 능력이 마 쪼개 벌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야 저 아들 서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뭐시라도 뛰어 들어보는 기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치아뿌고. 완전 치아뿌고. 그래가 맨 끝에 그 장사한 거로 성공을 했는 거야. 그거 잠깐만 십 몇 년 해도 그게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때만 해도 뭐 이 골목 뭐 한 개도 없었다. 꼬지 맨 처음에 누가 와서 꼬지를 한번 해봐라 이라데. (영옥 2차: 32)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자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분식을 포장할 흰 봉투를 비닐봉지에 넣는 작업을 할 정도로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장사 생각뿐이었다. 영옥은 끝까지 도전해서 마지막에 성공하고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마련해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영옥뿐만 아니라 두심은 공사장, 고무공장에서 일했고, 문희와 여정은 자영업으로 본인의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들은 고용조건이나 노동 환경이 고정적이지 않은 고강도의 신체노동에 임했다. 두심은 자신의 노동경험에 대해 “지금은 그래도 여자들도 할 일도 많제.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일을 구할 길도 없었다”고 설명하는데, 이 말처럼 노년 여성들은 자금이 없고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여성을 고용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

58) 영옥은 지금도 월세로 내놓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연구자와 함께 인터뷰 장소로 이동할 때 전봇대에 붙여진 부동산 매매 광고지를 하나씩 유심히 볼 정도로 여전히 부동산에 몰두하고 있다. 또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평생 후회가 없는데 그거 하나 후회된다”고 거듭 반복할 정도로 여전히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은 상황에서 불안정하고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 놓여있었다. 강이수(2007)는 산업화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해 이 시기의 여성 노동시장 변화를 연구한 바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을 시작한 시기인 60년에서 70년대 후반, 기혼여성취업자들은 무급가족 종사자⁵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족 단위로 노동해 생계를 이어갔으며 이러한 노동 환경에서 일과 가족의 분리가 불분명했다. 이 시기 기혼여성들은 행상, 자영업자, 영세 상인 등 극소규모의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도 적지 않은 수 종사했으며, 일과 가족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신경아, 2007: 19).

이렇듯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무색하게 산업화 시기에도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에 임했다. 영옥의 남편은 지역까지 확장해가며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부도를 냈는데, 그 이후 계속 별이가 시원치 않았다. 부도가 난 뒤에도 별이가 마땅치 않으니 사업할 때와 이후에 쪼던 빚 탕감은 전부 영옥의 몫이었다. 게다가 그 시기에 삼남매 대학을 보내야 했는데, 더욱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셋 모두 대학을 보냈다. “무조건 아아들 굶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아무거나 했지. 무슨 일이 있다면 완전히 쫓아 댕기면서 했지.”라는 두심과 “내가 안 해본 기 없다. 오만 거 다 해봤다. 우리 아아들 공부 서이 다 시킬라고.”⁶⁰⁾ 일한 영옥처럼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지해냈다.

여러 노동경험과 부동산 장사를 통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는 영옥이 체험관에서 증정하는 고작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물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성 노동의 특징과 연관된다. 앞선 논의처럼 여성들은 불규칙하고 비정규적인 노동에 임해왔고 영옥 역시 그러하다. 특히 과거

59)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 분류에 따르면 무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족관계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 ‘임금근로자’에 해당된다. 예컨대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사장 업무에 준하는 일을 해도 사장이 아닌 경우 가족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으로서 무급가족 종사자가 될 수 있다.

60) 아아들은 아이들의 경상도 방언이다. 자식 셋 공부 시키려고 무슨 일이든 했다는 뜻이다.

에도 품앗이 등 자잘한 노동을 해오면서 돈을 적게 여러 일을 하며 벌어들였는데, 이렇게 증정품을 받는 것 역시 여러 부업을 겸하는 자잘한 노동처럼 보인다. 특히 전후 및 산업화 초기 여성들은 소득노동과 자녀 부양 등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해 두 노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꾸려야 했고(차철욱, 2015; 김미선, 2021) 여러 노동이 가중된 상황에서 여러 부업을 겸업해 조금이나마 집안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다. 의료기 체험관에서 받는 생활용품들 역시 단순히 소득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가정에 쓸모 있는 물건들이고, 이는 노년 여성들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오랜 노동의 습성과 연관된다.

2. 나이 없는 알뜰한 주부의 습성

체험관에서는 노년 여성들이 꾸준히 방문하게끔 매일 체험관을 방문할 때마다 생활용품 위주의 상품을 주고, 일주일 내내 방문하면 더 큰 상품을 주는 전략을 펼친다. 또 체험관 이용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 대신 체험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을 값싸게 사게끔 종용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도 매일 체험관에 가서 휴지, 화장품 등의 생활용품들을 받아오고, 설탕, 소금, 깨 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혜자의 체험관에서는 빠지지 않고 10번 연속으로 방문하면 휴지와 비누를 증정했다. 두심은 체험관에서 설탕과 비누를 받고 김치통, 소쿠리, 수저통 등을 샀다. 평발에 좋은 깔창 같은 부가적인 의료기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는 앞서 80년대 후반에 실린 신문기사의 의료기 대리점 광고에서 의료기를 구매할 시 집에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채소재배기나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는 홈요구르터 같은 증정품을 함께 주는 것과 유사한데, 이 상품들은 가족들의 건강관리 맡는 여성들의 가족 내 역할(장현정, 2004)을 보여준다. 두심은 N 의료기에서 증정 및 판매하는 비누를 사용하고 오랜 고질병인 피부염증이 나왔고, 비슷하게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들도 쓰게끔 했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 중에서도 의료기 체험관에서 주는 사은품들을 인상적인 일

정도로 많이 언급한 영옥은 인터뷰 내내 체험관에서 주는 물건들을 자주 언급하고 좋아했다. 영옥이 의료기 체험관에서 몇천 원씩 주고 사 온 물건들은 다른 참여자들에 비교해서도 독보적으로 많은데, 떡, 소금, 깨, 설탕, 보리쌀, 찹쌀, 고사리, 떡국떡, 원석⁶¹⁾ 등이 있다. 영옥은 “깨 주면 제일 반갑”게 여기는데, 1차 인터뷰 당시 의료기 체험관 다니기를 그만둔 지 1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아직 집에 깨가 남아있었다. 체험관에서 가래떡을 뽑아 사람들에게 싸게 나눠준 일을 기억하며 “떡국 떡이 5kg에 천 원밖에 하지 않았”다고 좋아했다. 두심도 체험관에서 사고 받은 김치통과 소쿠리에 음식을 담아두면 쉽게 상하지 않고 싱싱하게 유지된다고 좋아했다.

나무 밑에 그런 데 우리 아저씨도 바둑두러 잘 간다~ ●●동도 가고. (연구자: 거기도 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주지는 않지. **그런 거 받으러 가지는 않지 할매들맹크로(할머니들처럼).** (영옥 3차: 15)

반면 체험관의 생필품 증정과 할인 전략이 노년 남성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옥의 남편 역시 영옥과 함께 의료기 체험관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동네의 다른 체험관을 자주 방문한 경험이 있고 의료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옥의 남편은 영옥 또래의 노년 여성들처럼 체험관에서 주는 상품들을 받는 목적으로 방문하지는 않는다. 의료기 체험관의 증정 및 할인 전략은 특히 노년 여성의 주의를 끄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년 여성들이 오랫동안 어머니이자 “주부”로서의 가정 경제를 담당할 세월과 연결된다. 김선미·이기영(2006)은 주부의 가정 경제 관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이뤄짐을 발견한다. 주부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하는 방식’,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비교해 구매’, ‘무료 샘플을 주워 모으기’,

61) 원석은 의료기 체험관에서 나눠주는 효능이 있는 돌이다. 영옥은 시들어가는 화분에 원석을 두었더니 꽃이 활짝 피었다고 좋아했다. 연구자의 할머니 역시 열흘 정도 체험관을 다닌 경험이 있는데, 체험관에서 나눠준 원석을 들고 와 원석으로 김치를 누르면 잘 익을 것이라며 김치 위에 원석을 올려두었다.

‘싼 곳을 찾고자 할인점들을 여러 군데 비교하고 다님’ 등의 방식을 통해 가정의 경제를 상세히 관리한다. 체험관의 무료 증정품과 행사상품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돈으로 교환되는, 가정에서 쓸 수 있고 보탬이 되는 자원들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들을 자원이 된다면 받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태도는 노년 여성들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관리한 습속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노화”, “나이 들어서 아프다”고 설명하던 연구참여자들이 주부 정체성은 나이도 없고 기한도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가족의 시간 중심의 생애 전망과 서사화는 여성들에게 익숙한 나이 듦의 인식 틀(전희경, 2012: 142)로 이 여성들에게 주부로서의 서사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은퇴 없고 나이 없이 이어진다.

3. 증정품 획득에서 이어지는 재미와 효능감

영옥은 2년 내내 의료기 체험관을 다닌 경험을 두고 “그거 2년 땡겨서 선물 받고 한다는 게 대단하다. 그거 결근 안 하고”라고 말하며 자신의 체험관 개근을 자랑한다. 2년간 H 의료기를 다니며 “결근”하지 않고 계속 다니는 사람에게는 자잘한 식료품이나 화장품 등의 선물을 주기 때문에 오전에 일이 있으면 오후에, 오후에 일이 있으면 오전에 일정을 조정해가며 열심히 출근 도장을 찍었다. 영옥은 불일이 있으면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다닌 출근 도장 체제에 대해, 또 그 체제를 통해 받은 경품들을 하나씩 읊으며 상당히 즐거웠던 경험으로 기억한다. 이렇듯 체험관에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상품들이 영옥에게는 일상의 효능감과 성취감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옥이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자신에 대한 인식과 결혼 후 가족을 꾸린 뒤의 삶과 연결된다.

영옥은 어릴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 달리 머슴과 함께 꼼꼼하게 모내기할 만큼 부지런하고 “애살맞은”⁶²⁾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애살맞았던 영옥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에도 성공한 삶을 살

6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애살은 경남 방언으로 “보기에 군색하고 애바른 데가 있다”며 셈이 많다는 단어로 정의하지만, 여기서 영옥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라는 뜻에 가깝게 사용했다.

았다고 평가받는다.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아본 적이 없는 영옥은 첫 번째 만남부터 자신이 복지관의 난타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난타를 연습한 영상을 보여주며 “구 대회에 나가 금상을 탔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세 번째 인터뷰 전 주말에 일정을 조율할 때도 “난타 대회도 나가야 하고 할 것이 많아 바쁘다”는 일정을 말하며 지금도 본인이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영옥에게 증정품을 받으러 가는 체험관은 일상에서 해야 할 하나의 일이 되고 이는 ‘성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영옥은 온갖 장사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집안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때처럼 지금도 이 성취를 통해 여전히 집에 보탬이 되고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혜자 역시 체험관에서 파는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 “휴지, 비누 같은 걸 줘야 할매들이 온다”며 “만 원 할 거 3천 원 주고 사는 재미”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돈 한 푼 쉽게 벌지 않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주고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방문하기만 해도 무엇을 준다는 보상이 온다는 것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노년 여성들은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신이 얻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쁨을 얻는 것이다.

제3절 일상이 된 체험관 다니기의 즐거움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자식들이 취직과 결혼 등으로 분가하고, 소득노동을 은퇴하며 가족 부양 부담이 줄어들며 처음 체험관을 다니게 되었다. 그전까지 하루가 소득노동과 가족 돌봄으로 채워진 여성들에게 여가 활동을 즐길 시간은 사치에 가까웠다. 현재 의료기 체험관에 다니는 노년 여성들은 매일 체험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자리와 정기적으로 열리는 노래자랑대회, 효도잔치 등의 행사에 참여해 즐거움을 얻고 건강강연을 들으며 지식을 배우고 얻는다. 특히 체험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효도하는 듯한 대우를 알 수 있는데, 노년 여성들은 다른 곳보다 더 편하게 일

상적으로 체험관을 방문한다. 매일 성실히 체험관을 방문하고 건강 관련 지식 등을 배우며 여성들은 근면한 생활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낀다.

1. 가족 부양으로 인한 한정적인 나만의 시간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면서 여가활동 등 개인 시간을 즐기지 못했다. 문희는 48세에 가게를 정리하며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비교적 빨리 소득노동에서 은퇴했으나 한창 횡집을 운영할 때는 바빠서 횡집 일 외 다른 활동을 즐기지 못했다. 영옥은 H 의료기에 다니기 이전에도 친구들이 의료기 체험관에 다니기를 권해 잠시 방문해보았지만 “아 키아고 하느라고 내가 갈 여가 어딴노”⁶³⁾라며 일할 당시 체험관을 잠시 다니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했다. 한창 돈을 벌 때는 막내딸 졸업식에 다녀와서 가족끼리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바로 가게를 열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 하루라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놀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여정은 밤에 술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낮에 시간이 있어 지역의 복지관에서 여는 운동프로그램에 등록했지만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해 한 달 만에 그만뒀다. 두심 역시 젊었을 때 먹고 사느라 바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과 동행해 동네의 부부계에 자주 다녔는데 부부계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남자들이 술 마시는데 가만히 앉아있어야 해서 어려운 자리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소득노동의 은퇴 등 가족 부양 부담이 줄어든 뒤에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름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대체로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과 종교활동이다. 문희는 횡집 장사를 끝내고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 매일 일찍이 새벽기도를 가고 시간 나는 대로 행사나 전도활동에 참여했다. 그 시기에 교회 식구들과 같이 체험관도 다녔는데, 소득노동 은퇴 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두심과 영옥은 동네 복지관을 다녔는데, 둘 다 비슷하게 복지관

63) “애 키우고 하느라고 내가 (의료기 체험관에) 갈 여유가 어디 있냐”는 의미다.

에서 노인대학, 요가, 노래교실, 우리춤, 난타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의료기 체험관을 다닐 때는 오전에는 의료기 체험관,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는 것이 일과였다. 두심은 자식 부양을 끝내고 남편과 사별한 뒤 체험관에서 노래 부르는 시간을 즐기고, 고향 친구들과 노래연습장도 종종 다니며 사람들 사이에 끼여서 노는 것을 즐겼다. 또 두심은 소일거리로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⁶⁴⁾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 여정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민요 프로그램과 사설 웃음치료 수업에 다니는 중이고, 혜자도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다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발표하는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시행된 조사의 경우 한국 노인 여가문화활동의 1순위는 TV 시청이 82.4%로 TV 시청이 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후 2017년부터 시행된 실태조사는 노인 여가활동 현황이 과대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문화예술관람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은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했다.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분리한 뒤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표본 노인 중 96.6%가 TV 시청 또는 라디오를 청취하고, 1일 평균 4.2시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코로나19 유행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유추되지만, 노인들에게 여전히 여가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는 수치다.

노인들의 일상과 여가활동이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점도 알 수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인들이 가장

64) 연구참여자들이 노인 공공근로라고도 부른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노동 시 27만 원을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사업이다. 동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순찰, 취약노인 가구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동네의 갖은 일들을 도맡는다. 두심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독거노인 가구에 방문해 말벗과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했고, 혜자는 기계의 부품을 끼우는 일을 맡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소일거리와 용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만족했으나,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복지사업을 표방하며 싼값에 노인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문제는 지적해야 할 사안이다.

많이 참여하는 적극적 여가활동은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취미오락활동이다. 휴식활동에는 산책, 음악감상 그리고 기타에 포함되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있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는 종교활동, 그 외 사회활동, 기타활동이 있는데, 그 외 사회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되고, 기타활동에는 종교활동과 그 외 사회활동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가활동이 들어간다. 취미오락활동에는 화초·텃밭가꾸기가 가장 높은 순위에 들었고 이외에 등산, 화투·고스톱, 기타(수집활동, 생활공예, 요리,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높은 순위에 들었다. 이 중에서 체험관 방문은 분류하자면 사회 및 기타활동의 여러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디에도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활동이기도 하다. 단순히 노년 여성들의 여가가 부족한 현실을 짚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년 여성이 현재 여가활동의 실태와 여가활동의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의료기 체험관 프로그램을 여성들이 어떻게 여가활동으로 받아들이며 향유하는지 초점을 맞춘다.

2. “효도” 기반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일과와 보답의 마음

의료기 체험관에서 노년 여성들이 시간을 보내며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활동과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매일 체험관에서 참여하는 활동으로는 건강강연과 노래 부르기 그리고 점심 식사 등이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는 고객 유치 잔치, 우수 회원들을 초대하는 효도잔치, 의료기 공장 견학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의료기 체험관을 이용하고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동안 체험관 이용자들은 체험관 직원들로부터 일종의 “효도 대접”을 받는다.

의료기 체험관 이용자들은 대부분 체험관에 출근하듯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체험관 가는 것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연구 참여자들 역시 의료기 체험관을 “다닌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영옥이 다닌 체험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체험관 앞에서 줄을 서는 여성들이 많았다. 체험관이 아침 8시에 문을 여는데 애매하게 줄을 서면 이용 순서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고자 5시부터 체험관 문 앞에서 기다리는 여성들도 있었다. 체험관의 문이 열리기를 새벽부터 기다리는 여성들과 연구참여자들에게 체험관 다니기가 일종의 소일거리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다.

그래 재미로 안 가나.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거 가면 뭐 에어컨 있고 시원하고 좋으니까 가고. 거 가면 또 치료를 하면은 코로나 예방도 된다 캐가꼬 맨날 거 가고 그랬다. 그 기계들이 전파가 세기 때문에 거서는 그리 코로나가 없더라고. 그래 땡기고 코로나 있을 때는 진짜 거~ 밖에 갈 데가 없거든 집에서. 코로나 있을 때는 복지관을 가나 어딜 가노. 그 거 매일 갔지. (영옥 3차: 23-24)

혼자 가만히 집에 있으면 무료한데 체험관에 가면 강연하면서 재밌게 해주고, 에어컨도 틀어서 시원하게 해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부양의 부담이 줄어든 이후부터 복지관, 교회 등에서 일과를 보내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상의 터전들을 마련해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구축해둔 일상이 무너졌다.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고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명령이 이어져 지역 복지관이나 종교시설 등은 문을 열지 못할 당시, 체험관은 운영을 유지했고 영옥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하니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체험관을 다녔다. 고령 여성노인의 경로당 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김정수, 2017)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경로당 회원들은 경로당에 가지 않는다면 병원 이외에 달리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경로당처럼 체험관에 다니는 노년 여성들도 사람을 만나고 매일 밖에 나갈 수 있는 구석이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노래 부르기 및 노래자랑대회와 의료가 이용을 마치고 함께 하는 식사는 이용자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준다. 건강강연을 마친 뒤에는 강연에 사용하는 노래방 기계 마이크로 반주를 틀어 종종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그런 날이면 두심은 “잘 튀어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영옥의 체험관에서도 노래 부르는 날은 “어찌다 한 번씩” 있는데, 기본

적으로 건강강연 전에 ‘건강박수’를 같이 치며 건강과 관련된 노래 불렀다. 영옥은 이를 두고 “할머니들은 딱 놀기 좋은기라”고 여긴다. 영옥의 체험관에서는 식사시간에 이용자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각자 집에서 반찬을 챙겨 와 서로 나눠 먹기도 했다. 또 이용자들이 돌아가며 빵튀기, 옥수수 등의 간식을 사와 나눠 먹었다. 영옥도 취나물과 김치 등의 반찬을 챙겨 이용자들에게 나눠준 경험이 있는데, 영옥이 만든 반찬을 다들 맛있다고 먹어 뿌듯함을 느꼈다.

자주 진행하는 행사 외에 가끔 개최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처럼 의료기를 제작하는 본사 공장에 견학가기도 한다. 혜자는 부산의 체험관에서 경기도에 있는 본사 공장까지 관광버스를 빌려 관광 간 경험이 있다. 공장에 도착해서는 의료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경하고, 밥도 얻어먹고, 공장에 있는 큰 방에서 의료기를 이용해보기도 했다. 경기도까지 가면서 차에서 놀고, 먹고, 도착해서 의료기까지 사용해본 즐거운 기억이다.⁶⁵⁾ 두심의 체험관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가래떡을 나눠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잔치를 열었다.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체험관 단위가 아닌 의료기 회사에서 지역별로 여는 행사도 있다. 체험관 이용자라고 모두가 잔치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체험관을 이용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하고 오래 방문한 사람들을 위주로 초대한다. 두심도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기 회사에서 여는 “효도잔치” 행사에 초대되어 참석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열린 효도잔치는 출장뵈폐를 불러

65) 혜자의 고향과 시집은 경북 소도시에 위치하고, 돈을 벌기 위해 부산으로 이주해서도 도심이나 다른 동네와 인접하지 않은 동네에서만 50년 가까이 살고 생활했다. 그런 혜자에게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여행을 가는 건 즐거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 부양하느라 정신없이 산 여성들은 고향에 계속 거주하다가 결혼 이후 특정 지역에서만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혹은 여행 등의 경험은 거의 없다. 참여자들의 이주의 궤적을 따라가면 출생지에서 원가족과 함께 살다가 결혼 후 지역을 이주했다. 특히 혜자는 경북의 농촌에서 태어나 결혼 전까지 살다가 결혼 후 같은 시에 있는 시집으로 이사 간 뒤 도시로 나오고자 부산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부산에서도 교통이 좋지 않으며 귀퉁이에 있는 지역에서 40년 이상 이사하지 않고 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가족의 형성으로 인한 이주 후 정착의 과정을 거쳤다. 결혼으로 이주한 뒤 다시 자식들과 손주들의 돌봄 문제로 인해 자식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노년 여성들의 이주 경험이 가족과 연결되어있음을 시사한다.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도 증정하고, 가수들을 불러 공연도 진행하고, 참석자들이 다 같이 춤추면서 즐기는 행사다.⁶⁶⁾ 두심은 뷔페도 대접하고, 가수도 초청하는 효도잔치를 두고 “돈이 확실히 많이 들겠지”라고 생각한다. 평소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의료기를 구매하도록 해도 그 돈만큼 충분히 대접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두심이 다녀온 효도잔치 영상은 N 의료기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있는데, 영상에서 두심이 다닌 체험관 원장은 효도잔치 소감에 대해 “고객들을 친부모처럼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두심의 의료기 체험관 원장뿐만 아니라 의료기 체험관의 사장과 직원들은 체험관에서 노년 여성들이 친부모처럼, 마치 어머니처럼 대접받는다고 느끼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체험관에서 살뜰한 대접을 받았다. 혜자가 다닌 의료기 체험관의 센터장도 할머니들이 체험관과 사장에 “정이 가도록” 잘 대접한다.

입담이 좋고 자기가 수단도 좋아야 되고. 자기가 뭘 수단이라도 내한테 남는 게 많아야 그 하지. 그런 거는 (어리)숙하게 해가지고는 자기 본전도 밀진다. 센터장이 잘하더라고. 똥똥한 게 나이도 어린데도 마할매들 어머니들을 잘 이렇게 잘 다뤄. 막 정이 가도록. 정이 막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이 우리가 “저 센터장 잘한다.” 박수도 쳐주고 막 이래 하지. 그 톡톡거리고 이러면 할머니 또 누가 가냐 아무도 안 간다. (혜자 1차: 29)

두심이 가장 최근에 다닌 체험관의 원장은 “호인”이다. 그는 의료기 체험관을 세 군데 다녔는데 “다른 데는 원장이 고마 강의만 하고 딱 들어가빠”고 “강의 해주러 나오면 원장이 무슨 대통령이나 나오는 식”으로 굴었는데 N 의료기 원장은 편안하게 모시고, 누워있으면 이불을 덮어주며 자세도 바르게 해주고, 간식이 생기면 꼭 체험관으로 가져와 이용자들에게 나눠준다.

66) 이는 의료기를 구매한 장기 이용자들을 대접하고 체험관 방문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회사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노년 여성들의 여가활동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열심히 자신과 노년 여성 이용자들을 돌보는 체험관 사장을 보며 그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미안함,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두심은 체험관 사장이 힘들게 장사하는 것을 보며 금방 돌아오는 월세 날이 버거웠던 과거 어려운 시절이 생각난다. 또 사업이 힘들었던 아들을 떠올리며 “월급 나오는 곳이 편하지. 사업하면 너무 힘들다”고 체험관 원장을 안쓰럽게 생각한다. 혜자는 체험관 센터장을 보며 “어린 애 들 데리고 일하는 거 보면 돈이라도 얼른 벌었으면 좋겠다. 자식 (같은) 그런 생각도 든다.” 체험관 사장이 이용자들을 응대하고 대접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보기에 유난스러운 이용자들이 있다. 혜자는 센터장에게 의료기를 사용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따지는 사람도 있었고,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이용자들을 다 다뤄서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초기에는 의료기 이용 순서가 없어서 이용자들끼리 서로 의료기를 먼저 이용하려고 싸움이 나서 이후 센터장이 이름표를 만들어 나눠주고 이용 순서를 정했다. 두심도 한 이용자가 원장에게 체험관에서 산 매트에 박힌 돌의 수가 체험관에서 쓰는 매트보다 적다고 따지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는 원장을 두고 “우리가 볼 때는 딱 선생이나 할 스타일인데, 해 먹고 살라니 할매들 다 비위 맞춰주면서 참 고생”이라고 생각한다.

제멋대로고 고집 있는 이용자들을 다루는 체험관 사장을 고생하는 자식처럼 안쓰럽게 여긴다. 실제로 두심이 다닌 체험관의 노년 여성들은 원장을 아들 같이 챙기고 싶은 마음에 국이나 반찬 등을 싸서 들고 왔다. 이는 체험관의 어머니 대접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열심히 노년 여성들을 돌보는 의료기 체험관 사장을 기특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더 혹은 매일 가서 의료기를 이용하고, 구매한다. 혜자는 “결근 안 하고 가면 또 자기네도 좋아하고. 그만큼 당겼다는 거. 처음인데 그만큼 당겼다는 거 자기도 기분 좋아하고.”라고 말하는데, 노년 여성들은 편안하게 대접해주는 체험관 사장의 서비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도 매일 체험관에 간다.

3. 출근체계와 배움이 이끄는 근면한 생활의 즐거움

의료기 체험관 직원들의 ‘효도’와 유사한 대접과 정기적 방문의 촉구를 통해 노년 여성들은 병원 등 다른 공간과 달리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매일 체험관을 갈 수 있다. 노년 여성들이 체험관을 매일 다니는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체험관에 가지 않으면 “결근”, 체험관에 다니면 받는 도장 등을 “출근 도장”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이 꾸준히 체험관을 다니는 일상은 배움과 근면한 생활을 유지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진다. 두심은 체험관에 가면 “축 처지지 않고 몸이 개법다는 느낌”인데 실제로 아픈 허리에 의료기가 효과를 보여 신체적 반응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는 신체적 반응보다 매일 체험관에 방문하며 느끼는 인식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코로나19 유행 직전까지 약 20년 동안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을지라도 C 의료기, 숯 찜질 체험관, 그리고 N 의료기까지 꾸준히 다녔다. 그렇게 여러 의료기 체험관을 한 번 가면 꾸준히 다닌 자신에 대해 “나도 참 대단하지. 많이 옮기고 땀겨지. 한 번 가면 그렇게 땀 데 안 가고 꾸준히 가지”라고 평가한다. 두심이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일찍부터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체험관을 꾸준히 방문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평소 동네 골목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 더 들여다볼 수 있다.

가만히 집에 있는 거는 싫어. 나땀기면 사람도, 금께 나땀기도 이 할매들 골목에 앉아 가고 또 그런 것도 싫지. (연구자: 골목에 앉아있는 거 싫고. 그럼 뭔가 좀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하모. 그리고 어디 땀기고 이제 뭐 배우러 땀기고. (두심 2차: 43)

골목에 앉아있으면 좀 남 보기에 좀 안 됐다 아이가. 그래 앉아있으면. 몰라. 내 생각은 그렇데. 그 골목에 앉아있으니 그래 줄 앉아있는 거 보면은 나는 ‘아이고 내는 늙어서 저래 안 해야지’ 싶더라고. 지금도 늙었지만. 늙었는지 모르겠네. 그때(예전에 골목에 있는 할머니들을 볼 때)도 늙었네. (두심 3차: 26)

두심은 할 일 없이 동네 골목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수업 듣고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골목에 앉아있는 것과 달리 “체험관에 앉아있으면 치료도 하고, 농담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두심에게 체험관은 꾸준히 건강강연을 듣고, 의료기를 이용하며 스스로 건강도 관리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그저 골목에 앉아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닌 바쁘게 배우고, 건강을 관리하고, 하루를 허비하지 않는 일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됐다. 그래서 아침만 되면 바쁘게 집안일을 해치우고 준비해서 체험관으로 향하는 것이 두심의 하루 시작을 알리는 일정이었다. 하루에 쉴 틈이 없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신나는 일이고 재미있던 두심에게 골목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은 ‘나는 늙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치 않는 노년의 상이었고, 그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달리 체험관 다니기는 다른 나이 들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었다.

두심은 연구자를 두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 도와줘야 한다”며 인터뷰 참여에 동의했을 만큼, 그리고 인터뷰 중에도 두심의 성에 차지 않게 공부에 매진하지 않고 열심히 구직하지 않는 손녀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할 정도로 공부와 배움을 중시한다. 공부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으로 취직하려고 하지도 않고 열심히 구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큰손녀의 이야기를 하며 “손녀한테 공부해서 시험 쳐라, 그것도 못하냐고 했다. 요새 애들은 악살스러운⁶⁷⁾ 게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배움이란 여전히 큰 화두인데 이는 두심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심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의 뜻으로 초등학교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원망과 무력함이 크

67) 해당 단어는 사전에 정확히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두심이 ‘이판사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태도’를 묘사하고자 사용한 단어로 보인다. 해당 문장만 보면 손녀에 상당히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뒤에 “그래도 너무 예쁘다 진짜”라면서 손녀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다. 중학교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말에 단식까지 했지만 결국 중학교 진학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고, 두심이 생각하기에 본인 때문에 같은 동네의 여자아이들도 “부잣집(두심의 집)에서도 학교 안 보내는데 너네가 왜 가냐”고 부모들이 생각해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사건이었다.

어릴 적 두심의 동네 여자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까지만 나온 것처럼, 1960년대 여성들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현저히 낮았다.⁶⁸⁾ 아들은 ‘집안을 일으킬 희망이자 기둥’, 딸은 이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노동해 가족 생계와 아들의 학비를 제공하는 ‘살림 밑천’으로 여겨(황은경, 2015)진 것처럼, 여성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일은 크게 특이하지는 않다. 다만 두심이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어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사노동을 한 반면, 사촌들은 성별에 관련 없이 모두 공부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두심이 17세였던 해에 경남 진주시에 거주한 작은엄마가 팔을 다쳐 집안일을 할 수 없어서 달리 할 일이 없던 두심이 작은엄마네 집으로 가 몇 개월 동안 가사노동을 도맡았다. 또래의 사촌들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때, 두심은 사촌들의 도시락을 챙겨주고 교복을 다렸다. 두심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본인이 원하는 학생이라는 형태의 자아실현보다 가정에서 노동하는 여성으로서 가족 내 위치되어 차별의 경험으로 와닿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여성인 어머니는 두심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고, 집안의 “어른”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운명을 정해버리는 경험은 당대 여성으로서 차별적 위치를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아닌 가족 내 어른의 결정에 따라, 가고 싶었던 학교도 가지 못하고, 결혼 이후 만든 가족에서도 자식을 부양하며 정신없이 살았던 시간이 여전히 한스럽지만, 체험관과 복지관에 다니고 향우회에서 친구들과 모여 여행을 다니는 등 두심은 즐겁게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웠다.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거나 일하는 등 몸을 움직여 잠

68) 1960년 국민 평균교육연수는 여성 2.92년, 남성 4.78년이다. 1966년 국민학교 여성 취학률은 95.1%, 중학교 33.0%, 고등학교 19.6%로 국민학교 이후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낮은 수준이었다(김재인, 1995).

시라도 쉬지 않았던 두심의 근면한 삶의 태도는 노년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이전까지 두심은 ◎◎동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의 동네로 이사 가도 매일 같이 도시락을 싸서 ◎◎동으로 와 오전에는 체험관,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수강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부지런하게 살았다.

체험관에서 여는 건강강연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몸과 나이 들을 이해하는 의료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다. 의료기 판촉의 일환인 건강강연에서는 의료기의 효능과 더불어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지식 등을 설파한다. 문희는 “다른 사람들은 매일 와서 효능을 보는데 한 번씩만 오면 효능을 볼 수 없다”는 의료기 체험관 사장의 재촉과 은근한 구매 권유가 부담스러웠음에도 체험관을 계속 가는 이유 중 하나를 건강강연으로 꼽으며 강연에서 듣는 정보들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문희가 강연에 가는 첫 번째 이유는 강연에서 건강 관련 상식을 얻고 들어보면 손해가 없고 아픈 몸과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희는 “상식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무식한데 또 하나씩 들으면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이 된다”고 말한다. 문희는 부족하고 무식하다며 스스로를 낮추지만, 그렇기에 건강강연으로부터 몰랐던 것은 더 배우고자 한다. 또한 강연의 목적이 의료기 판촉이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건강강연에 대해 “많이 들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몰두해 지는 것이고 사람이 판단해서 들을 때는 듣고 배울 것은 배워야지 너무 그 말을 듣지 않고 외면하면 ‘저 사람 독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여긴다.

두 번째 이유는 의료기 체험관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체험관에서는 “기구가 고장 났으면 무한대로 고쳐”주고 의료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강의를 누가 와서 한다 그러면 머릿수를 채워줘야” 하기에 간다. 건강관리에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 문희가 체험관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험관에서 의료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집에 사둔 의료기의 사후서비스를 받기 위해 체험관 사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으로 보인다.

문희는 체험관의 의료기 사용과 건강강연을 두고, “나이 먹어서 정말

로 늙어가는 판에 그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참여하는 것이라 여긴다. 실제로 문희는 30대 때부터 가족들 모두에게 보약을 지어줄 만큼 건강에 예민한 사람인데, 현재도 몸의 증상으로 자신의 나이 듦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강연에 참석해 꾸준히 배우고자 한다.

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나이, 취직해서 일해야 하는 나이, 결혼해야 하는 나이 등 특정 나이에 맞게 살아가게끔 제도화되어있는 사회에서 노년 여성들은 유년기에는 원가족의 딸, 결혼 후에는 어머니이자 주부인 가족의 여성으로 위치되었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발전과 쇠퇴라는 구조화된 시간에서 살지 않은 노년 여성들의 현재를 단지 은퇴하고, 가족을 다 떠나보낸 쓸쓸한 시간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들은 여전히 가족을 돌보며 부양 부담이 줄었을 뿐 여전히 부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쓸쓸하게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담이 줄면서 남는 시간에 하고 싶었던 일들에 참여하며 나름대로 일상을 구성한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 경험에서 드러나는 나이 듦의 이해와 대응을 살폈다. 노년 여성들의 체험관 이용 양상은 크게 아픈 몸 다스리기,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증정품 받아오기, 배움과 여가활동의 시간 즐기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 경험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주부이자 어머니인 가족 내 여성으로서 나이 듦을 알 수 있다.

체험관에 가는 노년 여성들은 대체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과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임한 고된 노동경험을 아픈 몸의 원인으로 생각한다. 이 여성들은 아픈 몸과 함께 살면서 이를 의미화하고 보살피는 각자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다.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는 노년 여성들의 고된 노동경험을 관통한 몸의 아픔을 흔히 ‘늙으면 당연히 겪는 증상’으로서 노환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 경향과 함께 노년

여성들의 몸에 대한 태도와 대응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병원은 방문할 때 진료비가 비싸고, 일회성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 전후로 환자들의 아픈 몸을 돌보지 않으므로 만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노년 여성들에게 공식의료기관의 진단 및 치료방식은 부담을 안긴다. 반면 의료기 체험관은 1회 비용이 저렴하고 꾸준한 방문을 유도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아픈 몸의 완화를 위해 체험관으로 향한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만 아니라 노년 여성들은 몸의 아픔이 단박에 나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데, 이는 돌봄 경험으로부터 몸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의료기 체험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방문 유도를 위해 생활용품들을 증정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이 물건들이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여긴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진 세월 속에서 살림의 주체로서 주부가 되었고 여전히 주부로서 살아간다. 주부는 가족 내 진공의 시간 속에서 나이도 없고 노동에 기한도 없다. 연구참여자들이 알뜰한 살림살이와 앞뒤 가리지 않는 노동으로 자녀들을 모두 키워낸 뒤에도 의료기 체험관에서 생활용품들을 받아오며 여전히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이 노동의 습속이 노년 여성들이 여전히 가족 내 여성으로서 존재함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나름의 재미와 효능감을 느끼는 도구가 되는 점도 포착할 수 있다. 돈을 벌며 쉬운 일이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은 방문만 해도 보상을 주고, 가정 경제 도움이 되는 데 기쁨을 얻는다.

한창 가족 부양을 위해 노동할 때 연구참여자들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지만, 현재는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운동 및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종교시설 등에 방문해 사람들을 만나며 일상을 보낸다. 매일 아침 의료기 체험관을 다닐 시간도 생기는데, 의료기 체험관에서는 어머니 대하듯이 노년 여성들을 대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편안하게 대접해주는 체험관 사장에게 고맙고 보답하려는 마음에 더 열심히 체험관에 방문한다. 이렇게 일상의 공간이 된 체험관을 매일 “출근”하듯이 다니고, 건강강연을 들으며 건강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

우는 근면한 생활의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낀다.

연구참여자들이 의료기 체험관을 이용하며 나이 들을 이해하고 대응해나가는데 가족 내 여성으로서의 경험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 중심의 나이 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기도 하지만, 각각의 삶의 조건과 생애에 따라 나이 들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대응해나가기도 한다. 다양한 대응의 양상은 한 세대 여성들에게 공유하는 나이 각본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각본을 따르지 않는 여성들이 있고, 다양한 나이 경험을 발굴해 정형화된 나이 각본에 균열을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의료기 체험관 경험을 통해 노년 여성들이 견고한 나이 들의 패러다임을 흔들지 못하는 한계의 이유와 조건을 살피고, 대항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제4장 다양한 나이 들 경험 발견의 불/가능성

의료기 체험관 이용을 통해 노년 여성들의 나이 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가족 경험과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 경험에서 벗어난 노년 여성의 나이 경험 외에 다른 나이 들의 경험들을 관찰할 수 있을까? 연구참여자들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노년 여성이 다양한 나이 들의 경험을 발견할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조건을 알아본다.

제1절 이상적인 어머니 기준에서 비롯한 나이 들의 기획 공유의 단절

노년 여성들은 “건강에 관해서는 가족끼리(특히 자녀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얼마나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지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동시에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폐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더욱 이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에 대한 논의는 원자화된다. 더불어 의료기 체험관에 가는 노인들을 무지한 사기 피해자로 바라보는 주요 담론은 노년 여성 이용자들 간의 “똑똑한 소비자인 나와 체험관의 전략에 말려드는 할머니”의 구별을 가속화한다. 이 같은 노년 여성들 간 관계의 분리와 제약은 이상적인 어머니 기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년 여성들은 가족 내 어머니로서만 나이 들을 받아들인다.

1. 개별화된 건강관리와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의 갈등

의료기 체험관은 노년 여성들이 모여서 아픈 몸을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몸을 보살필 때 다른 여성들과 자신을 분리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가족들, 특히 자녀만이 자신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들이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일종의 효도로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 챙기기는 개별화된다. 어

머니의 건강을 챙기는 가족(특히 자녀)이 성별화되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노년 여성들은 실제로 자신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마음 놓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인다.

1) 건강 챙겨주는 자라거리인 자녀들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에 관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로 자녀들과 상의한다. 혜자는 아플 때 “친구한테 말해서 어떡하냐, 말해도 자식에게 말해야 한다.” 그의 작은 며느리는 중소병원 심사과 과장인데, 의료기나 건강보조제 등을 사기 전 며느리에게 꼭 물어본다. 체험관에서 산 의료기도 며느리가 좋은 것이라 얘기해줬고, 건강보조제는 사지 말라고 하여 체험관에서 구매하지 않았다. 체험관에서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는 대체로 며느리와 상의한다. 10여 년 전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척추에 금이 가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때 작은 며느리가 수술하면 힘드니 집에서 붙여보자고 해서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재활 치료해 금이 간 척추 붙이기에 성공했다. 또 도수치료나 병원의 예약이 필요할 때는 며느리가 맡아서 예약해준다. 이렇게 의료지식을 잘 아는 며느리가 있는 것에 자부심이 있고, 며느리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물건들을 살 때도 본인은 절대로 사지 않는다.

여정은 두 번에 걸친 인터뷰 동안 꾸준히 딸이 자신의 아픈 몸을 보살피고자 병원을 예약하고,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보약을 지어준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 그의 양딸이 K 대학병원 간호사여서 빠르게 진료를 받은 경험도 있다. 문희는 작은아들이 서울 한방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쉽고 빠르고 친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병원을 알아봐 주고 자신의 건강을 신경 써주는 사례를 통해 자녀들이 충분히 “효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어머니로서 받는 효도로 자녀들이 제공하는 효도 정도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더욱이 건강관리 문제는 또래 노년 여성들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고 여긴다.

무엇보다도 연구참여자들의 건강을 신경 쓰는 대상은 ‘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의료기를 구매 경력이 있는데, “죽기 전까지 쓸 돈이 있는” 영육 외에는 모두 ‘딸’들이 의료기를 구매해주었다. 혜자와 문희는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저건 작은 거고 좀 큰 거 하나. 그래도 그거도 사치야. **아들 몰래.**
(연구자 : 몰래? (웃음)) 아들 다 뭐라 하지. 근데 우리 작은 딸은 뭐라 그러진 안 해. 그 자리 같은 거 뭐 200씩 이리 하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큰 돈이 있다. 지가 와서 계산하고. ... **엄마가 뭐 몸에 좋다고 하는데 자식이 뭐.** 그래 와서 계산해주고 하니까 거서 센터장이 그런다. 거 센터장이라 원장이 아니고 센터장. “참 어머니 효자딸 뒀다고 그런 걸 안 말리고 와서 돈 주고 계산한다고.” 저 허리 저것도 70만 원인데 내가 샀다고 하니까 지가 또 와서 카드로도 계산하고. 그래 가면은 그니까 또! 좀 땡겼지. 또 자식이 너무 말려도 못 땡긴다고. (혜자 1차: 2)

혜자의 딸은 “엄마에게 사주고 싶어서” 체험관에 와 자신의 돈으로 의료기를 결제했다. 그것을 본 체험관 사장은 “효자 딸을 두었다”고 칭찬했다. 무엇보다 이 의료기는 아들이 뭐라 한 소리 없을 것 같아 “아들 몰래” 산 것이다. 혜자는 “엄마가 뭐 몸에 좋다고 하는데 자식이 뭐”라며 자신이 좋다고 해서 당연히 자녀가 사준다고 말하지만, 사실 엄마가 의료기가 좋다고 하는 것도 딸만이 이해하고 있다. 문희는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본인의 돈으로 몇백만 원씩 하는 의료기를 살 수 없다. 아들들은 “엄마 좋으면 사 그러면 좋은데, 애들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않으니 살 수 없다”. 그러나 딸은 문희가 “아이고 이렇게 좋더라”고 말하니 돈을 보내줘서 딸이 보내준 돈으로 의료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여정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자녀로 두고 있다. 생애 이야기를 구술할 때 특히 딸이 극진하게 자신을 챙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최근에도 여정이 치아 수술을 한 뒤 딸이 보약을 맞춰주는 등 여정의 건강관리에 지극정성이라 연구자가 “따님이 잘 챙겨주신다”고 말하니 여정은

“자식밖에 없어. 그것도 딸!”이라고 답했다. 여정이 생각하기에 아들은 결혼 이후 꾸린 가족에 신경 쓰느라 바빠서 본인은 뒷전이다⁶⁹⁾. 그는 여러 차례 “속 깊은 딸과 속이 깊지 않은 아들”에 대해 묘사한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의 믿을 구석은 대체로 “딸”이다. 이 모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연구참여자들의 특히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탐구하면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딸이 엄마를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돌보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들과 딸에 기대되는 역할은 다른데, 딸에게는 친밀감을 기대하지만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노년 이후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책임감(김윤희, 2012)이다. 딸에게 경제적 부양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건강관리 등 일종의 돌봄을 기대하고, 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함을 알 수 있다.

2)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한 개별화된 건강관리

(1) 또래 여성들의 아픈 몸과 거리두기 : 죽음을 상기시키는 ‘늙고 아픈 몸’의 회피

자녀들의 건강 챙기기가 일종의 효도로서 또래의 노년 여성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노년 여성들은 실제로 중한 질병에 걸려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한다. 의존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마음은 의료기 체험관에서 만나는 고치기 힘들거나 중한 병을 앓는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로 나타난다. 의료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식의 홍보로 체험관에는 노년 여성들이 많이 앓는 근골격계 만성질환을 가진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양의학

69) 딸은 전화도 날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다. 그러니 친손주들보다 외손녀들이 더 정감 가는데, 흥미로운 점은 친손주들이 “반갑게 대해도 어딘지 모르게 ‘지 엄마’를 닮았더라”고 여긴다. 아들이 본인에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를 새로운 가족에 몰두해있기 때문이고, 친손주들이 며느리를 닮아 어쩐지 정감이 가지 않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들이 본인을 신경 쓰지 않는 데 며느리가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녀관계, 모자관계, 그리고 고부관계까지 이 혈연/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노년 여성의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는 추후 더 살펴볼 과제다.

으로 통칭되는 공식의료제도에서 완치하기 힘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방문한다. 의료기 체험관에서는 앓는 질병에 따라 이용자들 간의 분리가 일어나기도 한다. 문희는 V 의료기 체험관에 함께 있었던 폐병 환자와 암 환자가 옆에 있을 때는 “나도 아파서 간 거지만 아픈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있으면 좀 싫다.”

근데 진짜 암 환자들도 와서 많이 해. 근데 그것이 우리 이렇게 생각에는 ‘아이고 암 환자가 왔다.’ 나도 아플망정. 그분이 아프면 같이 앉아있는 거 싫을 거 아니야. (...)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나올까 하고 와 본 거지. 그랬는데 그... 이 직원들이... 괜찮다고 자신하고 괜찮다고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다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가는 그냥 믿고, 우리도 또 믿어주고 그 환자들 또 그냥 실락지⁷⁰⁾ 하나라도 잡으려고 허니까. 누가 그냥 그런 걸 보고 오겠어. 그냥 나 나올 것만 보고 오지... (문희 1차: 10)

문희는 체험관에서 암 환자와 같이 앉아있을 때 불편함을 느꼈지만, 환자들도 증세의 호전을 위해 체험관에 방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희는 환자를 만나는 장소와 관계에 따라 환자에 대한 감정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한창 인천의 교회에 열심히 다닐 때 병원으로 전도 활동을 전개하며 환자들을 가까이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전도 활동 시 환자들을 만날 때는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전도할 당시에 대해 문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환자들을 볼 때는 내가 사명감을 갖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의 건강을 기도해주기 위해 갔기 때문에 다녀오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고 떠올린다. 문희는 병원에서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인터뷰 도중 종종 자신이 영성 경험을 한 것을 연구자에게 말해주며 교회를 다녀보기를 권할 정도로 종교활동에 몰두한다. 그런 문희에게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도울 수 있는 대상들이었다.

70) 실오리의 전라 방언. 한 가닥의 실이라는 뜻으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는 실낱같은 희망을 의미한다.

이는 문희가 병원의 환자들을 체험관 이용 환자들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체험관의 환자들은 병원과 달리 자신이 건강을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다. 더불어, 체험관을 이용한 암 환자와 폐병 환자 그리고 뇌졸중 환자 등 질병을 앓고 있던 이용자들이 사망했는데, 문희는 사망한 이용자들에 대해 나이가 많고 병이 깊어서 약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기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문희 역시 자신의 몸을 두고 “연식이 있는”, “오래된 병”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자기 몸의 인식은 앞서 사망한 이용자들에 대한 질병 인식과 유사하다. 비슷하게 나이가 들었고, 오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의료기 사용으로 병이 호전되지 않는 현실의 직면이 불편함을 만들 수 있다.

두심이 다닌 N 의료기 체험관 브랜드의 다른 지점들에도 의료기를 사용해 자폐증, 암 등의 질병을 완치한 이용자들의 사례가 많다. 특히 N 의료기 체험관 본점에서는 암 환자들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체험관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두심은 따로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암 환자 대상 집중 치료를 위함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분리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공간 구조부터 이용자들끼리 의료기 사용을 볼 수 있게끔 하며, 의료기의 효능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체험관의 전략상, 암 환자들이 의료기를 사용하며 호전되어간다면 그 모습을 상업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로 이용자들의 방문 시간을 분리하는 이유는 문희 같은 사람들이 실제 환자가 오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므로 분리해버리는 것으로 유추된다.

문희가 의료기 체험관에서 아픈 또래 노년 여성 이용자들을 만나며 느끼는 불편함은 의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김주현 외(2013)는 노인들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 및 이미지와 자신을 분리하고 거리를 두는 경향을 포착한다. 근대 이후 의료화의 흐름을 통해 인간의 몸은 관리, 치료, 조절되는 통제되고 개입하는 대상으로 구축되었고, 의료화와 신자유주의 자기관리담론이 함께 작용하며 일상적 건강관리가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 무병장수의 바람을 엮은 건강관리 규범

은 독립/의존, 몸/정신의 남성중심적 이분법을 강화해 나이를 관리와 통제
제의 대상으로 만들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족과 국가에 ‘짐’이 되는 존재로 비난받고 동정받는다(전
희경, 2012: 209). 연구참여자들 역시 노인으로서 국가와 가족의 ‘짐’이
되기를 원치 않으며, 특정 질병을 가진 이용자들을 보며 “그들도 질병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 같은 또래
여성으로서 아픔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느끼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두
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녀들에게 자신의 건강에 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체로 혼
자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큰일이 아닌 경우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헤자
는 아플 때 “자식들에게 뭐하러 일일이 말하냐, 크게 아프지 않을 때는
동네에 병원도 많고 혼자 해결한다.” 두심은 걷는 게 힘들 정도로 발목
이 아픈데 집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주변에 경사진 도로가 많아 혼자서
병원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작은아들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작은아들이 쉬는 날까지 병원 방문을 기다리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
니라 너무 아플 때는 힘들지만 택시를 타고 나가 병원에서 진료를 봤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 논의하고 의존하며 그것
이 자랑거리가 될 때도 있지만,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
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아픈 몸을 혼자 해결하기를 원한다.

특히 자녀에게 이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등으로 의존하
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해 의존한 경험⁷¹⁾이 있는
경우 몸을 ‘건강하게’, ‘이상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71) 몸을 못 쓰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의존한다는 인식 역시 건강한 신체를 정상으로 여기
는 자율성의 신화에 기반한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 의존하고 돌보며 살아간다. 그렇기
에 완전한 의존과 완전한 돌봄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돌봄수혜자는 오롯이 돌봄제공
자에게 돌봄을 ‘제공’받는 존재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우
리는 의존하면서 의존하는 다른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돌본다. 내용과 형태, 정도의 차
이가 있지만 돌봄은 언제나 상호적이며 쌍방향적이다(김영옥, 2020: 21).

보인다. 문희는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마련이나 생활비에 도움을 주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녀들이 얼마나 효자/효녀인지를 늘어놓았다. 어머니로서 효도하는 자녀들을 자랑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평소 자녀들에게 이미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부채감이 있을 수 있는데, 몸의 아픔까지 더 해버리면 더 부담을 느낄 것이다. 게다가 문희는 생애 구술에서 질병 경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 만큼 갑작스레 몸이 아파 병원으로 가는 일도 많았는데, 예컨대 현재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온 날에 갑자기 무릎이 전될 수 없이 아파 제대로 걸지도 못해 공휴일에 온 가족이 병원으로 나선 적이 있다. 질병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의 영역이지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마음에 문희는 질병을 최대한 통제해보고자 더욱 열심히 건강을 관리한다.

두심이 받은 척추 수술은 10년 단위로 재수술이 필수이기 때문에 되도록 수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처음 수술할 때는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지만, 수술 대신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도수치료를 받고 관리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첫 수술로 생사를 넘나들고, 또 재수술까지 한 두심에게 병원의 수술과 치료가 아닌 아픈 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수술뿐만 아니라 퇴원하고서는 불면증을 앓아서 수면제를 처방받아도 쉽게 잠들지 못해 강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른 채 속옷만 입고 침대에 걸쳐서 쓰러져버렸고 그 장면을 또 딸이 목격하는 일이 있었다. 그 뒤로 두심은 병원에서 주는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 대신 숲 째질 체험관을 찾아 훨씬 수월하게 잠들 수 있었다. 두심이 건강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럿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더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술을 받으면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만만치 않게 돈을 써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두심은 첫 번째 척추 수술하면서 700만 원, 2021년 척추 재수술과 발목 수술을 하면서 2000만 원을 썼다. 사 남매를 키우기 위해 한창 소득노동을 할 당시에 그렇지만 은퇴 이후 사정이 더욱 넉넉

지 않으니 수술비용은 모두 자식들이 감당했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연구자: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나는 고마 안 아프면 좋겠다. 자식도 걱정 안 시키고. 근데 거기 뭐 고마 살다가 고마 빨리 가는 거 그게 소원이지. 아프고 이래가 자식들 고생시키면 자식들끼리 끼리 저거끼리 인제 그냥 있던 우애가 떨어지는기라. 그 사람이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뭐 이러면 우애 자식들 우애가 떨어지는기라 그런 게 그러면 **고생 자식 고생 안 시키고 내가 고생 안 하고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소원이지 뭐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 (...) 그리 자식들 고생시킬까 싶고 제일 걱정이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지. (두심 3차: 40)

두심은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하고 고생하고, 본인들끼리 우애가 상할까 걱정한다. 특히 발목을 다친 이후로는 같이 사는 아들의 차를 타지 않는 이상 외출이 어려운데, 이전에 아플 때는 그나마 스스로 병원도 잘 찾아갔다면 이제는 병원의 휴무일을 피해 아들의 휴무일만 기다려서 병원에 가야 하니 더 싫다. 해자 역시 자식들이 사준 안마기와 의료기를 소개하던 중 “나이가 많으면 자식들이 돈 대줘야 한다”고 말한다. 참여자들은 나이 들이 곧 몸의 아픔이고 몸의 아픔이 곧 자식들의 걱정이자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두심은 체험관 이용자 중 의료기를 사용해 무릎 수술을 예약하고서 수술받지 않은 사람을 두고 “돈 벌었다”며 부러워한다. 무엇보다 본인도 수술받지 않고 의료기 이용을 “열심히 하면 나아질까 이런 생각 마이(많이)”하며 체험관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닌 것이다. 이처럼 의료기 사용으로 자신의 몸을 달래며 살고자 하는 노년 여성들의 태도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아픈 몸에 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연결된다.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 내 돌봄제공자였는데, 몸이 아프면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돌봄을 받는 상황은 기존 자신의 역할을 무화시키는 것이 되어버리며 가족과 사회의 짐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최소한 돌봄을 받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

(3) 의존의 최소화를 위한 건강관리와 체험관의 어머니 대접

질병, 의존, 죽음은 나이의 많고 적음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 우연성의 영역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이 우연성을 수용하기보다 최대한 우연성을 통제하고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기 체험관을 다닌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세우는 촘촘한 건강관리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체험관인 것이다. 두심은 의료기 효능을 같은 체험관에 다닌 사람들이 건강 호전에 효과를 본 사례를 통해 믿게 되었는데, 다니던 체험관에 꾸준히 다닌 80, 9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부터 체험관으로 와서 의료기를 이용했고 고통에 먼 거리를 다닐 정도로 여전히 건강하고 정정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가장 최근에 다닌 N 의료기 체험관에서 극적인 효과를 본 두 사례에 대해 언급한다. 첫 번째 사례는 체험관에서 만난 무릎이 아픈 한 노년 여성이 무릎 수술을 예약했는데 의료기를 사용하며 무릎이 호전되어서 수술하지 않은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불면증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다가 의료기를 사용한 뒤 불면증을 완치하고 숙면하게 된 이용자를 언급한다. 두심은 척추 수술이 자신의 삶에서 힘들었던 사건이었고 심지어 수술 뒤 불면증이 심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체험관에서 만난 두 사례가 증상을 완화하고 살아가는 데 작은 희망이었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돌보고자 하는 모습은 노년 여성들이 과거 자식들에게 돌봄을 제공했음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기대지 않는 부모,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양상(이동옥, 2009; 김주현 외, 2013)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자녀들에게 아픈 몸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노년 여성들은 의료기 체험관에서는 극진한 ‘어머니’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체험관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하거나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여성들의 옆에 머물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기적으로 연락해 안부를 묻기도 한다. 노년 여

성들은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될까봐 말하지 못한 요구들을 마치 ‘자식 같은’ 직원들의 정성스러운 대접으로부터 충족한다. 여정은 노년 여성들이 뗏다방에 방문하는 것을 두고 “가래떡 같은 것 해서 나눠주고 아들 같은 직원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안마해주는 것에 미쳐서 다니는 할마씨들이 많다.”, “아들들이 그렇게 집에서 안 해주니까 가서 할머니들이 돈 쓰는 게 이해된다”고 말한다.⁷²⁾ 노년 여성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지만 자신의 요구가 부담이 될까봐 요구할 수 없는 보살핌과 대접을 체험관에서 충족한다. 그러나 건강관리와 고민에 대한 해답을 넘어 나이 들 역시 함께 나누지 못한 채 이들의 고민은 개인 각각에게 부담되는 과제로 더욱 원자화된다.

2. 똑똑한 가정 경영자와 대립하는 “사기당하는 할머니”와 거리두기

의료기 체험관을 둘러싼 담론은 체험관 가는 노년 여성들을 체험관의 그럴듯한 주장에 현혹되는 사기에 취약한 노인 집단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을 만나면 모호하고 단일한 집단으로 이들 전체를 포괄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 역시 해당 담론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의료기 체험관의 사기행위를 경계하면서 다른 이용자 중 체험관에 너무 몰두한 사람을 분리해내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구분한다.

영옥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데(체험관) 가면 바가지 쓴다’ 이래 되거든. 텔레비에도 많이 안 나오더나. 할매들 꼬시가꼬 막 물건 사고 뭐 사고 한다고”라며 의료기 체험관을 노년 여성 대상 사기 피해의 장으로 인식한다. 그는 의료기 체험관을 원장, 실장들이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사기 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체험관의 상업 전략에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TV 프로그램의 방영 기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72) 흥미로운 점은 여정이 뗏다방의 직원들과 할머니들에 대해 “(뗏다방 직원 중에) 여자들은 없고 그런 건(할머니들을 대접하는 것은) 남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뗏다방 가는 할머니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본인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자녀의 성별에 따라 가지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모순적이게도 체험관에 관한 주류 담론으로 보았을 때 영옥 역시 그가 말한 “할매들 꼬셔서 짠 물건 파는 바가지 장사”에 속는 할머니 중 하나로 편입될 것이다. 그러나 영옥은 체험관 가는 노년 여성 이용자들에 대한 담론을 받아들이며 자신은 그들과 다름을 강조하고, 무지한 사기 피해자로 같이 묶이기를 경계한다.

체험관에 열심히 다니는 회원을 지칭하는 ‘우수 회원’이라는 명칭 역시 영옥에게 거부감을 준다. 영옥은 의료기 체험관을 2년 내내 다니며 사은품들을 받은 사실은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자신은 꼭 필요하고 요긴한 물건을 산 것이지 노년 여성들을 “속여먹는” 체험관에서 판매하는 자질구레한 상품들을 다 사고 우수 회원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불리기를 싫다. 그는 “체험관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잘 안 넘어가는 성격”, “남이 사라고 해도 내가 필요한 것만 사지, 폭 빠져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사고 그러지 않는다”는 요지의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나는 원강(워낙) 내가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딱 필요한 기계 그거만 하나 딱 샀지. (...) 다른 사람은 먹는 약, 홍삼, 수삼 뭐 안 나오는 게 없었다. 그런 거 다~ 사고. 샴푸, 비누, 때 비누 뭐 없는 게 없다. (웃음) 그래 팔았는데. 나는 참말로 나는 폭 빠지가 넘어 사라 칸다고 사고 하는 성격이 아니다. 내가 꼭 이거 하나 있으면 마 괜찮겠다 싶으면 사지. (영옥 3차: 37)

체험관에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자신과 달리 의료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의 물건들을 과도하게 많이 구매하는 여성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혜자 역시 “할매들이 진짜 돈 많이 갖다 버려! 기계 쓰도 안 하면서 산다”고 체험관 사장과 직원의 설득에 넘어가는 할머니들을 지적하는 반면, 자신은 자주 쓰는 매트와 허리 마사지기 정도만 샀다.

여정은 자신이 다니는 체험관에 대해 설명하다가 2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반 다닌 뗏다방 이야기를 꺼내 비교했다.⁷³⁾ 그는 “집 한 층을 거

73) 20여 년 전이라는 시차가 있고 고정적이지 않은 뗏다방은 체험관과 조금 다른 형태라

기(뺏다방)서 받아온 물건들”로 가득 채운 아는 언니의 권유로 뺏다방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을 사기에 속는 무지한 사람들로 바라봤다. 여정이 뺏다방을 믿지 못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비뽑기로 김치냉장고를 추천해 증정하는 행사 중 번호를 뽑기 전 직원이 물건을 많이 산 언니를 뽑아주기 위해 언니의 번호가 적힌 쪽지를 따로 추천함에 넣는 것을 목격했고 그 뒤로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원래도 뺏다방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좋지 않아 보여 살 마음도,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윤을 많이 남기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속셈이 보이기 때문에 그 뒤로 뺏다방에 가지 않았다. 여정이 방문한 뺏다방에서는 의류기 외에도 건조기, 화장품 등 각종 상품의 가격을 몇 배씩 올려 판매하고, 가래떡 등을 맞춰서 갖다 놓으면 “그런 거에 미쳐가지고 다니는 할마씨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돈 많은 할머니들이 가면은 막 써. 막 써. 뭐 **아들이 주물러 주었어. 뭣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남자들이 총각들이 그냥 이쁘장한 총각들이 와서 주물러 준다잖아. (연구자: 할머니들이 예뻐해요?) **할머니들이 좋아 미치지. 노래 불러주고. 막. 그때 반을 딱 짜놔. 여기가 무슨 학교 다닐 때 1반, 2반, 3반, 4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이 사면은 여기에서 저기 반 말은 사람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1반, 2반, 3반, 4반이 따로 있다 생각을 하면 돼. 병아리 반, 뭘 반, 뭘 반 하고 해놓고. 근데 이쪽에서 많이 사면은 이쪽 이쪽 다른 반들이 안 사잖아. 그러면 그만큼 아마 뭐가 안 좋은가 봐. 그러면 그 저기 말하자면 **아들 같은 애들이 손주 같은 애들이 못 잡게 할까 봐서 이쪽 반도 막 사고 저쪽 반도 사고 난리야. 안 지려고.** (여정 2차: 65)

무엇보다 그 공간을 꾸준히 방문하는 이용자들에 대해 여정은 “아들 같은 젊은 애들이 앞에서 재롱떠니까 할머니들이 좋아한다. 머시매들이 할머니들을 물건 사게 하려면 바로 안마”라고 평가한다. 여정이 간 뺏다방은 60대 이상만 입장 가능한 곳이었으며 젊은 남성 직원별로 반을 나누고 노년 여성 이용자들을 직원들의 반에 배치해 반별로 지출 경쟁을

볼 수 있지만, 상업 전략과 중노년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는 핵심적인 특성은 같으므로 여정의 뺏다방 경험은 체험관과 비견될 수 있다.

부추겨 돈을 더 쓰게 만들었다. 여정은 반을 나눠서 경쟁을 붙이는 난리가 싫고, 물건이 좋지도 않은데 돈 쓰게 하는 것이 뻔히 보여서 싫어 길게 다니지는 않았다. 체험관 다니는 또래 여성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연구참여자들의 태도는 ‘똑똑하게 소비하는 어머니상’을 내면화한 결과로 보인다. 어머니들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이익을 이끌어내고 쓸모 없는 소비를 지양하는 가정 경영자로 대표된다. 이상적인 가정 경영자의 상과 대비할 때 의료기 체험관의 노년 여성들은 가정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쓸모없이 지출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영옥은 체험관에만 정신을 쏟는 사람들을 보며 “체험관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하루종일 체험관에 다니는 것”이고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은 오전에는 이 체험관, 오후에는 저 체험관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체험관에 몰두해있는 우수 회원들과 달리 자신은 바쁘고 따로 할 일이 있다고 확실히 구분한다. 영옥은 할 일 없이 체험관을 다니는 사람들과 운동 및 취미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비교한다. “복지관 친구들은 다 운동을 하이 좋다아이가”라며 복지관 사람들은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일궈 나가는 사람들로 여긴다. 영옥 역시 그가 좋게 평가한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처럼 매일 복지관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 가족들을 만나는 등 바쁜 삶의 양식을 추구한다. 복지관은 노년의 여유로움과 취미생활을 해나가는 곳으로 비치는 반면, 체험관은 ‘사기’ 담론이 노년 여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험관에만 하루 내내 머무는 노년 여성들은 체험관에서 주는 사은품 등에만 의존해 여행을 바랄 뿐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제2절 가족에서 벗어난 나이 들과 여성 됨의 지평을 조망하기

의료기 체험관의 노년 여성 이용자들 사이의 뚜렷한 분리는 지배적 나이 각본에 대항할 여지 자체를 없애는가? 분리와 구분이 있음에도 언

구참여자들이 의료기 체험관 다니기를 지속하며 정형화된 나이각본과 다른 나이 들에 대한 이해와 서사를 쌓는 과정을 살핀다. 연구참여자들은 아픈 몸 다루기의 일환으로 체험관에 다니고 이를 통해 나와 다른 아픈 몸들을 이해한다. 또한 의료기 체험관 내 소수의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터놓고 말하며 가족 외에 의지할 다른 관계를 만든다. 이를 통해 가족 내의 누군가로 나이 들기보다는 나로서 존재한다.

1. 다른 아픈 몸들과 삶의 이해

의료기 체험관은 주로 노년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노년 여성들은 동시대의 어머니로서 가족을 책임진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의 여지가 있다. 두심은 복지관 친구의 추천으로 체험관에 가게 되었는데, 친구 덕분에 체험관에 갔던 것처럼 주위 사람을 체험관에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문희 역시 본인이 써보고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을 권한다. 본인이 사용해보고 의료기를 권유하는데 “꼭 가야 할 환자는 안 간다”며 너무 자기 고집만 세우면 안 된다고 안타까워한다. 특히 문희가 오랜 시간 다녀 교회에 아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인천과 현재 거주 중인 지역 교회의 권사님들을 체험관에 데려간 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체험관에 데리고 가면 지인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아픈 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인들을 의료기 체험관에 데려가는 것처럼 체험관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여성으로서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의료기 체험관에서 내 몸을 치료하면서 옆의 사람들도 보게 되고, 체험관에 많이 오는 이유가 여자가 더 아프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게 된다. 영옥은 의료기 체험관에 여성들이 더 많이 오는 이유로 “여성들이 더 아프니까 (의료기 체험관에) 더 잘 빠진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체험관에 잘 빠지는 이유는 영옥의 나이쯤 되면 여러 곳이 아프기 때문이다. 두심 역시 노년 여성들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아플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노년 여성들의 몸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김정수(2017)는 경로당에 다니는 고령 여성노인의 여가복지 생활 경험을 분석했는데, 연구참여자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건강’이었다. 특히 경

로당에서 자신의 질환과 건강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처럼 의료기 체험관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의 아픈 몸에 대한 공감기가 있다.

의료기 체험관에는 남성 이용자들의 없거나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체험관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혜자의 체험관에는 남성 이용자가 아예 없었는데, 여성들만 있다 보니 확실히 편하게 “할머니들 모여서 우시게(우스개)도 하고 그런다”. 할머니들끼리 있다 보면 자기 욕, 옛날이야기, 영감 욕 등 욕 잘하는 할머니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면 한바탕 웃고 넘어간다. 두심은 “영감 언제 죽냐”고 떠드는 할머니들도 있지만 보기 좋지는 않다. 고유정(2015)은 중노년 여성 고객 대상의 중소도시 미용실을 ‘금남(禁男)’의 공간으로 명명하며 이 공간에서 여성들은 마치 집안에서처럼 편하게 흐트러진 자세로 있으며 누워서 수다를 떨고 미용실 안의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양상을 관찰한다. 남성이 없는 중노년 여성들의 미용실처럼 체험관 역시 비슷한 세팅으로 여성들이 수다 떨기에 좀 더 자유로운 환경이 갖춰져 있다. “영감 언제 죽냐”는 말을 농담으로 편히 던질 수 있는 여성들만의 공간이다. 남성이 없는 공간에서 여성들끼리 남편에 대한 한탄, 결혼과 시집살이를 위시한 비슷하게 살아온 생애 등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혜자는 다른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나이대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또래 여성들은 비슷하게 결혼하고, 맞아 죽어도 시집살이하고 살았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인생도 또래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시집살이라고 다 같은 시집살이가 아니고 맞고 사는 사람이 있고 좋게 사는 사람이 있다. 여성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사례에서는 동년배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힘들게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에서는 “저런 사람들 대면(비교하면) 좀 행복하게 살았다”는 생각도 든다. 김정영(2010)은 목욕탕에 다니는 중년 여성들이 공통의 화제와 동일한 경험이라는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중년’과 ‘주부’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정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주부로서의 삶의 가치를 인정함을 발견한다. 이처럼 노년 여성들 역시 비

슷하게 살아온 인생 안에서는 공감과 이해의 영역을 발굴한다.

2. 의지가 되는 소수의 믿을 만한 친밀한 관계

연구참여자들은 체험관 방문 전 주변 지인들이 아픈 몸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추천해 체험관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30년 지기 친구가 직접 체험관을 운영하는 여정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지인의 권유를 통해 방문하게 되었는데, 영옥, 두심, 혜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 문희는 여동생과 교회 식구들의 추천으로 체험관에 입문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체험관을 다닐 때 가까이 지내는 사이는 대개 의료기 체험관을 추천한 사람들이며, 기존 지인 외에 의료기 체험관에서 친밀한 관계를 더 확장하지 않는다. 영옥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2년 동안 체험관을 다녔고, 두심도 영옥과 같이 “복지관 친구들이 내나⁷⁴⁾ 의료기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의료기 체험관에서 소수의 친밀한 관계를 쌓은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에서 벗어난 관계들에서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해나간다. 두심은 체험관과 복지관을 같이 다닌 친구들과 함께 오전에 체험관에 다녀온 뒤 다른 동네로 회를 먹으러 함께 놀러 가는 등 돈독하게 지냈다. 의료기 체험관이라는 세간의 담론을 완전히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체험관에서 만난 이용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쌓기는 무리가 있지만, 체험관 밖에서 알고 지낸 사이는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사이는 과거 가족 중심의 삶을 꾸렸을 때와 다른 경험이다. 예전에는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모임에 나가며 나의 시간을 갖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자녀들도 모두 분가하고, 자녀의 손자녀들까지 다 키운 뒤의 두심은 한결 자유롭다.

특히 여정은 의료기 체험관에서 다른 이용자들보다 체험관 사장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체험관 사장과 여정은 30년 지기 친구인데,

74) ‘역시’의 경남 방언. 체험관과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같다는 의미.

서로의 집안 사정이나 살아온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30여 년 전 여정은 남편과 별거를 결심하고 집을 나와 원래 살던 지역에서 멀리 이사회 해 현재 P 시로 기반을 아예 옮겼고, 그때 만나 여태껏 의지해온 친구가 지금의 체험관 사장이다. 결혼하며 처음 자리 잡은 동네를 떠나 남편과 별거하고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은 그 동네에 갈 수 없었다. 여정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엄청 힘들게 살았다”고 생애 구술을 시작했다는데, 잘못 시작한 일은 바로 남편을 만난 일이었다. 결혼 이후에 여정은 본인과 남편 사이의 자녀 둘과 남편이 데리고 온 전 부인의 자녀 둘까지 키우며 경제적 부양까지 도맡았고, 여정의 남편은 되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여정에게는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다. 여정은 자녀들 모두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전 부인이 다시 살자고 한다”는 거짓말을 기회로 별거를 선언하며 가게를 얻어 동네를 떠났고 그제야 “자기 형이 돈도 안 버는데도 우리는 돌보지도 않은” 남보다 못한 남편의 동생이 사과하며 같이 살아달라고 붙잡았다. 처음에는 기존 동네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시가 친척들이 호소하고 남편이 업장까지 쫓아와 다시 같이 살자고 하는 바람에 아는 언니를 따라 P 시로 내려와 장사를 시작했다. 자식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 동네에 가면 더는 보고 싶지 않은 남편과 친척들이 있고, 돌아오라고 붙잡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매년 명절마다 여정은 체험관 사장과 전을 부쳐 먹고, 조조 영화도 보면서 지내왔다. 지금도 큰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서로 달려 와주는 사이다. 더는 남편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자식들을 두고 혼자 집을 뛰쳐나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야 하는 여정에게 체험관 사장은 의지할 곳이었다. 사장이 4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기 전에는 “내가 데리러 오라면 차 가지고 와서 데리러 오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던 그런 동생”이었다며 각별한 사이임을 드러낸다. 사장이 수술을 받은 뒤부터는 사장에게 부탁하는 것도 줄이고 여정 역시 사장의 건강을 챙기며 서로 돌보는 관계다. 여정은 체험관 사장만큼은 믿을 수 있는 동생으로 생각하는데, 체험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아

도 사장과 둘이 있을 때는 복잡한 집안 사정까지 곧잘 말한다. 여정이 남편과 떨어져 P 시로 나와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힘든 삶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여정과 사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녀들이나 집안에 관한 이야기 등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각별한 친구이자 동생인 사장이 운영하는 의료기 체험관은 여정에게 아픈 몸을 다스리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푸념이나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의료기 체험관 근처에서 약속이 있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에는 낮이고 밤이고 꼭 의료기 체험관을 들린다. 이전까지 의료기는 구매하더라도 의료기 체험관에 꾸준히 다니지도 않고, 장사하며 생긴 경제적 감각으로 쉽게 돈을 쓰지 않는 여정이 한 달에 30만 원씩 지출하며 체험관에 간다. 여정에게 의료기 체험관은 친구를 만나는 하나의 장이다. 여정과 사장의 관계는 가족 내에서 여성으로서 고정된 역할을 수행하며 겪는 여성의 나이 듦이 아니라 가족 외부에서도 나이 듦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쌓아감을 보여준다. 이들은 힘들게 살아온 생애를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며, 몸이 아프거나 서로 필요할 때 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었다. 구체적인 타자와의 관계는 원자화된 근대적/남성적 개인의 이상을 허물고 사회적 관계를 새로운 원리로 구성해나갈 수 있는 윤리적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나이 듦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시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약함과 의존을 새로운 관계의 질서로 통합해 내려는 노력은 평생 ‘여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성별 규범을 넘어 새로운 ‘자기(self)’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전희경, 2012: 250). 타자와의 관계에서 여성들이 ‘노년 여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규범을 타파하고 새로운 서사를 쌓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제3절 소결

4장에서는 의료기 체험관 경험을 통해 노년 여성들이 다양한 나이 듦의 경험을 발견할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체험관 이용자들 간의 어떤 조건

이 발견의 가능성을 만들고 제약하는지 집중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상적인 어머니 기준으로 자신을 의료기 체험관의 다른 이용자와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체험관은 아픈 몸을 다스리는 건강관리의 공간이지만, 그와 별개로 어머니로서 노년 여성들이 자녀들의 책임을 받는 것이 또래 노년 여성들 사이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체험관 내에서도 건강관리가 원자화된다. 그러나 이 노년 여성들 역시 완전히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결국 건강관리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담의 영역에 속한다.

또한 의료기 체험관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은 체험관에 가는 노년 여성들을 의료기 체험관의 마케팅에 속는 사기피해자로 보는데, 연구참여자들 역시 부정적인 인식을 인지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의료기 체험관에 다니는 사람들을 나와 다르게 “의료기 체험관의 전략에 속는 사람”으로 구분 짓고, 자신은 필요한 물건만 똑똑하게 구매하며 체험관의 상술에 넘어가 과하게 소비하는 일부 여성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치 부리지 않고, 헤프게 소비하지 않으며 똑똑하게 가정의 경제를 꾸려야 하는 이상적인 가정 경영자의 어머니상을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통의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았다. 의료기 체험관의 이용자 대부분이 노년 여성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좀 더 편하게 여성으로서 살아온 삶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 기반해 다른 여성들을 이해한다. 체험관의 모든 이용자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기존에 알고 지낸 관계의 여성들끼리 느슨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가족 외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가족 내에서 나이 들을 상상해온 여성들에게 다른 나이 들의 경험을 발견할 가능성을 보인다.

4장에서는 노년 여성들의 다양한 나이 경험의 발견 가능성을 살폈다. 나이 들며 나를 더 알게 된다는 말은 여성으로 자신을 환원하는 지배각본을 상대화하고 다른 서사 속에 재위치한다는 의미(전희경, 2012: 140)다. 여전히 노년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져 이상적인 어머니상에 따라 또래 여성들을 분리함을 알 수 있었으나 역설적이

계도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지배적 나이 각본을 균열시킬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노년 여성들은 왜 의료기 체험관에 가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노년 여성들의 의료기 체험관 경험과 그 의미를 노년 여성의 나이 듦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노년 대상의 의료기 체험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노년 여성들이 의료기 체험관 이용을 통해 나이 듦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는지, 마지막으로 체험관에서 노년 여성들의 다른 나이 듦의 경험이 발굴될 불/가능성의 조건을 살펴보았다.

먼저 노년 여성들이 다니는 의료기 체험관은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했다. 한국 사회에서 노년 개념과 담론의 변화와 맞물려 의료기 체험관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현재 체험관은 노년 여성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홍보 전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주목했다.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성장한 의료기 산업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가 개발되는 등 더욱 확장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고령화위기 담론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시행 등으로 형성된 “국가 경제적 부담이 되는 노인 담론”은 노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은 의료기 산업의 소비자로 특정된다. 노인뿐만 아니라 당시 의료기 회사 대리점 신문 광고를 살펴보면, 의료기를 통해 가족 건강과 외모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부에게까지 전달하며 소비자층을 확장시키고자 했다. 고령화위기 담론으로 경제적 부담이자 의존적 존재였던 노인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생산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문받는다. 건강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을 기대하는 시대에 의료기 체험관 사업은 경제위기 시대의 유망 사업으로 둔갑한다. 2000년대 초반, 의료기 체험관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신노년이 될 수 있는 장으로서 보편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한다.

현재 의료기 체험관은 대체로 노년 여성들이 평소 일상생활을 하는 시장이나 주택가 근처에 있어 접근성도 좋고 일상적으로 체험관에 다니기가 쉽다. 체험관 외부는 도배를 해두어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해두고 내

부는 완전히 개방된 공간으로 이용자들이 서로 의로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두었다. 체험관 중간에는 긴 의자들이 있어 이용자들이 앉아 ‘건강강연’을 들을 수 있다. 건강강연은 의로기 체험관 대표가 나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시간인데, 노인들의 건강하지 않은 상태와 그로 인한 의존의 불안을 자극해 의로기 판매를 촉진한다. 의로기 체험관에서는 뚜렷한 성별직무분리가 나타나는데, 건강강연 등 의로기 체험관을 대표하는 역할은 남성인 원장이, 의로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가까이 가 친밀한 관계를 쌓고 세세히 돌보는 역할은 여성 직원들이 맡고 있었다. 최근 기존의 브랜드 체험관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카페형 의로기 체험관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의로기 체험관화”도 관찰된다. 새로운 형태의 체험관들을 통해 노년 여성들만이 주 소비자로 인지되는 의로기 체험관 산업이 확장되고 변화를 추구하며 더 넓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의로기 체험관 운영을 통해 의로기 산업이 우리 삶에 만연해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 같은 의로기 체험관의 기본 설정을 바탕으로 노년 여성들의 체험관을 다니는 이유를 나이 듦의 이해와 대응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의로기 체험관 이용은 어머니, 주부 특히 가족 내 여성으로서의 나이 듦과 연관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의로기를 이용해 아픈 몸을 다스리고, 체험관의 생필품을 받고, 건강강연, 효도잔치, 노래경연 및 식사시간 등 체험관에서 여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 매일 의로기 체험관을 방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아픈 몸을 다스리기 위해 의로기 체험관에 다닌다. 이 여성들은 의로기 체험관에서 다스리는 자신의 만성적으로 아픈 몸을 단순한 노화의 결과보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으로서 고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계속 소득노동을 해야 했던 노동경험, 여러 번의 유산과 출산경험 등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과 연결한다. 대부분 만성질환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로기관에 방문하지만, 진료비가 비싸고 일회적 진단 위주로 환자를 대하는 병원과 달리 비용이 저

럼하고 꾸준한 방문으로 몸을 돌볼 수 있는 의료기 체험관을 매일 방문해 몸을 돌본다. 연구참여자들이 의료기 체험관에서 자신의 몸을 일상적으로 돌보는 것은 돌봄 경험으로부터 아픈 몸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의료기 체험관에서 주는 사은품은 주부로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재미와 효능감을 안겨준다. 의료기 체험관은 생필품 등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노년 여성들의 정기적 방문을 유도한다.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체험관을 방문할 때마다 생활용품을 제공하는데, 이는 70대의 노년 여성 연구참여자들이 지금까지 부업 노동을 해온 노동 조건과 유사하다.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한 번에 여러 직업 혹은 일감을 얻어 어떻게든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여성들에게 체험관에서 주는 물품들 역시 가정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이다. 이 물건들을 매일 받으러 가면서 효능감과 재미를 느끼기도 한다.

또 개인시간이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이 가족 부양의 부담이 줄어든 뒤 매일 의료기 체험관을 다니며 배움과 근면한 생활의 즐거움을 얻는다. 특히 체험관 직원들은 이용자들을 어머니처럼 대하며 호도하듯이 모시는데, 이 대접은 일부 연구참여자들이 체험관을 더 열심히 가게끔 만들고 사장에게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든다. 연구참여자들은 매일 출근하듯이 열심히 의료기 체험관을 다니며, 건강강연을 통해 쓸모있는 건강 지식을 배워 근면한 생활의 즐거움을 느낀다.

연구참여자들이 의료기 체험관에 가는 이유와 경험을 통해 노년 여성들이 가족 내 어머니, 주부로 살아온 경험이 나이 들의 이해와 대응 과정에서 다수 발견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노년 여성이 가족의 여성으로서가 아닌 다른 나이 들의 경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조건을 살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내면화해 의료기 체험관의 다른 이용자들과 자신을 분리한다. 자신의 건강을 챙겨줄 사람은 결국 가족 특히 자녀라 생각하고 자녀들이 건강을 챙겨주는 것은 일종의 호도로 또래 여성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녀, 특히 딸이라는 믿을 구석이 있지만 결국 자녀들에게도 아픈

자신이 부담이 될까봐 개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또 의료기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무지하게 속는 할머니” 담론을 의식해 쓸모없는 것들을 구매하거나 과소비하는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구별한다. 이는 똑똑한 가정경영자로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분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세대의 여성으로서 살아온 다른 노년 여성들의 아픈 몸과 삶을 이해한다. 여성으로서 고생한 삶을 알기에 의료기 체험관에 다니기를 권하면 다른 여성을 돕는다고 생각해 친구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남성 이용자가 적거나 없는 여성들이 주인 공간에서 가족을 벗어나 수다를 떨기도 한다.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의 의료기 체험관 이용자들과 자신을 구분 지으려고 하지만, 기존에 알던 사이거나 소수의 믿을 만한 관계에서는 가족을 벗어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관찰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나이 들어 판단이 흐려진” 할머니들이 간다고 치부되는 의료기 체험관을 노년 여성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이들의 나이 듦의 이해와 대응 과정 및 그 의미를 살핀다는 데에 있다. 노화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조건에서 노년 여성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비추어 나이 듦이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님을 밝혔다. 노년 여성들에게 가족의 여성으로서 경험은 현재의 나이 듦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다양한 나이 듦의 경험을 더 많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천착해야 할 부분이다. 노년 여성들은 체험관에서 모두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며, 각자 다른 상황과 삶의 조건에 놓여있는 여성들임을 전제하며 다양한 나이 듦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체험관 이용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5명 중 4명이 체험관 다니기를 중단했고, 체험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활동이 막히며 노년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현저히 약해지고 사라졌으나 코로나 전후의 환경적 변화를 더 조망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연구방법에도 작성했듯이 체험관을 이용하는 노년 여성을 표집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

나, 좀 더 다양한 체험관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예컨대 인터뷰 중 연구참여자로부터 체험관에서 의료기를 사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이처럼 연구자가 만난 연구참여자와 체험관을 다르게 이용하거나 다른 계층적 조건을 가진 연구참여자를 만났더라면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본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젊은 시절 벌어들인 돈이 있거나 자식의 부양으로 인해 경제적 수준이 하층인 경우가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경제적 수준을 주요 조건으로 여성들의 의료이용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가. 단행본

- 메이·김영옥·이지은·전희경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2020. “새벽 세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봄날의책.
- 박경숙·안경진. 2022. “단절 이후의 삶 노년 이야기”. 다산출판사.
- 이동옥. 2012. “나이듦과 죽음에 관한 여성학적 성찰”. 한국학술정보(주).
- 제소희·김지원·서보경·윤은경·박영수·강지연·이기병·김태우·이현정·이예성·김보영·유기훈·김관욱. 2021. “아프면 보이는 것들 - 한국 사회의 아픔에 관한 인류학 보고서”. 후마니타스.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05. “한국의료기기산업 50년사(1954~2004):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역사를 중심으로”.
- Cruikshank, Margaret. 2013. “Learning to Be Old: Gender, Culture, and Aging”.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마거릿 크룩셱크. 2016. “나이듦을 배우다 - 젠더, 문화, 노화”. 이경미 옮김. 동녘.)
- Dusenbery, Maya. 2018. “Doing Harm: The Truth About How Bad Medicine and Lazy Science Leave Women Dismissed, Misdiagnosed, and Sick”. HarperOne ; 1st edition. (마야 뒤셱베리. 2019.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 은밀하고 빨 깊은 의료계의 성 편견과 무지”. 김보은, 이유림 옮김. 한문화.)
- Ehrenreich, Barbara.&English, Deirdre. 2005. “For Her Own Good: Two Centuries of the Experts Advice to Women”. New York: ICM Partners. (바버라 에런라이크, 디어드러 잉글리시. 2017. “200년 동안의 거짓말: 과학과 전문가는 여성의 삶을 어떻게 조작하는가”. 강세영, 신영희, 임현희 옮김. 푸른길.)
- Flick, Uwe. 2002.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SAGE

- Publications. (우베 플릭. 2009. “질적 연구방법”. 임은미, 최금진, 최인호 허문경, 홍경화 옮김. 한울아카데미.)
- Frank, Arthur W. 2002. “At the Will of the Body: Reflections on Illness”. Harvest; Reprint edition. (아서 프랑크. 2017. “아픈 몸을 살다”. 메이 옮김. 봄날의책.)
- Gannon, Linda R. 1999. “Women and Aging: Transcending the myths”. Routledge.
- Klienman, Arthur. 2020. “The Illness Narratives: Suffering, Healing, And The Human Condition”. New York: Basic Books ; Second Edition.
- Nettleton, Sarah. 1995. “Th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Polity Press. (사라 네틀턴. 2009.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조효제 옮김. 한울아카데미.)
- Thorne, Barrie.&Yalom, Marilyn.&Spiegel, David. 1992. “Rethinking The Family: Some Feminist Questions”. Northeastern; Revised edition. (배리 소온 엮음. 2009.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나. 논문

- 강군생·김정선. 2017.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 한국노년학. 37(1). 103-123.
- 강세영·홍성희·유가호. 2005. “소규모 자영업의 성별 사회경제적 제약조건”. 가족과 문화. 17(3). 49-83.
- 강유진·한경혜. 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에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 인생전환점, 삶의 맥락, 적용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99-126.
- 강은나·김혜진·정병오. 2015.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229-255.
- 강이수. 2007.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

- 미니즘연구. 7(2). 1-35.
- 강정희. 2013. “노인요양시설 여성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탐색”. 가족과 문화. 25(2). 180-210.
- 고유정. 2015. “중소도시 아줌마 미용실 단골고객망(Clientele)의 사회적 의미: 충청남도 서산시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곽대경·곽영길·이승철·양승돈. 2009. “불법 다단계판매의 범죄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9(1). 121-150.
- 김경연. 2018. “노년여성의 귀환과 탈가부장제의 징후들”. 어문논집. 82. 133-177.
- 김나리. 2022. “노쇠 수준에 따른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김난영·도광조. 2022.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노인의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통합힐링케어 프로그램”. 인문사회 21. 13(5). 2299-2312.
- 김미선. 2021. “양장점을 통해 본 1950년대 전후(戰後)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김미호·문재우. 2013. “노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26.
- 김선미·이기영. 2006. “주부의 ‘일상적 살림살이’에 관한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0(4). 109-124.
- 김숙영·김희걸·전경자·소애영·박은옥. 2011. “농촌 여성 노인의 건강의식 및 건강관리경험”. 한국농촌간호학회지. 6(2). 87-94.
- 김윤희. 2012. “2, 30대 중산층 비혼 여성의 생애기획 -“친구 같은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김은정. 2008. “여성 노인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 본 노년기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지속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0(1). 27-67.
- 김정석. 2007. “고령화의 주요 사회이론과 담론”. 한국노년학. 27(3). 667-690.
- 김정석·조현연. (2017) “인구고령화 시대, ‘생산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

- 관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24(2). 7-28.
- 김정수. 2017. “고령 여성노인의 여가복지 생활 경험”.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7(11). 681-688.
- 김정영. 2010. “중년여성들의 일상적 대화의 의미 - 아줌마들의 ‘목욕탕 수다’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김주현·김지혜·김희주. 2013. “노인의 ‘나이 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과 수도권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3). 269-310.
- 김지아. 2004.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본 학대받는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1-225.
- 김향수·배은경. 2013. “자녀의 질환에 대한 모성 비난과 ‘아토피 엄마’의 경험”. 페미니즘연구. 13(1). 1-46.
- 김형민·심경보·김환·김석범. 2013. “지역사회 거주 일반노인의 사회적지지, 사회적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3(1). 11-20.
- 김희경. 2003. “무료노인병원 환자 되기: 노인 고통의 사회문화적 생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문정란. 2011.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 131-160.
- 박경숙.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38(4). 101-132.
- 박금숙, 김혁준. 2021. “지역사회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연구학회지. 5(1). 43-53.
- 박철. 2011. “체험요인이 점포태도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에 진출한 한국 실버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박영란, 박경순. 2013.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60. 323-352.

- 배은경. 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 페미니즘연구. 9(2). 39-82.
- 백상숙. 2018. “한국 고령 환자 전환기 의료 관리체계개선 방안 - 미국, 호주 비교법 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백옥인. 2008. “한국 소비사회 형성과 정보사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7. 199-225.
- 백종진. 2014.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의 시설적응에 관한 연구 - 문화기술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2. 79-101.
- 손지영. 2020. “생활체육 참여 여성노인의 자기관리가 건강증진행위 및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4(1). 51-70.
- 송영신. 2015.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7(2). 33-72.
- 송유진. 2012. “외모지향의 연령과괴: 중·노년 여성들의 외모 가꾸기”. 한국사회. 13(2). 83-111.
- 신경아. 2007. “산업화 이후 일-가족 문제의 담론적 지형과 변화”. 한국여성학. 23(2). 5-45.
- 신금순. 2002. “소자본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신민선. 2018. “노화방지의학의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신민주, 주용국. 2015. “여성 노인의 노래교실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학논총. 37. 311-347.
- 신유정. 2013. “링겔은 보약인가? : 미신이라 불리는 한 의료관행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신재신, 안혜경, 김향미, 유연자, 김경희, 정인경, 이윤미. 2001. “골관절염 여성노인의 아픔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31(2). 180-193.

- 안병직. 2012. “노년의 역사: 연구동향, 성과, 과제”. 서양사연구. 47. 179-232.
- 안진. 2006. “생애사 연구를 통한 빈곤여성노인의 삶의 이해”. 光神論壇. 15. 221-253.
- 양승민·최재성. 2021.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이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존분석: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 13년간 분석”. 한국노년학. 41(4). 547-566.
- 유범상·이현숙. 2021. “노인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늙은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에서 선배시민으로”. 생명연구. 61. 27-53.
- 윤인숙. 2006. “체험관 이용고객과 실제 구입고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구매행동 비교연구 - 개인용은열기(침대형) 사례를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윤정원·엄기욱. 2015. “여성노인의 긍정적 사회관계망 기능이 사회적 관계망 접촉빈도와 성공적 노화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69. 171-192.
- 윤택림. 2008. “구술사 연구 방법론”.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1-16.
- 이동욱. 2009. “노년기 여성의 보살핌 경험과 가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_____. 2014. “노인여성의 몸과 미의 기준”. 여성학연구. 24(2). 123-157.
- _____. 2023. “노인여성의 재현에서 고정관념과 역할모델의 가능성”. 한국여성학. 39(2). 103-140.
- 이성희. 2011. “도시 여성 친목계 연구 - 장위 재개발 지역 여성 친목계를 중심으로 -”. 비교민속학. 45. 263-290.
- 이수현. 2015. “은열 의료기 이용 노인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이신영. 2006. “국내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 관한 일 고찰”. 복지행정논총. 16(1). 117-136.

- 이은주. 2016. “노인대상 사기피해 및 반복사기피해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4). 169-196.
- 이지영. 2009. “노년담론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노년학. 29(3). 1001-1024.
- 이현정. 2018. “병원에서의 반말 사용과 여성 노인 환자의 주체성: 돌봄의 젠더 정치”. 비교문화연구. 24(2). 397-430.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임여진. 2018.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장석만. 2021. “두 가지 몸의 늙음: 한국 근대 노년 관점의 변화”. 종교문화비평. 39. 234-272.
- 장현정. 2004. “한국가족에서의 ‘주부됨’과 여성의 건강”. 여성건강. 5(2). 105-137.
- 전희경. 2012. “‘젠더-나이체제’와 여성의 나이 : 시간의 서사성을 통해 본 나이경험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_____. 2013. “1960~80년대 젠더-나이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29(3). 41-79.
- 정순돌·이현주·최혜자·김고은·이소영. 2012. “한국 중산층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 경험과 의미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57. 221-260.
- 정순돌·김성원. 2012. “사회복지학 분야 ‘고령화 사회’ 연구동향 : 인식과 대책”. 사회과학연구논총. 27. 275-311.
- 정희진. 2003. “나이 늙, 늙음 그리고 성별”. 당대비평. 22. 338-351.
- 조명옥·김영경·김영혜·양진향·유연자·태영숙. 2003. “만성 건강문제를 지닌 여성 노인의 병 관념”. 여성건강. 4(2). 123-149.
- 조명옥. 2007. “만성질환을 지닌 여성 노인의 몸 체험”. 성인간호학회지. 19(3). 365-378.

- 차철욱. 2015. “부산지역 피란민 유입과 피란민 공간만들기 -우암동 피란여성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3. 229-269.
- 천명자. 2009.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젠더화된 ‘나이듦’에 관한 연구”. 여성이론. 21. 112-130.
- 천희란·강민아·정최경희·조성일. 2010. “여성 노인의 건강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학논집. 27(2). 3-41.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추지현. 2017. “여자 혼자 장사하기 : 범죄 ‘기회’ 차단을 위한 젠더화된 사업 전략과 효과성”. 한국여성학. 34(1). 67-104.
- 하정미·송영지·남희은. 2012.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5. 65-84.
- 황은경. 2016. “중년기 딸의 어머니와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Boneham, M. A. & Sixsmith, J. A. 2006. “The voices of older women in a disadvantaged community: Issues of health and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 Medicine. 62(2). 269-279.
- Freeman, Amy.&O'Connor, Deborah. 2002. “SEEN BUT NOT HEARD: Elderly Women's Experiences in the Hospital”. Canadian Social Work Review. 19(1). 65-84.

다. 보고서

- 김재인. 1995. “여성교육과 여성의 지위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48호.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22.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 임연규. 2022. “누가 부업을 하는가”. KWDI(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리포트 22-1.
- 전희경. 2017. “‘노인’ 범주의 담론적 구성의 성별정치학과 ‘노인 여성’의

시민권”.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연구보고서.

라. 인터넷 기사 및 기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연합뉴스. 2008.01.25. “어르신들 올리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조선일보. 2020.06.22. “어르신들 와글 의료기 떴다방, 담요·방석 소독은 없었다”.

중앙일보. 2017.11.28. “”그 나이엔 원래 아파요“ 의사의 말이 더 아픈 노인들”.

Abstract

Experience of using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⁷⁵⁾” of elderly women and its meaning : Focusing on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aging’

Lim Jiho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comprehension and reaction of aging through the use of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for elderly women and the im/possibility of discovering diverse aging experiences. Existing discourses and precedent research have considered women who visit experience center as ignorant fraud victims, patients, and gullible marketing targets. Rather than understanding the use of the experience center in a segmented way, I tried to pay attention to

75) “The term “experience center” has no agreed English usage, so this article adopts the expression “experience center” used by medical device companies as a direct translation. In this article,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and “experience center” are used interchangeably.

the process of aging as a woman.

In order to understand the elderly women's experience of using the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as 'aging', the process of the experience center's emergence and current conditions were the first things to be examined. In Korean society, the elderly had to become the main agents of healthy and economic activities starting from the amplification of the discourse on the aging crisis and the IMF economic crisis. Born as parts of the health industry for the elderly, which was expanded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healthy old age, the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has become a place for consumption targeting the elderly. The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which has health care and disease-free longevity in the elderly as its banner, asks elderly women to take care of their health while instilling anxiety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no choice but to depend on their children in an unhealthy state. At the same time, the experience center implements strategies that lead to continuous visits, such as presenting products to elderly women users every time they visit, and they also treated them as if they were intimate.

Participants' motives and experiences of going to the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categories. First, it is means to manage the sick body of the participants' lives. The elderly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sick in many parts of their bodies. This is not simply a result of aging, but is explained by the influence of certain events or the course of life. Since a sick body engraved with decades of life cannot be resolved with a one-time visit to the hospital, study participants take care of their bodies by continuously visiting the experience center every day for several months to several years. The act of steadily taking care of one's body at the experience center for elderly women is a secret learned from the experience of caring for a family. Second,

gifts such as daily necessities to induce visits to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are actually useful and necessary items for study participants, who are homemaker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it was difficult for women to find a stable job as much as men, but they had to take care of the family and take charge of the household economy while at the same time, doing various labor to support their families. As homemakers who have been in charge of home economics and housekeeping for a life, women continue to live as homemakers without retirement and without age, as evidenced by the free gifts provided at the experience center. Finally, the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which was visited every day, became a daily routine for the study participants. Study participants who had limited personal time due to supporting their family were now able to live their own lives by reducing family support burdens, and attending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every morning as if they were “going to work”, plus listening to lectures there. Through the main reasons and experience of attending the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the study participants understood and responded to aging differently through different life and class, and in particular, the aging process as a woman in the family was observed.

Asking if there is room for discovering various experiences of aging other than women in the family can be a question that follows. The sepa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users of the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makes the possibility and the impossibility coexist. Since they have aged as ‘the woman of the family’, their “ideal mother standard” is strong. As a result, it tends to be difficult for them to separate themselves from other experience center users and reflect on other aging within that framework. According to this standard, elderly women are more immersed in how to be filial to their children through health care rather than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but they do not want to

be completely dependent on their children, so the management of aging becomes individualized in the end. In addition, the study participants recognized other women in the experience center as elderly women who were fooled by experience center's strategies and compared themselves with smart consumers, which seems to be the result of internalizing with smart family managers. However, the possibility of looking at other horizons of aging beyond the family is also discovered. Based on their own lives, they can understand the lives of other women, and in the few trustworthy relationships formed under specific occasions and conditions, they form relationships outside of the family and become mutually supportive. Separation among the users of the experience center is found, but this minority relationship is also the reason why the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continues.

This study captures 'age' in the existing discourse that contains the prejudice against old age that old and ignorant women are deceived and goes to the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and rather pays attention to how they aging in the center.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work of reading the aging of elderly women not simply as a matter of the body, but from the conditions of life, and that various experiences of aging were considered.

Keywords : elderly women, medical device experience center, aging, caring body, non-aging homemaker, ideal mother standard

Student Number : 2021-20975